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태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5월 1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22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자원봉사자 부족

서울 옥수동에 사는 한수진(38) 보살은 일주일에 두 번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을 찾는다. 결식아동들에게 가져다 줄 도시락을 싸기 위해서다. 도시락을 받기 꺼려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도시락을 받아 먹는다니 여간 즐거운 것이 아니다. 가족들도 한 보살의 자비행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IMF관리체제로 인한 경제난의 여파로 어려운 사람이 늘어나면서 소외된 이웃들과 고통을 나누려는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관심의 증대와는 달리 불교계 복지시설과 사찰의 자원봉사자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자원봉사자 수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있지 않지만 타종교에 비해 아직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전국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약 3만여명. 이중 55% 가량이 개신교인으로 추정되고 불교와 천주교가 각기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타종교비해 인력부족
봉사교육 등 체계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각 사찰 신도회와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의 의미와 보시행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보시행의 동참을 권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각 종단 및 교구본사 차원의 홍보와 지원도 필수적이다. 젊은 불자들을 자원봉사에 활용함으로써 불교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화함은 물론 지속적인 신행인구의 저변확대라는 2중의 포교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연꽃마을 등에서 추진중인 '자원봉사자 관리 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 지속적인 일거리 제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인적사항, 활동경력, 특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과학적인 자원봉사제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만공 한암 용성 만해 경봉 청담 고암 성철
20세기 빛낸 큰스님 여덟분
기념메달로 우리곁에

한국조폐공사 제작

근세 100년의 한국 사회와 불교를 이끈 위대한 고승8인이 기념메달로 모습을 다시 나퉈 우리 곁에 온다.

경허스님의 선맥을 이은 만공(수덕사)스님부터 한암(월정사) 용성(대각사) 만해(백담사) 경봉(통도사 극락암) 청담(도선사) 고암(신흥사 낙산사) 성철(해인사 백련암)스님이 그 분들.

한국조폐공사는 '근세 100년 고승 기념메달'을 제작해 20세기 한국불교를 결산하고 스님들의 생애와 사상을 다시 기리며, 그 분들의 위업을 통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뜻깊은 문화포교사업을 펼친다.

근세 100년을 정리하고 기념하는 이 행사는 각 문도회와 유관 사찰 및 기념연구소의 후원으로 추진되며 큰스님들의 업적으로 불교의 위상회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부처님오신날 첫 선을 보이게 되는 고승 기념메달은 한국조폐공사 디자인 기술팀이 직접 제작한다. 고승 기념메달은 단순히 몸에 거는 용도가 아니라 사찰이나 가정 등 일상생활 공간에 소중하게 장엄하도록 만들어져 늘 생활속에서 가까이 친견하고 마음을 다잡게 한다.


◇만공스님


◇성철스님

인물 한 스님당 지름 8cm 크기의 원형으로 황동을 소재로 금도금을 입혀 제작되며, 앞면은 스님의 영정이 모셔지고 뒷면은 스님이 생전에 주석했던 사찰 또는 감조한 가르침이나 상징물 등이 담긴다.

만공스님은 만공탑과 '세계일화' 휘호, 한암스님은 좌탈입망의 순간, 용성스님은 '칠불통계'의 가르침, 만해스님은 '서시 군말', 경봉스님은 선풍을 진작했던 삼소굴현장, 고암스님은 신흥사 전경과 풍일대붕, 성철스님은 해인사 전경과 '산은 산 물은 물' 가르침이 품위있는 작품으로 조각됐다.

동국대 교수 보광스님(선학과, 개교 100주년기념사업본부장)은 "역사 발전의 주체가 되는 스님을 가정이나 사찰에서 모시는 것은 신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불사는 현대불교신문이 공동추진한다. 위영란 기자 (yryu@buddhapia.com)



불 밝힌 비천상 장엄등

비파를 타며 등공양을 올리는 천녀들이 장엄등으로 화현했다. 조계사와 봉축위원회가 전통등연구회(회장 백창호)에 의뢰해 제작한 대형 비천상 장엄등이 조계사를 찾는 불자들과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등은 16일 연등축제 때 거리로 나가 연도의 시민들에게 등공양을 올리고 천상의 음악을 들려준다. 전통등연구회가 2개월여의 작업끝에 완성한 이 장엄등은 전북 완주 송광사 대웅전 벽화의 비천상을 모델로 했다. 높이 4.3m 길이 6m. 조계사는 8일부터 등을 밝혀 전시하고 있으며, 연등축제 후에는 문화교육관 앞에 상시전시할 계획이다. 사진 고영배 기자

조계종 혜암종정 초파일 법어발표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은 6일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사부대중과 온 인류에게 법어를 발표했다. 이번 종정스님 법어는 97년 전 종정 월하스님의 발표 중단이후 3년만에 나온 것이다.

혜암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은 일체중생이 본래 천진불(天眞佛)임을 깨우쳐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을 가르쳐 주셨다"며 "인간은 모두 천진불이니 부처와 같이 모셔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가진 자는 남을 도와주고 권위자는 공심(公心)을 쓸지어다"고 설했다. 〈법어 전문 2면〉 정성운 기자

국내 첫 비구니율원 생긴다

봉녕사 '금강율원' 6월21일 개원

최초의 비구니 율원 금강율원(율원장 지관)이 3월 21일 개원한다. 수원 봉녕사(주지 묘업)에서 준비중인 금강율원은 6월 10일까지 율원생을 모집하고, 본격적인 율학교육을 시작하게 된다. 입방자격은 지방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로 서류접수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금강율원은 비구니율사 양성을 목표로 율장의 전문적 연구와 습의예참의 전승 등 2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앞으로 조계종의 전문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은지 기자

국회 종교인모임 28일 창립

종교-정당 초월 '상생의 21세기' 추구

가칭 '평화를 위한 국회 종교인모임'이 결성된다.

서석재 국회정각회장과 김영진(국회조찬기도회장) 김한욱(국회가톨릭신도위원장) 김정수(국회원불교회장) 김성곤의원은 4월 29일 준비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국회종교인모임 창립총회 및 기념식을 개최키로 했다.

준비회의에서 국회 각 종교별 대표들은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협력 △신뢰와 상생(相生)의 정치풍토 조성 △민족화합과 일치를 위한 노력 △인류공동의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것을 국회종교인모임의 창립 목적으로 정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문화재 관리국 '청'으로 승격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청'이 설립됐다. 국회가 3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관리국을 1급 기관장이 이끄는 문화재청으로 승격시켰다. 〈관련기사 2·3·6면〉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61년 문교부의 외국으로 출발한 이후 업무 폭증으로 여러 차례 기구확대가 논의됐고, 문민정부 때 전기를 맞았으나 '작은 정부론'에 밀리다 이번에 국회의 지원으로 숙원을 이루었다. 오종욱 기자

구산선문 참선 기행

5월 : 실상산문(실상사) · 쌍계사 · 칠불암

5월은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먼저 개창된 실상산문의 중심도량인 실상사를 찾아갑니다. 경령한 절마당 곳곳에 잘 보전돼 있는 상층석탑(보물 제37호) 2기와 석등 등 문화재를 비롯해 귀농학교 농장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쌍계사에서는 차(茶) 시배지와 진감선사대공탑비(국보 제47호), 대웅전(보물 제500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목각탱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칠불암에서는 새로 복원된 전통 수행 선방인 아자방에서 참선 정진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출발: 5월 29일(토) 밤11시 ·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 일양약품 · 대한불교제과인회

현대불교합본집 초파일 할인판매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997년호(제3집)와 1998년호(제4집) 각각 6만원의 합본집을 1만원 할인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오니 이 기회에 합본집 한권씩 소장하시고, 또 이웃에게 법보시하시기를 권합니다.

◇할인가격
제3집, 제4집 각권 50,000원(발송비 5,000원 별도)
◇입금계좌: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 의: 기획관리부 (02)737-8881 담당자 이승철

생명나눔 대법회

헌혈·화장 유언
사후장기기증 서약

◇일시: 1999년 5월 15일(토) 오전 11시
◇장소: 서울 삼성동 봉은사
◇주최: (사)생명나눔실천회 ·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봉은사

봉축행사 부다피아 인터넷서비스 : www.buddhapia.com

gva (주)건화종합건축사무소
GUN WHA ARCHITECT & GROUP CO., LTD
종합 건축설계 · 종합 감리전문 · 마스터플랜 · 엔지니어링 · 시뮬레이션 및 애니메이션 · 구조물 안전진단
대표 TEL(02)555-1567~8 · 02)555-7181~4

주식회사 아라종합건축 · 건설
건축 시공 · 견적 · 유지 관리 · 강구조(P.E.B)
대표 TEL(02)555-5775 · 02)555-2434~6

ARI 아리건영(주)
주택 건설사업 / 사업성 검토 / 부동산 컨설팅 / 인테리어 / 건축자재 무역업
대표 TEL(02)555-1567~8 · 02)555-718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2-24(아리빌딩2,3층) 대표이사 김 기 상



사 설

문화재廳에 거는 기대

정부가 중앙부처 행정기구를 축소 개편하면서 문화재관리국만큼은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해 청(廳)으로 승격시킨 것은 문화정책의 측면에서 매우 잘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예산이나 전문성 문제로 겪었던 문화재 보존과 관리상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불교계로서는 이같은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문화재청 설치배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문화의 세기'를 앞두고 문화입국(文化立國)의 기치를 내건 정부의 의지와 문화계의 요구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부존자원도 변변치 못하고 국토도 넓지 못한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입국' 밖에 방법이 없다.

석굴암과 불국사 팔만대장경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영국여왕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한국문화와 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리 문화의 세계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더욱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번 문화재청 승격은 바로 이같은 인식을 바탕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부가 '문화재청'을 설립했다고 문화대국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청이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하도록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문화재청의 정책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는 곧 서구화를 세계화로 인식하고 수많은 문화와 문화재를 파괴해왔다.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초가집을 헐어내고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유서깊은 문화재를 손상시켰다. 최근에도 건축법을 개정해 전통사찰 크앞에 위락시설을 짓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문화정책으로는 문화입국의 꿈을 실현할 수 없다. 앞으로는 모든 정책이 문화주의적 발상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문화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문화재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1급 청으로 승격되면서 기구가 확대됐다고 타부처의 비전문가가 밥그릇을 차고 들어온다면 청승격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반드시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사학 등 문화유산과 직결되는 전문가들을 임용하여 학예직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과거 문화재관리국 시절 순환인사라는 명목으로 행정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해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했던 경험을 반성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책과 예산상의 특별한 배려다. 불교문화재는 문화재이면서도 종교적 신앙의 성보라는 양가적(兩價的) 가치를 지닌다. 불교문화재는 '성보(聖寶)'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관리를 해야 한다.

예컨대 경복궁내 석탑이나 전국에 산재한 불교문화재들이 신앙의 성보로서 예배될 수 있도록 사찰로 이관하고, 경주박물관의 파불(破佛)에 대해서도 신앙적 감정을 고려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다. 문화재청은 바로 이런 문제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의 승격은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그런 만큼 할 일도 많고 기대도 크다. 관계자들은 청승격을 계기로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여·야가 없다

'새시대 불교포럼' 출범

전문직 젊은 재가 32명 참여

사회정의-불교발전-평화통일

분과별 불교사상 입각 대안제시

젊은 재가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사회와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시대 불교포럼'을 창립한다.

'새시대 불교포럼'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홍사성 불교시대사 주간, 김연규 외대교수)는 12일 오후 7시 조계사 교육문화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새시대 불교포럼은 부처님의 중도연기론적 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정의, 평화통일, 불교발전을 목표로 월례포럼, 종단지원사업, 소식지 발간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간사업인 월례포럼은 사회정의, 불교발전, 평화통일 등 3개 정책분과를 두고 매월 한가지씩 사회제반문제를 각 분야별로 불교사상에 입각하여 심층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월례포럼의 내용은 소식지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게 된다.

특히 새시대 불교포럼은 21세기 한국불교의 능동적 변화와 미래지향적인 종단만들기 사업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위해 종단의 각종 사회정책과 종단의 행정시스템에 대한 연구작업을 통한 정책적 지원과 인력뱅크를 구성해 전문적인 조언으로 종단운영을 지원한다는 것.

홍사성 창립준비위원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직접적인 사회구원활동과 종단지원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연구및 조직사업, 대중·교육사업등을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불교포럼에는 이종철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우호(행정자치부 사무관) 배정회(과학기술부 사무관) 최수종교수(한림의대) 박경준, 최순열교수(동국대) 박일환(국민회의 정책위원) 유연(LG증권 과장) 이원석(동부지청 검사) 김형욱(청와대 종합상황실 과장) 박영규(작가) 신상진(성남의원 원장)씨등 32명의 각계의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다.

창립준비위원은 정책위원장 박승원 소장(시스템경영연구소), 조직위원장 정웅정 사무처장(재가연대), 대외협력위원장 노귀남(경희대 강사), 실행위원장 조성열(성균관대 강사)씨 등이다. 새시대불교포럼은 재가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회비는 월 1만원. (02)725~4282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공단과 '공원무료입장' 재협상"

조계종 관람료위원 15명 선출…위원장 혜광스님



◇혜광스님

조계종 총무원(원장 고산)은 4일 불교회관에서 관람료 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신도증 소지자의 당해사찰 무료입장'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집행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포교원이 준비한 국립공원관리공단 규탄 결의도 공단과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채택키로 했다.

'관람료사찰 주지 일동'으로 발표하려 했던 결의문에는 △공단이 재적사찰에 한해 무료입자을 강행할 시정부를 상대로 사찰소유토지의 보상문제와 관련한 법적 대응(이용료 청구 또는 공단시설물의 퇴거 등)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도들의 사찰출입 자유 보장 △신도등 소지자의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징수하지 않는다 등 3개항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관람료위원회 위원을 선출했다. 관람료위원 15명은 다음과 같다.

혜광(위원장, 법주사) 장윤(부위원장, 전등사) 법철(간사, 총무원 재무부장) 도후(신흥사) 도영(금산사) 녹원(직지사) 성오(범어사) 종상(석굴암) 양산(총무원 문화부장) 일연(동학사) 설송(대전사) 종고(천은사) 운수(내장사) 세영(신륵사) 운공(운주사).

관람료위원회는 관람료사찰 주지회의 직후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혜광스님, 부위원장에 장윤스님, 간사에 일철스님을 선출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보림사-봉정사 관람료사찰 지정

조계종 관람료위원회(위원장 혜광)는 4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전남장흥 보림사와 안동 봉정사를 관람료사찰로 지정했다.

보림사는 9산선문 가운데 최초로 개창된 사찰(759년 원표대사 창건)로,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44호) 등 국보 2점과 보물 8점, 전남도유형문화재 1점 등 다수의 성보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관람료는 1천원으로 정했다. 봉정사는 4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한 사찰로 682년(신라 경문왕 2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국보 15호로 지정된 극락전을 비롯 보물 3점, 경북도유형문화재 2점 등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관람료는 2천원으로 결정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포교원장 국방부장관 면담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과 종교편향대책위원장 현진스님(포교부장)등 종교편향대책위 관계자 4명은 7일 천용택 국방장관을 만나 "김태복소장의 101여단 군법당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천장관은 "김소장과 관련한 군사재판의 선고를 연기하는한이 있더라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스님 15명 징계

조계종 재심호계원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월서)은 6일 16차 심판부를 열어 동광스님(도선사 주지) 등 15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도견 법민-공권정지 5년, 혜총 각의-공권정지 4년, 동광 덕현-공권정지 2년, 태관 돈명-공권정지 1년3개월, 성천(전 불국사 부주지)-공권정지 1년, 철우-공권정지 6개월, 선관-면직, 능엄 청우 명현 효진-문서견책.

정성운 기자

조계종 혜암종정 부처님오신날 법어

"인간은 귀천없는 본래 천진불 가진자는 남 돕고 권위자는 公心을"

산과 들에 꽃이 피고 나무마다 새가 울며 벌 나비 춤추니 어허 좋을시고, 사월이라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모든 중생 생일 잔치 얼시구 좋고 좋다.

부처님은 일체중생이 본래 천진불(天眞佛)임을 깨우쳐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을 가르쳐 주시며, 오직 생사일대사를 위하여 연극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본분사는 부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뒤에라도 추호도 변함이 없는 진리이며 근본 원리이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모두 천진불이니 부처와 같이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 자는 남을 도와주고 권위자는 공심(公心)을 쓸지어다.

중생들이 서로 싸우고 침해하는 것은 일심동체의 본연성을 모르기 때문이니 서로의 본연성을 알고 보면 싸울래야 싸울 수 없으며 해칠래야 해칠 수 없다.

본래 성불의 이 진리는 만고에 변함이 없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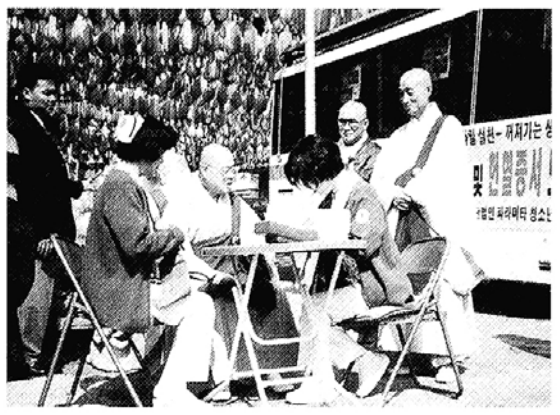
본분사로 말하자면 내 본심 밖에 부처가 따로 없는 것이니 일체중생이 다 함께 자기들의 생일을 축하하도다.

바다밑에 등불켜니 온세상 밝아지고 허공으로 북을 치니 중생들이 잠을 깨네.

아악-

불기 2543년 5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혜암



자비의 헌혈운동

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정련스님)가 4일부터 '자비의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4일 선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조계사 신도들이 참석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헌혈을 준비하는 모습.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직능종회의원 27일 보궐선거

조계종 중앙선관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덕운)는 6일 중앙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46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궐위된 율원·행정분야 직능직 종회의원을 27일 선출키로 했다. 직능직 종회의원 보궐선출은 월서스님의 재심호계원장 취임, 성우스님의 사퇴, 현근스님의 제명에 따른 것이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17~19일이다.

선관위는 또 140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위원을 선출하도록 중앙종회에 권고키로 했다.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위원은 총무원장과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 당연직 3인과 종회에서 선출한 6인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정성운 기자

승려 기본교육 이수 조계종교육원 촉구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4월 30일 95년 제8기 행자교육부터 97년 제13기 행자교육을 수료한 1천2백78명의 사미(니) 가운데 기본교육기관 미입학자 5백명의 명단을 공식발표하고, 기본교육이수를 촉구했다.

교육원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미(니)가 올 상반기중에 입학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당 본말사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관장 이혜총스님 취임식

■일 시 : 불기 2543년 5월 12일(수) 오후 3시 ■장 소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강당

초청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는 지난 5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장 이혜총 스님 취임식」을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무루 참석하시어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999. 5.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정 관 합 장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상임이사 혜 총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 장



시설개요

개 관 : 1996년 3월 4일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 : 2,285㎡ 건물 : 2.749 ㎡

※ 복지관 사업 안내 ※

□ 복지관 사업
가정복지/아동복지/청소년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지역복지/예식장 대관
□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타
□ 부설 어린이집
□ 부설 무료한방진료
□ 부설 무료급식 사업
□ 자원봉사자 모집
집안청소/세탁/방문간호/병원동행/말벗/이·미용/도배/사업 및 업무보조/기타
□ 후원자 모집 (자비는 실천이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요)
아쿠르트 후원/우유 후원/현물 후원/결연금 후원 등
□ 후원구좌 : 부산은행 083-01-033926-6
예금주:용호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은 법인세법에 의해 연말 정산시 5%한도내에서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우)608-093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3동 36-7 ☎ (051)628-6737~9 전송 : (051) 628-6562

조계종사태 징계 일단락

멸빈 9명등 92명 징계

94년 개혁회의때 비해 두배 '도당형성' 책임물어 일벌백계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월서)이 6일 16차 심판부를 열어 지난해 조계종사태 관련 피제소자들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해종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2월 28일 이후 2개월여만에 조계종사태에 따른 징계가 일단락됐다.

해종특위(위원장 종범)는 모두 1백26명을 조사해 1백3명을 호계원에 제소, 이 가운데 92명(심판연기 등 4명 제외)이 문서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내용별로는 멸빈 9, 제적 12, 공권정지 5~10년 32, 공권정지 6개월~4년 25, 면직 4, 문서견책 10명이다. 종회의원 7명은 종회의원을 사퇴키로 함에 따라 심판진행중 징계회부가 취소됐다.

이같은 징계는 94년 개혁회의 당시 징계와 비교해 숫적으로 두 배 가까이 많다. 94년에도 멸빈 9명, 제적 12명이었다. 당시 공권정지는 22명, 면직 2명, 문서견책 13명으로 모두 58명이 징계를 받았다.

94년보다 많게 나타난 것은 당시 의현 총무원장의 3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유지·옹호한 사례를 해종행위로 규정한 반면 이번 징계는 '정화개혁회의'라는 도당을 형성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정화개혁회의의 계속 유지도 다수의 징계자를 낸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징계자 중에는 징계중에 정화회의에 가담한 사례도 있다.

초·재심호계원을 거치며 징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며, 자유로운 변호의 기회가 '해종행위자 옹호'라는 논리로 한때 제약됐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 해종특위 위원장 범종스님은 "징계대상자들이 남긴 자료와 참회 정도, 소명기회 부여를 통해 징계기준을 결정했다"며 "종단의 안정과 화합이 징계의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호계원장 월서스님은 "종단의 기강확립과 폭력에 의한 종권쟁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무차화합을 동시에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수행·포교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징계가 마무리되면서 이후 사면 실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적당한 시기에 정화회의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기는 정화회의의 완전한 해체와 징계당사자들의 참회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사면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되, 이 가능성을 활용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는 것이다.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도 본지와의 인터뷰(218호, 4월14일자)에서 멸빈자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한편 6일 재심호계원에서 판결보류 또는 심리연기된 4명의 피제소자에 대해서는 부처님오신날 이후 재심심판부가 열어 판결 확정 또는 심리를 계속한다. 해종특위는 피제소자의 징계가 전원 확정되면 자동해체됨에 따라 해체 시기는 6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징계의 종류

최고의 중징계는 **멸빈**으로, 일반 형법에 비유하면 사형에 해당된다. 승적을 박탈하고 승복 승려증 등 승려신분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회수한다. 복적이나 재출가도 불가능하다.

제적의 징계를 받으면 승적에서 제외돼 승려신분상의 권리가 박탈되며,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 10년이 경과하면 복적이 가능하다. 복적할 경우 승랍 계산에서 징계기간을 제외한다. 복적 후 5년 후에는 종회의원과 종무원 취임이 가능하다.

공권정지는 집행기간 중 중앙종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은 물론 사회복지관장 사암연합회장 등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면직**은 현재 맡고 있는 공직에서 해임된다. 이밖에 **변상**, **문서견책**의 징계가 있다.

'불교TV 정상화' 조계종 대책 골몰

본말사 소유주식 총무원에 양도추진

태응스님 보유 37% 위임여부 변수될듯

조계종이 불교TV 살리기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위기에 처한 불교TV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계종 btn특위(위원장 정휴스님)는 7일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6차 회의를 열어 조계종 교구 본말사 종도들이 보유한 주식을 총무원에 양도하도록 추진할 것을 결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btn특위에서는 또 △ btn 현 경영진과 대주주 및 btn특위가 협력해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며 △10일 주주총회에서 임시 대표를 선정해 종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 등을 결의했다.

이에앞서 btn특위는 4일 조계종 관람료사찰 주지 회의를 통해 주권을 위임받았다. 이같은 움직임은 조계종이 불교TV에 대해 종단 소유의 주식을 가능한 많이 모아 경영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btn특위는 4일 위원장 정휴스님과 간사인 법안스님이 고산 총무원장스님을 방문해 불교TV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날 이후 주권 위임에 나섰다. 종단의 방침이 정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종단이 불교TV 경영 정상화에 참여할 경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태응스님의 향방이다. 태응스님(불교TV 회장)은 통도사 본말사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주)성원지분을 합쳐 불교TV 전체 주식중 3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하지만 이 문제도 아주 불투명 하지만은 않다. 지난 달 7일 열린 btn특위에서 태응스님은 "종단이 경영을 맡는다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불교TV 경영 정상화에 대한 시원한 해법은 10일 주총이 쥐고 있다. 조계종의 '해법'도 이날 밝혀진다. 또 정계식씨의 자금지원 포기 의사에도 불구하고 허문도 사장이 대안을 제시하며 대표이사 선임을 고수하게 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조계종이 적극 개입키로 함에따라 불교TV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진은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

"시일이 걸릴뿐 종단화합 이뤄진다"

조계종 고산총무원장 기자간담회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3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교계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산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이후 처음 맞는 부처님오신날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정성을 다 들이고 있다"고 말하는 등 교계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특히 고산스님은 조계종사태 관련 징계자에 대한 사면 실시를 거듭 밝혔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 요지.

사면·종단화합 정화회의 가담자는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실시할 사면에서 제외됐다. 적당한 시기를 봐서 대폭적으로 사면할 생각이다. 시일이 걸릴 뿐이지 종단의 대화합은 이뤄진다. 시간이 지나면 그 분들도 생각을 돌릴 것이다. 수행자는 일반 사회인과 다르다. 한 생각 돌리면 서로 화해한다. 그러므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종단 운영 100일 되는 날 평가회를 했으며, 100일 후 또 평가할테니 열심히 하라고 당부했다. 미숙한 점도 있으나, 종무원 모두 1인3역을 하고 있다. 종단발전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60여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총무원장 취임 100일 맞아 발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가 만류했다. 하나하나 사업으로 보여줄 것이다.

신도회 종단과 분리돼선 안된다. 종단과 신도회가 화합해야 하는데 전국신도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종단에서 좋아하지 않는다. 중앙신도회도 서로 회장 하려니까 회장을 뽑지 못했다. 신도회장 자리를 놓고 야심을 보이면 안된다. 원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추천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모르다 차차 알게 되는 것이다.

고산 총무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종단 소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귀농학교·생협학교 등을 특화사업사찰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지정보다는 총무원의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산스님은 또 법회 참석 횟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불교를 알고자 한다면 내 괴로움을 무릅쓰고라도 법문하러 간다. 법회에 오라면 자다가도 뛰어나간다. 하나도 고달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 이후에는 교구본사 순회법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문화유산 보존-관리 '최우선'

승격된 '문화재청'의 역할

조직-정책 강화 효율 행정 기대

우여곡절 끝에 문화자관리국이 드디어 '문화재청'으로 승격됐다. 정부조직의 슬림화를 목표로 진행된 제2차 정부조직 개편 틈바구니에서 기구가 확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문화재 관리와 보존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61년부터 지금까지 문화재관리국이 지정한 문화재는 5백1점에서 7천5백4점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직원은 2백52명에서 4백55명으로 늘어난데 그쳐 지정문화재 관리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새로 출범하는 문화재청은 이전보다 정책 기능도 강화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확대·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국, 문화유산국, 기념물국, 기술국 등 3~4개 국이 신설된 문화재청으로 개편되길 바라고 있다. 지난 해 구조조정 때 합쳐진 유형문화재과도 다시 1, 2과로 분리돼, '문화재 지정·해제·관리' '문화재 매매업자 지도·감독' '각 소속기관 소장 유물 지도·감독' '해외문화재 조사·환수' 등의 업무에 전념하고, 매장문화재, 동산문화재, 건조물(건물) 관련 업무는 '과'로 독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적의 보존·관리 업무를 담당할 사적과 신설도 바라고 있다. 또 1천5백65억원으로 책정된 올해 예산 규모도 조직 확대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 전문가들은 "조직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는 38년간 문화재행정을 전담해 왔던 일선 기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7월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에서 개발공사 전 지표조사 의무화 등이 명시돼, 현재보다는 매장 및 동산문화재 관련 업무의 양이 폭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임 문화재청장은 확대된 조직으로 효율적인 문화재행정을 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신낙균 문화부장관이 "문화재 전문가를 임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정문교 현 문화재관리국장과 전임 국장인 정기영 국립도서관장, 정재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단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문화재청이 갖게될 위상은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의 개편 논의가 끝나는 내주에 분명해질 전망이다. 온 국민이 바라는 문화재청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두 행정당국이 "'청' 설립이 단지 관료의 밥그릇이 늘어난 데 그친다면 개악일 뿐이다. 문화유산을 책임지는 만큼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전문가로 충원해야 한다"는 문화계 인사들의 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성보(聖寶)로서의 불교문화재가 갖는 의미를 살리는 문화재정책의 확립도 문화재청의 과제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목어 뒤란 포교

"시문학은 곧 불교문학 자체로 해명되어 마땅했습니다. 이런 사연이 내 문학에 반영된 것인지 이번에 이 집안 뒤란인듯 남의 눈에 잘 띠지 않는데서 이 상을 받게되니 조금은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1일 제4회 현대불교문학상을 수상한 고은시인이 미국에서 전해온 수상소감에 있는 말이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 시낭송회를 겸한 시상식은 출판문화회관 4층에서 열렸다. 100석 남짓한 자리가 더러 비기도 했다. 초청시인, 수상자, 회원들의 시 낭송과 통기타를 치는 불음가수 김무한씨의 음성공양, 대금연주가 봉축시 낭송마당에 펼쳐졌다. 모두의 마음이 정화되었을 법하다. 그 자리에는 욕심이나 시기 질투 같은 망심이 돋아날 여지가 없었다.

혜관스님이 문학포교원을 여니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시쓰기를 같이 했다. 그리고 수완스님이 현대불교문인협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현대불교문학상과 시낭송회를 지원해오던 조계종총무원은 올해부터 행사 주최자로 나섰다. 날로 발전하는 모습이다. 종단이 나섰다고는 하지만 시에 대한 교계의 관심은 아직도 소수의 몫인가 보다. 그날 행사장은 그냥 조촐했다. 교계언론도 무관심했다. 그러나 행사를 준비한 회원들의 정신과 자부심, 신인상을 받으러 대구에서 온 거사의 기쁨, 하객들의 박수는 부처님 오신 뜻을 봉축하는데 손색이 없었다.

안이비설신의 6근의 작용(색성향미촉법)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 생각과 언어의 사리를 엮어내는 시작업. 현대불교문인협회 회원들은 그렇게 정진하면서 신인을 찾아내 식구를 늘리고, 시단에 큰 나무로 우뚝 선 시인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문학상을 전한다.

불교 시문학운동을 통해 자기를 닦고 들떠 있는 현대인들의 심성을 가라앉혀 준다면 그것은 문학포교의 성공이다.

지금은 비록 이 집안 뒤란에서 조용히 제 목소리를 다듬고 있지만, 현대불교문인협회 회원들이 큰 연못의 연꽃으로 피어나길 발원한다.

최정희(편집국장)

"21세기 미래의 불교는 인재불사에서 부터"

제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전국 어린이 법사·교사 연수회

불, 법, 승

21세기 한국불교의 기둥이 될 새싹들을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분께 인사 드립니다. 서울,경기지역사찰 어린이 법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족한 저희 **한국불교 어린이 포교연합회**가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각 사찰의 여름불교학교를 앞두고 **<제 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전국 어린이 법사,교사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여름불교학교와 캠프의 원활한 운영과 방법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연수회를 통해 침체된 어린이 법회가 활성화되고 한국불교의 초석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미래가 제시되도록 각 사찰 주지스님, 그리고 지도법사, 교사, 사부대중 모두가 관심을 갖도 참여하여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며 21세기를 맞이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1999(불기 2543)년 5월 우리 기쁜날 좋은날

1. 언 제 : 불기 2543년 6월26일(토)오후3시~27일(일)오후3시
2. 어 디 서 : 중앙승가대학교 정진관 대강당
3. 동 참 금 : 4만원(군종병은 무료, 본회 회원사찰 선생님은 10%할인)
   1박3식, 간식, 연수회교재, 불교동요테이프,
   어린이불교학교 지침서, 여름불교학교 준비물(포스터,
   안내장, 불교학교 교재 등)
4. 참가대상 : 법사, 교사 및 어린이 포교에 관심있는 분
5. 접 수 처 : 본회 사무국 (02)725-2201~2 FAX(02)725-2285
6. 접수마감 : 5월 11일 ~ 6월10일까지
   (당일은 접수 안되오니 미리 접수 바람)
   담 당 : 사업국장 강금강
   국민은행 : 812-01-0136-331 / 단위농협 : 100113-52-270133
   예 금 주 : 어린이포교연합회(엄욱상)

• 여름불교학교 현수막, T셔츠, 모자, 명찰, 공책, 인쇄물 등을 주문시 원가로 해 드립니다.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위한 지도자 연수회 일정표

날짜	시간	프로그램 및 강의내용	강 사
6/26일(토)	14:00~15:00	접수	
	15:00~16:00	입제식 및 특강	윤지원 스님 (본회 회장/삼보사주지)
	16:00~16:50	저녁공양	
	17:00~18:30	예불 및 어린이 불교의식	성마스님 (전통불교의식연구원장)
	18:40~20:10	어린이를 불교학교에 포교하는법	오성일 스님 (신흥사주지)
	20:20~21:50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종이접기, 공작놀이	정선주 (한국종이접기 협회사범)
	22:00~23:30	재미있는 불교동요I	배동아(불교동요 전문강사)김태은(불교음악강사)
6/27일(일)	24:00~04:00	취침	
	04:00~04:20	기상 및 세면	
	04:20~05:00	예불 및 어린이 참선 교육방법	법화스님(동국대 석림회 부회장)
	05:10~06:40	여름불교학교 운영방법	황학현(불교교육연구원장)
	06:40~07:50	아침발우공양	형준스님(도선사,개운사 지도법사)
	08:00~09:30	즐겁게 놀이로 배우는 불교동요	배동아(불교동요 전문강사)김태은(불교음악강사)
	09:40~11:10	어린이 불성(심성)개발방법	유용진(한국능률협회전문위원)
	11:20~12:50	어린이 놀이문화	김영경(EDS 전문위원)
	12:50~13:40	점심공양	
	13:40~15:00	캠프 준비와 실제	김진(신정경 문화원)
	15:00~15:30	회향식	

전국 어린이 여름 캠프 및 가족캠프

◆ 어린이 여름캠프
1. 언 제 : 1999년 7월 22일~7월24일(2박3일)
2. 대 상 : 어린이 (초등학교~중2까지)
   어린이 법회사찰은 단체참가 됨
3. 인 원 : 약 300명
4. 회 비 : 1인 3만원(교재, T셔츠, 2박7식 등)
5. 접수처 : 본회사무국 (02) 725-2201-2 FAX (02) 725-2213
6. 접 수 : 7월10일까지 (당일접수 불가)
   담 당 : 사업국장 강금강
   국민은행 : 812-01-0136-331 / 농협 : 100113-52-270133
   예 금 주 : 어린이포교연합회(엄욱상)
   • 입금 확인시 신청접수가 됩니다
7. 준비물 : 필기구, 세면도구, 수영복, 양말, 속옷, 손전등, 수건, 쌀1되 등

◆가족캠프
1. 언 제 : 1999년 8월 2일 ~8월 4일 (2박3일)
2. 어디서 : 화성 신흥사 수련원 (0339)357-3916
3. 대 상 : 참가의사가 있는 가족(어린이 동반 가족 우선)
4. 인 원 : 50가족
5. 회 비 : 1가족 13만원
6. 준비물 : 필기구, 세면도구, 수영복, 양말, 속옷, 손전등, 쌀1되 등
7. 접수처 : 본회사무국(02)725-2201~2 FAX (02)725-2213
8. 접 수 : 7월 20일까지 (당일접수 불가)
   담 당 : 사업국장 강금강
   국민은행 : 812-01-0136-331 / 농협 : 100113-52-270133
   예 금 주 : 어린이포교연합회(엄욱상)
   • 입금 확인시 신청접수가 됩니다

한국불교 어린이 포교연합회

▪ 회 장 : 윤지원
▪ 사무총장 : 법전
▪ 부회장 : 선일, 지도, 실상, 우학, 적령, 자용, 인득, 대명 지도법사단,지도교사단 회원일동



고산스님-정각회 임원 환담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7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정각회 임원을 총무원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모임에는 고산스님과 교육원장 일면스님, 호계원장 월서스님, 국회정각회장 서석재, 부회장 하순봉, 고문 권익현 김명윤 김태호, 감사 박헌기 의원이 참석했다.

오찬에 앞서 고산스님은 불교발전을 위해 힘써온 정각회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등에 정각회에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권익현 의원은 "불교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불교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20년간 심장병환자·노인 돌봐

사회복지대회 총리상 보운스님

4월30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0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대한불교감로심장회 이사장 보운스님(사진 왼쪽)은 20여년 이상 복지활동을 해온 '복지포교사'다.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해 감로심장회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활동한 공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주로 경상대학병원과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병간호, 목욕, 빨래 등의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작년 감로심장회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무료검진 등 의료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을 위한 직접적인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도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감로심장회는 그동안 심장병환자 등의 무료수술 지원사업을 주로 펼쳐왔지만 보운스님이 맡으면서부터는 이처럼 활동폭이 넓어졌다. 보운스님은 자원봉사활동을 농촌지역의 불우 이웃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종교는 주는 것입니다. 주는 데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몸을 움직이기 어렵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는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보운스님은 20년간의 교도소 교화활동과 각종 불우이웃 돕기를 펼치면서 3회의 법무부장관상과 교정대상(94년)을 수상한 바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교차로

대장경전산화 후원 법문



보성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스님은 4월16일 고려대장경연구소 주최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후원법회에서 금일봉을 전달하고 법문을 통해 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7천만원의 후원금을 약정했다.

서울 고려사 1돌 기념법회



태연 고려사 관장 스님은 4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 고려사(분원주지 정화) 법당에서 개원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78년 창건된 재일본 고려사는 84년 한일우호평화의탑을 완공하고 일본내 3,460 곳에 일제하 희생 유골에 대한 조사·수습의 일원으로 평화의종을 조성했다.

대구 시민 환경대학 개설



성타 대자연환경보전협회 회장 스님(불국사 주지)은 6일부터 3개월과정의 '시민환경대학'을 개설했다. 매주 화, 목요일 오후2시 경북대 박물관내 시청각교육실에서 진행. (053)761-3350

법륜종 3대 이사장에 유임



정각 목포 보현정사 주지는 최근 법륜종 재단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3대 이사장에 유임됐다. 스님은 "복지불사를 더욱 활발히 벌이겠다"고 밝혔다.

나라 국민위한 경승법회



자우 경찰청 경승실장(금강사 주지) 스님은 13일 오전 7시 경찰청 법당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경승기원법회를 거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등 3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이날 법회에는 삼보사 주지 지원스님이 마하보디 수도원에서 모셔온 백색·홍사리 등 2과의 부처님진신사리 친견법회도 함께 봉행된다.

북경 北지원 NGO회의 참석



명진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스님은 미국NGO와 유엔식량계획 베이징 사무소가 공동주최하여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제비정부단체(NGO) 회의'에 남북농업협력 민간연대대표로 참석했다.

불우이웃에 8백만원 성금



덕수 부산 삼광사 주지는 8일 부산시내 거주 무연고 노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65세대를 선정해 총 8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다과회를 개최했다.

의정부 광명탑 점등식



혜승 의정부봉축위원회 위원장 스님(의정부포교원 원장)은 6일 의정부역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통일과 국난 극복을 기원하기 위한 '자비의 광명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소쩍새마을에 자비등 보시

해운 일본 평성사(해인사 일본포교원) 주지는 이유선, 강희선씨 등 41명과 함께 6일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 동참금 1백만원을 보시했다.

청송 시아본사 개원법회

도순 시아본사 주지는 11일 경북 청송군 부동면 신점2리에 소재한 시아본사를 개원하고 낙성 및 부처님 봉안식을 봉행한다. (0575)873-3222

새천년 준비위 기획실장에



이태행 前 불교TV 본부장은 1일 청와대 직속 새천년 준비위원회 기획실장으로 임명됐다.

병원기금 3천5백만원 수령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3일 일본 대정대 이시가미 젠노 교수의 방문을 받고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 3백5십만엔(약 3천5백만원)을 전달받았다.

또 7일에는 개교93주년 기념으로 공직동문들을 초청,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인간성 회복 세미나' 참석



목정배 동국대교수(불교문화연구원장)는 7일 경희대 간호학과 설립 50주년 기념 '종교를 통한 민간성 회복'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효'주제 김영임 소리공연



김영임 명창은 9일 오후 3시, 7시 수원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효'를 주제로 한 '99 김영임의 소리' 공연을 개최했다.

부처님 오신날 기념 경로잔치



유혜주 서울 신도림복지관장은 13일 오전11시부터 오후4시까지 부처님오신날 기념 경로잔치 및 노래자랑을 연다. (02)631-9792



◇본사를 방문한 한스씨 가족.

"독어 '요전' 출간…한마음법 만나 기뻐"

7월 獨 대행스님 법회 준비차 방한 한스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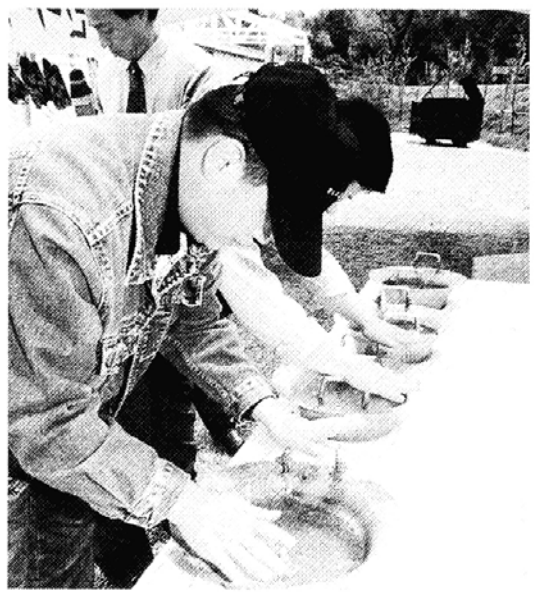
오는 7월 31일 독일 뒤셀도르프 근교 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릴 대행큰스님 법회 준비를 위해 부인 베티나, 아들 모리츠, 딸 한나와 함께 내한한 독일인 불자 한스 욕 애플레씨. 오랫동안 참된 내면의 길을 찾던 중 지난해 3월 베를린에서 한마음선원 신도를 통해 대행 큰스님 가르침을 접하게 됐다는 한스씨는 이번에 〈한마음요전〉 가운데 약 80쪽에 달하는 부분을 번역해 〈Das Tor zur Befreiung(해탈의 길)〉이라는 독일어 단행본으로 출간한다.

"독일 한마음선원 지원(지원장 혜진) 법회에서 법문 비디오테잎과 동시통역을 통해 대행 큰스님의 가르침을 배웠지만 처음에는 '한마음' '주인공' '마음' '인연'이라는 말들이 생소해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전제한 한스씨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나와 같은 독일의 불자들이 좀더 쉽게 큰스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한마음요전〉을 토대로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에서 곧 출간될 이 책은 오는 7월 독일 대법회에서 독일불자들에게 소개된다.

"〈한마음요전〉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지혜가 계발되는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한스씨는 "독일에 돌아가서도 뜻 맞는 이들과 팀을 이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공부하고,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한다.

내과의사이면서 자신의 심장병을 주인공 관하는 마음법을 통해 스스로 치료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고 밝힌 한스씨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큰스님의 가르침에 감사한다"면서 "생활속에서, 공부하면서 부딪치는 많은 의문들을 이해하기 쉽게 상담해주는 혜진스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마음의 때 씻어요"

Focus

"티벳불자들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씻어보세요."

경주에서 6월5일까지 열리고 있는 99한국불교예술대전 체험관 앞에는 마음의 때를 씻는다는 상징성을 지닌 관욕제 행사가 펼쳐져 신비한 체험을 하게한다. 우리 놋세숫대야 모양으로 양 귀에 달린 손잡이를 마구 문지르면 "웅~"하는 진동소리와 함께 물방울이 뛴다.

이 그릇은 드넓은 중국땅의 3대 발명품으로 꼽히는 '구룡융종 분수동분'이고, 티벳스님들이 특별히 이번 예술대전에 티벳 불교 체험을 위해 찬조출품한 것이라고, 티벳스님들의 설명에 따르면 물이 튀어오르는 현상은 우주만물을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우주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특수 진동은 물을 수직으로 튀어오르게 하면서 물의 성질을 용수로 변화시키고 알파파를 발생시켜 정신과 신체의 안정을 이로어 도를 이루게 한다는 것. 스님들은 4개의 관욕제가 있는 그릇들 옆에서 모래만다라를 시연하고 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조직강화로 충청불심 중흥"

조계종 제5교구 새신도회장 김정길씨



"충청권 불교 중흥을 위해 작은 법등이 되겠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충북) 초대 신도회장에 김정길(53) (주)삼원개발 회장이 임명돼 7일 오후 제5교구 본사 법주사(주지 혜광) 대웅보전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신임 김정길 회장은 "초대 교구신도회 회장으로서 조직 활성화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청주불교방송 및 청주선불교회관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중재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길회장은 92년 충북대 경영대학원을 졸업, 충북럭비협회회장·명예회장, 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장, 충북도 교육위원 등을 역임했다. 20년전부터 법주사에서 신행을 펼쳐온 토착 신도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충북도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청주 관음사 이두스님과, 법주사 혜광스님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C.M.M INDUSTRY
division of KWANG SAN.

여러분 사찰의 모든 공간을 경제적이고 품격있게
연출하고자 하실 때 다미론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미 많은 불자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허등록 제0200029호. 상표등록 제418243호. 다미론베드 특허출원 10-1999-0014792호)

저희 CMM 실업은 지난 50여년간 전통적 소재이고 자연재인 등심초 자리 바닥재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온 광산기업에 그 뿌리를 두고 불자님들의 건강과 생활의 격을 경제적으로 한껏 높혀드릴 수 있는 다미론을 개발하여 전국사찰과 불자님의 댁으로 보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불자님들께서 다미론의 세련된 디자인과 사용의 경제성에 찬사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전국 소량 배송가능 『제 품 사 양』 (단위 mm)

구분		내 용
겨우	사이즈	915×1,820×10(조절가능-축소가능) 학2매 / 1평당
	색 상	미론올색(미색)
	중 량	A,B형 5Kg/ 1매
	재 질	피침 등심초 돗자리
		심재 A형 폴리에틸렌고압축발포가교판 + 나왕합판
		B형 상동 + 순동(99.9%) 조절망
	A형 기본 B형 수백 방지	마감 엘련 나일론직물(태리) - 일본산
		바닥면 고급 부직포
		가공 공업용스테플접합 + 글루건접합
발주가능량		3,000 ~ 5,000매 / 30일
제품 특성		접철가능, 보관 및 이동관리 용이 제품자체 보온, 보냉효과 우수(시계절사용가능) · 냉난방비 대폭 절감 비흡수성 심재 사용으로 위생적 다미론 베드(비접착 완폭사용 완전조립식 수백파 방지(B형) 각종수맥파에 건강장애 개선효과 우모처럼 시원해수에 따라 가변조절가능 시공용(무직포마사용)에는 시공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사)서울 마포구 창전동 3-68 덕성B/D 203호 Tel 02-332-2799 Fax 02-332-2799
공장)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206-2 광산B/D Tel: 062-526-1633 Fax 062-524-4123
(Internet Homepage)http://cmm.bz.co.kr (E-mail)cmmhome@chollian.net

우리 모임에선

웅변협 법륜기배 전국대회

대한불교웅변인협회총본부(회장 자원스님)는 16일 오후 1시 조계사에서 제29회 세계불교도 법륜기수여 전국웅변대회를 개최한다.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 대학일반부까지 참여할 수 있다. 원고는 부처님이 오신 의의 및 불교사상 고취, 성지보호 및 불교문화재 보호 육성 방안, 정법수호 사상 등을 고취하는 내용이면 된다. (02)735-1896

수원교도소 지장상 점안

수원교도소 직원불심회(회장 고왕식)는 20일 오후1시 수원교도소 운동장에서 지장보살 입상 점안식을 갖는다.

용주사 정락스님의 법문과 함께 봉행되는 이날 점안식에는 재소자 2백50여 명과 직원 불자 50여 명 등 3백여 명이 참석한다. (0331)211-1285

유불동 서울경기법회

유니텔불교동호회 서울·경기지역모임(지역장 오기성)은 19일 오후 7시30분 법련사에서 지역법회를 갖는다. 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할 이날 법회에서는 법련사 주지 보경스님이 법문한다. (02)390-5717

충북예비역 3사 순례

충북예비역불자회(회장 이만호)는 25일 3사 순례를 떠난다. 예비역불자 회원 및 회원가족 50여 명이 쌍계사, 칠불암, 화엄사를 순례한다. (0431)276-6812

과천 정불회 법화경 강좌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불회(회장 강평수)는 14일 정오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청사내 상황실에서 〈법화경〉 강좌를 연다. 평생불자회 김정호 법사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날 강좌는 정불회 회원들이 지난해부터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을 통해 실시해 오고 있는 정기법회와 더불어 마련된다. (02)502-3005

대우自 법우회 정기법회

대우자동차법우회(회장 권영발)는 16일 경봉스님이 주석하셨던 통도사 극락암을 찾아 정기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법회는 분기별 실시해 오던 성지순례를 겸한 것으로 일일 회원으로 참여하는 회원가족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051)811-4152

수도권 불자의사모임 만든다

능인선원 불교대 출신 10여명 추진
건강강좌 · 무료진료등 자원봉사

서울·경기 불자의사들의 신행모임이 결성된다. 의술(醫術)을 전법(傳法)의 방편으로 삼는다는데 뜻을 같이한 서울·경기 지역 의사(한의사 포함) 10여 명이 '서울·경기 불자의사모임(가칭)' 출범에 앞서 불자의사들을 규합하기 위해 수소문에 나섰다.

분당 오한의원 오태환 원장, 산본 김양식 한의원 김양식 원장, 황경식 한의사, 삼성의료원 비뇨기과 최한용 전문의,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수용 전문의, 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 서인석 전문의, 최필성치과 최필성 원장, 김치환 김영구 한석만 김판성 개업의 등이 그 주인공. 이들은 모두 능인선원 불교대학 도반들로, 지난해 5월 결성된 '능인의사회'가 인연이 돼 모인 불자의사들이다.

지난해부터 매월 첫째주 일요일 건강강좌을 열고, 9월~11월 각 과별로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등 능인의사회를 모태로 활동을 벌여 오던 이들 10여 명의 의사들은 사찰 내 직능모임이 아닌 불교계 불자의사모임으로 확대해 좀 더 많은 불자의사들이 '의술을 통한 전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경기 불자의사모임을 준비하게 됐다.

서울·경기 불자의사모임은 부산불교의사회에 이어 교계에서는 두 번째 불자의사모임이지만 친목모임인 부산불교의사회와는 달리 순수 자원봉사활동을 지향하는 불교계 첫 '불자의사 자원봉사단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최필성 치과원장은 "수천년의 불교역사 속에서도 불교가 대중 깊숙히 파고 들지 못하는 것은 '나'만의 성불, 해탈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보살펴 주면서 이웃과 함께 호흡하는 가운데 불교의 사회화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최 원장은 "서울·경기 불자의사모임은 의사들이 이웃을 위해 전문지식을 나누며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불자의사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했다.

서울·경기 불자의사모임은 출범에 앞서 23일 강남 구룡마을을 찾아 의료자원봉사활동을 벌이며 공식출범 일정 및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탐방 심상

사진예술로 불심알리기 10년

전시회 열고 사진집 펴내
노인 초상 촬영등 봉사도

따스한 봄 햇살을 조명삼아 고즈넉히 서 있는 탑. 스님의 기도하는 모습. 신비로운 전설을 감춘 듯 고요한 천년고찰. 말로서 그 아름다움과 의미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산사를 한 컷의 사진은 훌륭하게 전한다. 부천 석왕사 사진동우회 '심상(心象, 회장 강향숙)'이 사진이라는 시각적인 언어로 불교문화를 알리기 시작한 지 올해로 꼭 10년을 맞았다.

89년 10월 석왕사를 거점으로 주부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심상'은 그동안 사찰, 건축, 문화재 등 불교문화를 기록·발표하고, 전시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홍보사절단으로 비중있는 활동을 펴 왔다. 배출된 회원만도 1백여명.

'심상'은 전시회뿐만 아니라 우수작을 선별해 '20인의 불(佛)' '풍탁의 울림' 등 작품집으로 엮어내고 있기도 하다. 올해도 19일~23일 석왕사 전시실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전시회를 갖고, 사진집 〈11인의 불〉을 선보일 계획이다.

'심상'은 여름이면 수해 복구작업에 나서고, 이웃에 애·경사가 있을 때 사진촬영을 도맡아 하는등 이웃과 함께 한다. 또 매년 백중 때면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초상사진을 찍어주며 말없는 수행을 병행하고 있다.

강향숙 회장은 "심상은 부처님 참법을 담은 사진, 잊혀진 불교문화를 되살리는 사진을 찍어 불법의 깊은 맛을 전하자는데 창립취지가 있다"며 마음 속 깊은 심성을 일깨워 주는 불교적 소재들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 심상은 창립이후 전국 사찰을 찾으며 불교문화를 사진에 담아 포교에 나서고 있다.



◇ 금강메아리 회원들과 군불자들이 합동법회를 가진후 한 자리에 모였다.

군불자 7백여명 합동법회

금강메아리산악회…철원 5·6사단 위문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윤부윤)는 2일 철원 5사단 호국비룡사와 호국정토사를 방문하고, 호국비룡사에서 불자군장병 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법회를 가졌다. 이어 지난해 수해로 목숨을 잃은 군장병들을 위해 천도재를 봉행했다.

금강메아리 윤부윤 회장은 "국방의 의무를 거뜬히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불자 장병으로서 국민된 도리를 다하고 부처님 자비사상을 널리 펴는데 앞장 서 달라"고 말했다.

혜명 지도법사는 "부처님오신 뜻을 다시금 되새겨 언제 어디에서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강메아리는 5사단 법회에 이어 6사단 청룡사에 들어 군장병들에게 합장주, 불서, 초코파이, 음료수 등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또 도피안사, 철원 노동당사, 월정리 역사, 통일전망대 등을 순례했다.

국방과학硏 성불회 인터넷사이트 개설

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회장 윤동수)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지난달 사내 인트라넷에 '성불회' 홈페이지를 임시 개설한 후 한달여 동안 수정작업을 거쳐 1일 공개됐다.

성불회 홈페이지는 △절로 가는 길 △법문과 수행 △기초교리 △경전 △외부 사이트 안내 △게시판 등 6개 방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방에서는 사찰소개에서부터 금강경, 법구경 등 경전 내용, 큰스님 법문, 회원 및 일반 불자들의 수행일기, 예불문, 기도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특징별, 부분별로 소개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사내 LAN을 통해 운영되는 관계로 국방과학연구소 내에서만 방문 가능하다. (042)921-4414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개관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스님) 및 부설 연꽃어린이집이 4월29일 개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 구미사암련회장 정우스님, 법주사주지 혜광스님, 남구종합사회복지관장 지도스님, 김윤환 국회의원 구자경 LG그룹명예회장, 이병춘 제8교구신도회장, 김관용 구미시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불교복지보건대학 개교 기념법회

불교복지보건대학(학장 혜도)이 4월30일 개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 정각 미륭사 주지, 안영일 부산진구청장을 비롯 교수, 학생등 2백여명이 동참했다.

불교복지보건대학은 5월 4일부터 첫수업을 가지고 황보선 교수, 강동균교수의 열강으로 불교와 보건, 복지가 병행된 참 배움, 참실천의 장을 열었다.



제 4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

제4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이 1일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양산스님(조계종 문화부장), 청화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장), 원혜스님(봉은사 주지), 시인 최동호, 나해주, 송수권씨, 김재홍교수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여한 이날 시상식에서 시인 고은씨가 '묘향산'으로 현대불교문학상을 수상했다.



서울경찰청 경승실 삼존불 점안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동광·도선사 주지)은 7일 15층 대법당에서 '대웅전 개축 및 삼존불 점안식'을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승정 송암스님, 서울지방경찰청 이무영 청장, 민승기 차장, 서울경찰청불교회 김관오 회장과 불자회 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무영 청장은 이날 동광스님에게 "경승실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끼쳤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한불교무량종
창 종 선 포 문

본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
자각 각타의 행원을 근본 교리로 삼고 수행정진으로
견성성불 전법도생을종지로 대승불교 사상과 이념을
구현,자비실천을 모체로서 사회복지 및봉사정신으로
시대적 사명감과대원력을 세워 모든중생을 교화하고저
창종을 선포합니다.

불기 2543년 4월 1일 목요일

⊙ 창종대표 : 령 관 (태순)
전파옹 (현용)

무량종 총본산 삼각산하 무량정사

•주소 : 종로구 홍지동 76-2
•전화 : 3216-1600 / 3217-1600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뒷꼴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이렇게 들었다

비리 근절 "중신이 뇌물 챙기면 나라 무너져"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사회질서와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구성원 각자의 양심과 윤리에서 나온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농수축협의 비리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각종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드러내 또한번 충격을 주었다. 총 861명이 적발돼 272명이 구속된 이번 비리사건은 사상최대 규모라고 한다. 비리내용 또한 대출관련, 경제사업관련, 횡령, 선거, 인사관련 등 개인에서 조직전체에까지 광범위하다. 권력앞에 줄서고, 아첨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살수 있는 사회, 금품 청탁과 뇌물을 건내는 검은 거래가 없는 건강한 사회는 아직도 요원한 것인가? 이번 사건을 뼈아픈 반성의 계기로 삼을수 있도록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 〈편집자 주〉

▨나라의 중신(重臣)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때, 어느날 많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것을 바른생활이라 하는가?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되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말한다." 〈중아함경〉

▨얼마 안되는 물건을 탐내어 행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증인으로 불려 나갔을 때 자신의 이익이나 제삼자를 위해 또는 재물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僞證)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숫타니파타〉

▨"이 온갖 중생이 만족할 줄 몰라서, 항상 남의 재물을 구해 그릇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저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한 십구의업(身口意業)의 바른 생활의 도리속에서 살게 하리라." 〈화엄경〉

▨"너는 눈을 바르게 하며, 너는 귀를 바르게 하며, 너는 코를 바르게 하며, 너는 입을 바르게 하며, 너는 몸을 바르게 하며, 너는 마음을 바르게 하라." 〈정행경〉

▨사견(邪見)을 버리고 바른 도(道)를 따라서 갖가지 점술(占術)을 버리며, 악한 계(戒)에 매이는 견해를 떠나 바른 견해를 닦아서, 속이지 말고 아첨하지 말아야 한다. 〈화엄경〉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놀려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서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안 안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염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 지언정, 의(義)를 취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가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일이다. 〈법구경〉

▨차라리 스스로 뼈를 깨고 가슴을 깔지언정, 망령된 마음을 따라 악을 짓지 말아야 한다. 역사(力士)만을 힘이 많다고 이르지 마라. 스스로 마음을 바로 하면 역사보다도 더한 힘을 얻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다투신 이후로 무수겁(無數劫)에 걸쳐, 마음을 수순(隨順)하지 않고 애써 정진하사 스스로 부처님이 되셨느니라. 〈열반경〉

▨'내게는 업보(業報)가 오지 않으리라' 고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방울물이 고여서 항아리를 채우나니 작은 악이 쌓여서 큰 죄악 된다. 〈법구경〉

참을 수 없는 불교왜곡

제언



현해 월정사 주지

격동의 구한말과 시련의 일제하에서 가장 치열하고 지조있게 살다간 선각자들이 불자들이었다. 한마디로 한민족 정신을 지켜온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였던 것이다. 그런데 강원도청에서홍보용 계간지 〈동트는 강원〉지에 기독교가 가장 큰 몫을 차지했고 불교는 무지몽매했다는 글이 실린 것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필자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므로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를 '미신, 우상, 무지몽매' 로 표현, 모독하다니 이런 편견을 갖고 새싹들을 교육하다니 모골이 송연하다.

사실 개화의 과정에서 유대치 등 불교인들이 먼저 앞장을 섰지 기독교인은 전무했다. 교계에서는 일본불교에 대항하기 위해 조계사를 건립하는 등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다. 반면 일부 기독교인은 조선총독부와 타협하는등 선교를 우선시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주권을 회복하는데 정신적 지주가 되었단 말인가. 〈동트는 강원〉을 발행하고 있는 강원도와 글을 쓴 저자가 뒤늦게 사과문을 보내 왔지만 그것만으로 용납할 수 없다. 주권회복을 위해 목숨바쳐 투쟁하다 장렬히 숨져간 선조들을 욕보이고 알팍한 글솜씨로 기독교가 마치 나라를 개명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게다가 불교를 미신과 우상 그리고 무지몽매한 것으로 치부한 것은 불교에 대한 도전이며 모독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교계의 대처도 한심스럽다. 사건의 진상을 모른채 '그럴 수도 있다' '사과했으면 됐지' 라는 식의 소극적인 대처 뿐이다. 이러한 방치가 또다른 불교왜곡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선 교계 언론들이 여론을 모으고 여기에 모든 불자들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만해스님, 용성스님 등이 암흑의 하늘 아래에서 끝까지 저항의 횃불을 높이 치켜 세우며 나라를 지켰다. 일본불교계의 한국의 불교를 통합하여 정신적 침략을 시도하는데 대항하기 위하여 31본산 주지스님들은 연합체를 이룩하기 위하여 일본에 없는 조계종을 창립하고 종정에 한암스님을 추대하는 등 민족의 절개와 지조를 꿋꿋이 지킨 것이 바로 한국불교였다는 것을 우리 사부대중은 명심해야 하고 국민들을 이해 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계의 사료정리와 불교계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겠다.

열린마당

'문화재청' 에 바란다

정부 내 유일한 외(外)국으로 남아 있던 문화재관리국이 38년만에 드디어 '청' 으로 승격,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이 지금까지 볼 수 없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입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방대한 문화재를 다루는 기관이 국(局)만으로는 역부족, 청으로 승격돼야 한다는 것이 불교계를 비롯 문화계의 오랜 숙원이며 한목소리였다. 문화유산을 책임지는 '청' 으로 승격된 만큼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 '연구기능' '조사 및 보존기능' 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재청' 에 바라는 각계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지 주〉

"문화재사범 처벌 강화"

양산 〈조계종 문화부장〉



그동안 정부는 인원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피해갔다. 문화재관리국이 청으로 승격됨은 인사와 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한 것이다. 그만큼 책임도 커졌음을 의미한다.

문화재청에 두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문화재보호법을 강화해 문화재 사범의 처벌 강화를 추진하길 바란다. 한국의 각종 문화유산은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이다. 한국만의 고유한 전통과 지혜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80%에 이르는 문화재가 불교와 관련되어 있다. 도난 문화재의 회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외로 반출되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 처벌 조항을 강화해 문화재 도난을 줄여야 한다.

둘째, 문화재가 지닌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은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의 첫걸음이다. 문화재 보호는 더 이상 전문가의 몫이 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 스스로가 문화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규제일변도 정책 탈피"

장충식 〈동국대 박물관장〉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는 등 겉으로는 호들갑을 떨면서도 내실에 있어서는 별로 기대해 볼만한 것이 없었으나 이번의 조치는 20세기를 마감하면서 한국 문화계에 내려진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이와 같이 문화재청에 거는 우리의 기대 또한 막중하므로 그 이름에 걸맞은 내실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선 그간의 문화재 정책이 규제 일변도였다면, 앞으로는 이를 지양하여 국민 스스로 문화에 대한 인식을 도모할 수 있는 선도적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기구가 3국으로 확대되었다 하여 축소된 다른 부처의 행정인력을 영입하는 전근대적 방법은 배제되어야 하고, 전문학예직의 영입이 대폭적으로 이룩되어야 한다.

또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재 서비스센터의 운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화재연구소의 독립과 함께 독자적 운영에 따른 기구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사찰성보 합리적 보존"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



문화 유산을 관리 보존 연구하는 조직이 지금까지 국(局)의 규모로 머물렀다는 것은 문화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방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유형문화재와 인멸하기 쉬운 무형문화재가 제대로 보존될 리 없었다.

문화재청으로 승격한 만큼 위상도 높아지고 조직의 성격도 합리적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재 보존관리 철학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통문화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건축 조각 회화 공예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환경의 보존에 각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사찰은 우리나라 문화의 정수의 집합체이며 민족문화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 만큼 올바른 보존책을 마련,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 또 한가지 시급한 것은 전국의 사찰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다. 일제시대에 부분적으로 목록을 작성했으나, 대부분 분실되어 버렸다. 따라서 현재 전국 사찰에 남아있는 성보문화재의 목록작성은 물론 사진 촬영하여 보존관리의 기본 자료부터 총정리하는 일이 급선무다.

"지방문화원등과 협조"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



정부 조직이나 공무원 축소가 '화두' 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승격된 것은 뜻밖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힘있는'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문화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찬성할 일이다.

무엇보다 새로 출범한 문화재청은 이전보다 재정과 역할 면에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문화재 행정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꾀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조체제도 이전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각 지역 문화원에서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관리국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었다. 개발공사 때마다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 폭증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 때문이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문화원은 그 성격상 지역 문화재를 발굴하고 감시하는 데에 최일선 단체이다. 그만큼 문화재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방 문화원들의 이같은 희망과 여건을 충분히 헤아려 주길 바란다.

목탁소리

'국군법요집' 개정 논란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지난해 말 군승단에서 새로 제작해 펴낸 〈신편 국군법요집〉이 6개월을 못넘기고 또다시 개정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24일 군승단 총회에서 〈신편 국군법요집〉의 개정을 결의한 것과 관련 "이는 군법당에서 마루를 걷어내고 다시 교회식 장의자를 놓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반대의 사를 피력하는 군법사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군법사들은 △법요집 결집 과정이 전체 군법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고 △법회의례가 집전상 초심자에게 부담스러우며△'장로' '성탄절' '예배' 등의 전통 불교용어의 복원이 거북 △'국군법당 운영청규' 를 삽입한 점 △'교설편' 의 부족 등 포교·교육용 불서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이유로 좀더 쉬운 〈국군 법요집〉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개정을 반대하거나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다. 당시 결집에 참가했던 책임집필관들은 "5년간 각고의 연구 끝에 완성된 〈신편 국군법요집〉은 비전통적 요소를 전통적 요소로, 비불교적 요소를 불교적 요소로 전환시켰다"면서 "지난 30년간 사용해 온 기존의 개신교식 〈구 법요집〉으로의 회귀는 예전처럼 불공과 보시를 모르는 신심없는 청년불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법회관에 따라 '불공과 축원', '청법과 설법', '공양과 인사' 편으로 구성된 〈신편 국군법요집〉의 법회의례를 봉행해야 한다는 전통 옹호론과 신세대 장병과 현대인들에게 맞는 현대적인 국군법요집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현실론은 모두 설득력 있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신편 국군법요집〉이 제작·배포되자마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졸속행정으로 인한 대표적인 정재낭비라는 지적이다. 법요집 결집에 군법사의 통일된 의지를 모으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못한 것도 지적사항이다. 밀레니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곳이 여기뿐이 아닐 것이다.

(jgkim@buddhapia.com)

건·강·보·조·식·품·허·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익수영진고 시판개시!

선(仙;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푸르름(靑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의 물(水)·불(火)·흙(土)·쇠(金), 네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소멸하여 자식격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8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義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 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람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승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정(強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복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숙성시켜 수천 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종합영양 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 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휴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 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의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이며, 건강보조식품허가(98.3.31)를 받았다.

앞으로 기적의 우리 지리산 소나무 종합강정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 본사제품
솔선식, 효소정액, 익수영진고
(KBS 6시내고향 99.1.28 방영)

솔효소정액
원액 2,800㎖
(700㎖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

솔선식
환약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

익수영진고
옛날 방법으로 1개월간 은은하게 달이며 600g(한근정도)
최고급 보약중의 보약
₩1,000,000원
(약 2개월 분)

■ 구입문의 :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한방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가정의 달' 더욱 바쁜 불음가수 김무한씨

불교행사장 돌며 '부모은중노래' 공양

최근 '다시부르는 찬불가' 앨범 발표

영화 '강원도의 힘'의 주제곡인 '무상초'를 불렀던 불음가수 김무한(40)씨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각 불교 행사에서 자작곡 '부모은중노래'를 부르며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 또한 김씨는 최근 '우리도 부처님 같이' '보현행원' 등 널리 알려진 찬불가 베스트 12곡을 키보드, 기타, 드럼, 신디사이저가 어우러진 반주로 노래한 앨범 '다시 부르는 찬불가'를 발표했다.

이 12곡의 찬불가들은 구슬프고 애절한 김씨 특유의 창법에 실려 키보드, 신디사이저 등의 반주가 현대적이고 색다른 맛을 주어 특히 청소년층에 인기를 얻고 있다.

김씨가 불음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93년. 우연히 들른 강남 봉은사 법당에서 장애인들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부터다. 이때부터 〈금강경〉을 비롯 〈화엄경〉 등 경전 공부를 하며 대중들이 친근하게 받아 들일 수 있는 곡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자작곡 앨범 '마음으로 가는 길'. 이 앨범에는 부모님의 걸림 없는 무주상보시를 노래로 옮긴 '부모은중노래' '연화 발원' 등이 들어 있으며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자작곡 불음가요 12곡이 담겨져 있다.

바쁜 음악 활동중에도 한달에 두 번씩은 꼭 군법당을 순회하며 찬불가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는 김무한씨. "부처님의 오묘한 진리를 대중적인 음악으로 해석한 앨범 '다시…'를 통해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노래를 들으며 편안한 명상에 잠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보인 김무한씨는 오늘도 기타를 들러 메고 불교 행사장을 찾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불교행사장에서 자작곡 '부모은중노래'를 부르는 김무한씨.



◇ '저 솔잎 사이로 흐르는 솔바람 소리를 듣는다." 김양수作 '솔바람'.

선시와 선화의 만남

진옥스님 시에 김양수씨 그림

12~18일 백상기념관서 전시

여수 돈수종합사회복지관장 진옥스님이 최근 수행하면서 틈틈히 쓴 시 48편을 모아 〈그대, 그대는 낮아서 높습니다〉를 펴냈다. 이 시들의 내용에 맞게 불자화가 김양수씨가 그림을 그린 시화전 '그대, 그대는 낮아서 높습니다'가 백상기념관에서 12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삼베옷' '꽃' '차 한잔' '연등공양' '한바탕 연극' 등 진옥스님이 수행과 포교생활중 틈틈히 남긴 삶의 단상들에 김양수씨는 먹의 농담과 간결하면서도 여유있는 선을 통해 그 시가 상징하는 선적인 세계를 잔잔하게 표출해 내고 있다.

이 시화전은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외롭고 힘들게 사는 독거노인을 위해 마련됐다. (02)724-2243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춤과 노래로 봉축' 15일 동화사음악회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는 야외 음악회가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다. 동화사와 대구MBC가 15일 오후 7시 통일대불 앞에서 부처님의 탄생을 춤과 음악으로 형상화한 24개 작품을 공연한다.

대중들 속으로 다가가는데 초점을 맞춘 이번 야외 음악회에서 이애주교수는 '비탐강생'을 주제로 새로운 춤사위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50여명으로 구성된 불국사 어린이합창단이 '앞으로 앞으로' '성터에서' 등을 합창한다

이외에도 동화사 사중 스님 60여명이 '저녁예불'을 재현하고, 법현스님이 '엘가 사랑의 인사' '바하 아리오소' 등을 첼로로 연주한다. 또 코요테, 이선희등 대중가수들도 대거 출연한다. 이번 음악회 연주는 대구 불교방송 예술단이 맡았다.

불교연극 '등신불'

성공적 공연

열흘간 매회 3백여명 관람 대사생략 내면 시각화 '호평'

김동리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등신불'을 연극으로 보는 것은 또다른 감동이다. 4월30일부터 9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매회 3백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등신불'(구히서작, 이승규연출)은 일단 인간의 내면 세계를 시각화해 상징적으로 처리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우선 소신공양이란 특이한 삶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한 젊은이의 이력과 그것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욕망과 업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간결한 시적 표현으로 구성해 사실적인 극적 효과를 얻어 내는데 성공했다. 또 대사가 거의 생략되고 많은 장면이 마임과 무용 동작으로 처리 되는 등 관객들에게 생각할 부분을 많이 주어 마치 선(禪)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

막과 막 사이나 극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마다 바라춤, 남사당놀이, 인형놀이 등을 삽입 한 것도 연극의 시각화를 강화해 흥미를 더욱 끈 요인이 됐다. 또 환등기와 비디오를 이용해 무대 배경을 영상적으로 처리한 것과 이야기속에서 이야기가 계속 중첩돼 과거의 사건 전개가 두드러진 액자소설의 원작을 각색해 주인공들의 시간상 전개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했다는 점은 단순한 구성의 벽을 뛰어 넘게 해 주었다.

연극 '등신불'은 물질 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우리 문학의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던 취지와 맞아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소설속에 녹아있는 불교사상과 극적인 효과를 무대상에서 최대한 아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이 작품은 전국체전 인천 유치 및 도시철도 개통 축하 공연 일환으로 10월10일부터 17일까지 재공연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문화 소식

22일 결식아동돕기 길상음악회

맑고 향기롭게 모임(회주 법정)은 부처님오신날인 22일 길상사에서 결식아동과 함께 하는 길상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 1부는 노영심씨가 권하는 환경음악회로, 2부는 북의 달인 김대환씨와 소리의 달인 장사익씨가 한판 어우러져 멋진 화음의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02)3672-5945

서울중앙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서울중앙관현악단은 14·15일 양일간 KBS홀과 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천년의 소리를 찾아'를 주제로 제21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작곡가 이인원씨가 지휘할 이번 공연 1부에서는 서양 교성곡을 국악 관현악으로 편곡한 '붓다의 노래(정부기 작곡)'가 연주된다. 이어 2부에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된 불교무용음악 '구도(이인원 작곡)'가 공연된다.

김달진문학상에 최정례 · 이숭원씨

제10회 김달진 문학상 수상자로 시인 최정례(44)씨와 평론가 이숭원(44) 서울여대교수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최씨의 시 '3분 자동세차장에서'와 이씨의 평론 '서정시의 위력과 광휘'. 시상식은 6월 6일이며 장소는 미정.

해인사 구광루서 '이영수 서각전'

나무, 흙판, 기와 등 우리 일상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에 화두를 담은 '시중 이영수 서각전'이 17일까지 합천 해인사 구광루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임제선사의 '살불살조' '본래면목', 백장선사의 '일일부작 일일불식' 등 선사들의 화두들이 불자들을 서각으로 맞이한다.

양산 천불사서 신라유물 발견

금동여래입상 2점등

경남 양산 천불사에서 사료가치가 높은 문화유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이곳에 대한 문화재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천불사 대웅전 침하보강 공사를 하던중 통일신라시대 유물인 금동여래입상 2점과 나한두상 2점이 삼국시대 유물인 단경대 항아리 속에 담겨져 발견됐다는 것.

문화재관리국은 불상의 경우 좌대와 흑광이 없고 나한상도 몸통이 파손돼 원형을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있으나 신라시대 불교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로 판정했다.

특히 마을주민들도 '월정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 구전으로만 전해오고 있는 고찰터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 지난 86년 대웅전에서 사리탑 파편과 탑 받침대가 나왔고 지난 86년과 올 2월에도 대웅전 뒤 밭에서 자기 기와와 화분등이 잇따라 출토돼 천불사측이 유물을 경내에 보관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 관계자는 "국립김해박물관과 천불사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증욱 기자

최초 찬불가 LP CD로 제작 배포

최초의 찬불가 레코드판이 CD로 제작돼 배포된다.

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지난 77년 처음 제작된 찬불가 레코드판을 CD로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이 레코드판에는 서정주시인이 작사하고 김동진씨가 작곡한 '불교도의 노래'를 비롯해 김영호씨가 작곡하고 전국신도회가 작사한 '연등'과 '제등행진곡' 등 10곡이 수록돼 있다.

"거조암 나한님 친견하세요"

영천시, 관광 8선 선정 관광객 유치나서

은해사, 거조암, 만불사 등이 영천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선정됐다.

경북 영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문화재와 명소 8곳을 영천관광 8선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 작업에 들어갔다.

시가 선정한 '영천관광 8선'은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해사 △국보 14호 나한님들이 모셔진 거조암 △국내 최대 법당 만불사 △보현사 천문대 △포은 정몽주를 모신 임고서원 △폭포 등 경관이 뛰어난 치산관광지 △시원한 드라이브코스 영천댐 △소원성취를 점치는 북안돌할매 등이다.

이들 8곳을 연결한 관광코스는 임고서원에서 거조암, 은해사 코스와 임고서원에서 만불사, 돌할매 코스 두 종류.

시는 관광홍보 효과를 올리기 위해 거조암 나한을 소재로한 시 캐릭터도 만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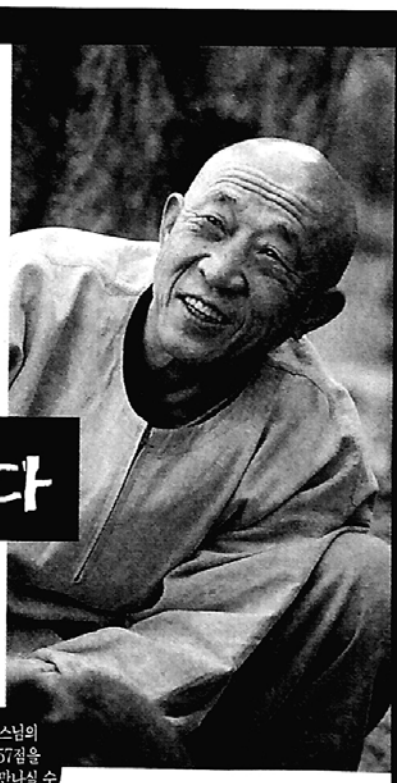
영천시 문화관광과 김동현씨는 "영천시는 유서깊은 불교유산이 많은 지역"이라며 "불교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즐거운 책읽기, 생각하는 책읽기 - 늘푸른소나무

기막히게 슬프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수안스님의 그림이 있는 에세이

참 좋다, 정말 좋구나



개구쟁이 화가 수안스님의 인생이야기가 우리곁에 왔습니다



국판/264면/8,500원

쇼팽의 음악을 들으며,
아프리카 춤을 추는 스님…
텔레비전을 보면서 세상만사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스님…
개구쟁이 화가 수안 스님이 삶의 기쁨을 드립니다.

수안 스님의 작품 57점을 컬러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손바닥 안에 물감 살 돈을 쥐어 준 할머니, 아버지가 사준 꽃신 한 켤레만으로도 평생을 만족해하며 살아온 지체 부자유자 아가씨, 새해 아침에 내의와 양말을 사다 준 걸인들, 기도하는 내 어깨에 앉아 승복 속의 솜을 빼내 가던 새 한 마리, 바닷속의 물고기, 돌보는 이 없어도 봄이 오면 절 마당에 돋아나는 쑥 한 뿌리…, 이 모든 생명체들이 나로 하여금 깊은 심상을 그리도록 한 것뿐이다. 이제 나는 그들로부터 받아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글과 그림을 본래 주인들에게 되돌려 준다. 저자의 말' 중에서

〈참 좋다, 정말 좋구나〉 출판기념회 및 저자사인회
· 5월 19일(수) · 오후 6시 · 출판문화회관 강당
(독자들의 참석도 환영합니다)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61-3 남산빌딩 2층 늘푸른소나무 / 전화 (02)2276-0290 / 팩스 (02)2276-0295

한국현대시와 불교 '심층분석'

김재홍 비평집 '생명·자유의 미학'



"만해는 천부적인 자유인이었지만 암흑의 하늘 아래에서 끝까지 저항의 횃불을 치켜들며서 내면의 깊이를 간직하며 지절을 꿋꿋이 지켜온 많지 않은 순국 선열 중에 핵심적인 존재다."

김재홍(경희대 국문학과) 교수는 비평집 〈생명·사랑·자유의 시학〉(동학사 刊)에서 만해를 구한말과 시련의 일제하를 가장 지조있게 살다간 근대사 최대 인물로 평했다.

김교수는 만해의 사상은 생명사상에 기저를 두고 문학과 사상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고은시인을 논하면서 "현재진행형 시인이며 미래 완료형 문인이다"고 전제하고 "시의 여성성에 대한 관찰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고은 문학 핵심에 육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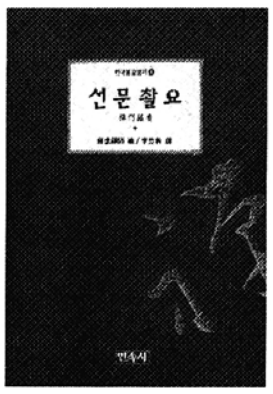
이처럼 〈생명·사랑·자유의 시학〉은 전체적으로 만해 한용운스님에서 서정주, 고은을 거쳐 김지하로 이어지는 동선을 우리 현대시사의 중심 줄기고 삼아 새로운 세기를 맞는 생명의 시학적 측면에서 논하고 있다.

〈값 1만9천원〉

김중근 기자

한권으로 읽는 선어록 16편

경허스님 엮은 '선문촬요' 완역 출간
이철교씨 번역…목판본 부록도



선사상을 대표하는 〈선문촬요〉가 완역 출간됐다. 도서출판 민족사 한국불교명저 시리즈 네번째권으로 출간된 〈선문촬요〉는 우리나라와 중국불교 선문의 중요한 어록과 논을 한국 선종의 중흥조 경허스님이 가려뽑아 엮은 것. 동국대 경주캠퍼스 도서관 이철교씨가 번역했다. 이 책에는 중국선의 초조 보리달마의 〈혈맥론〉을 비롯 홍인스님의 〈최상승론〉, 황벽선사의 〈전심법요〉, 몽산덕이의 〈몽산법어〉, 보조국사 지눌의 〈수심결〉 〈정혜결사문〉과 서산대사의 〈선교석〉, 진정국사의 〈선문보장록〉 〈선문강요집〉 등 16편의 어록과 논이 수록돼 있다. 또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목판본이 부록으로 발간됐다. 〈선문촬요〉는 제방선원에서 소의경전으로 여길 만큼 중요한 선서로 꼽히고 있다.

혈맥론(血脈論): 보리달마의 혈맥이 견성성불(見性成佛)에 있음을 문답형식으로 논술하고 있다.

관심론(觀心論): 관심법을 기술한 초기 선종의 강요서이다.

보리달마사행론(菩提達摩四行論): 도(道)에 이르는 두길, 곧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을 제시하고 행입에 다시 보원행(報怨行·전세 원한의 대가를 치르는 실천), 수연행(隨緣行·인연에 따르는 실천), 무소구행(無所求行·바라는 마음이 없는 실천), 칭법행(稱法行·진리대로 살아가는 실천)의 네가지 실천을 말하고 있다.

최상승론(最上乘論): 홍인스님의 저술, 문답형식으로 수심요결을 밝힌 동산법문의 강요서이다.

완릉록(宛陵錄): 당나라 황벽희운이 완릉 개원사에서 한 설법을 제자 배휴스님이 엮은 어록이며 요지는 즉심시불(卽心是佛)이다.

전심법요(傳心法要): 문답체의 황벽희운선사의 어록이며 요지는 심즉시불(心卽是佛)이다.

몽산법어(夢山法語): 송나라 몽산덕이, 동산 숭장주, 고담 및 고려의 나옹스님등 5사의 설법 11편을 엮은 것으로 고려말 혜각스님이 '환산정응 선사가 몽산에게 주진 법어' 등으로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것이다.

선경어(禪警語): 명나라 박산무이가 참선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병통과 대치방법을 제시하고 선승들을 경책하기 위하여 지은 글이다.

수심결(修心訣): 보조국사의 저술로 마음 닦는 요결을 논술하되 정혜등지(定慧等持)의 필요를 말하고 돈오점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진심직설(眞心直說): 보조국사의 저술로 진심정신에서 진심소재에 이르는 것을 15장으로 나눠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는 참마음(眞心)의 명칭과 본질, 미망의 근원, 참마음을 드러내고 증득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고려국보조선사권수정혜결사문(高麗國普照禪師勸修定慧結社文): 보조지눌스님이 거조사에서 정혜결사를 맺고 결사의 이념과 수행의 지침을 밝힌 선언서. 형상에 집착하고 명리에 골몰하는 당시의 불교교단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여 명리를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습정균혜(習定均慧)에 힘쓰고 달사진인의 고행을 본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간화결의론(看話訣疑論): 보조지눌의 저술, 화엄원교 법계의 걸림없는 연기가 매우 뛰어난 사상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사구를 벗어나지 못하니 대혜종고가 제창한 경절의 활구를 참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 고려 천책이 편찬한 것으로 '선과 교를 분별하는 문' '여러 강사들이 수긍하고 귀의하는 문' '군신들이 존중하고 신앙하는 문' 등 3문으로 나눠 당시 쟁점이 된 선과 교의 갈등을 선에 의하여 교를 포섭하여 회통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선교석(禪敎釋): 조선 휴정의 저술, 묘향산 금선대에서 제자 행주, 유정, 보정 스님등 3인을 위하여 여러 조록과 사례등을 인용하여 선과 교를 관석하되 교가의 원교와 돈교조차 교외별전의 선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신심명(信心銘): 승찬스님의 저술로 선의 극치를 불이중도(不二中道)로 보아 모든 대립과 차별, 시비와 득실의 망념을 떠나 평등 자재한 경지에 머무른 것을 설한 운문이다. 선승들에게 널리 읽혀 초기 선사상 형성에 기여했다. 값 2만3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우리 옛 도자기' '한국의 암각화'
새로나온 빛깔있는 책 두권





대원사에서 계속해 펴내고 있는 빛깔있는 책시리즈 2권이 나란히 출간됐다.

225번째 〈우리 옛 도자기〉와 226번째 〈한국의 암각화〉가 바로 그것. 원광대학교 윤용이교수가 지은 〈우리 옛 도자기〉는 고려청자, 조선분청자, 조선백자, 분원과 사기장, 조선백자 전통의 단절 등 도자기의 모든 것을 담았다.

인동대 사학과 임세권교수가 지은 〈한국의 암각화〉는 암각화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종류별 유적별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한국 암각화가 갖는의미와 함께 참고문헌까지 수록돼 암각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손색이 없다. 〈대원사, 각권 값4천8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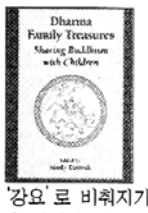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부처님 오신날 특화코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책방 여시아문에서 애독자들을 위해 특화코너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시아문이 마련한 '부처님오신날 특화코너'에는 〈부처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 이렇게 가셨다〉(여시아문 刊), 〈부처님의 생애〉(불광 刊) 등 부처님 탄생 관련 서적은 물론 교리, 입문, 선, 에세이 등이 총망라돼 있다. 특히 여시아문은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부처님은 내친구〉(한길사 刊), 백유경(밀알 刊) 등 어린이 불서도 함께 선보인다. 부처님오신날 특화코너는 5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문의 : (02)732-1521

채외신간

불자가정의 보물



부모들이 자신의 믿음과 수행을 말하는 것조차 사춘기 자녀들에게는 '강요'로 비춰지기 싶고,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샌디 이스토악의 〈불자가정의 보물(Dhamra Family Treasures-:Sharing Buddhim With Children)〉은 교육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수필과 시 그리고 일화 155편이 삽화와 함께 소개되어 있다. North Atlantic Books 刊. ISBN 1556432445

부처님



부드러운 수채화 삽화로 부처님과 경전 속 인물을 만날 수 있는 책 〈부처님(Buddha)〉이 출간됐다. 어린이들의 신심을 심어주기 위해 히츠 데미(Hitz Demi)는 〈부처님〉을 왕자로 태어난 싯다르타의 삶과 교육, 출가와 고행 등으로 꾸며졌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유아적인 언어로 싯다르타를 용맹스러운 지도자로 그렸다. Henry Holt & Comapny 刊. ISBN 0805042032

우리가 만나고 싶은… | 잔현종 엮음

화제의 책

경전속 인연이야기로 배우는 지혜



인연을 곧 만남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만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아무리 만남을 끊으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무리 특정한 것을 만나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게 인생사이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이야기 인연〉(들녘 刊)은 〈법구비구경〉 〈잡보장경〉 〈현우경〉 등 8종의 경전에 수록된 34가지 인연이야기를 통해 선인선과 악인악과라는 불변의 법칙을 체득하여 지혜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이 책은 불교의 윤회사상을 설화의 형식으로 풀어내,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억겁의 업'이 어떻게 현세의 인연으로 나타나는지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 진현종, 값 7천5백원.

님의 침묵 1·2·3 | 김호운 지음

화제의 책

소설로 엮은 만해스님 생애와 사상



불교의 대선사, 사랑의 중도가를 노래하던 님의 시인, 민족정기를 지킨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스님. 예술 종교 애국의 큰 뜻을 품은 민족정신의 사표 만해 한용운스님의 일대기와 사상을 정리한 장편소설 〈님의 침묵〉(전 3권)이 도서출판 밀알에서 나왔다.

김호운씨가 만해스님의 자료와 자취를 직접 답사하고 지은 이 책은 3단계로 정리한 평전소설이다. 1권에서는 출가 동기를, 2권에서는 출가하여 수행하는 과정을, 3권에서는 사상의 정리단계를 그렸다. 이 소설은 만해 한용운스님의 사상을 복원하는 평전이기도 하지만, 왜곡된 역사 인물들의 바른 모습을 그리는 노력도 엿보인다.〈각권 값 7천2백원〉

사바소리 성불소리 | 지운스님 지음

화제의 책

30년 수행하며 겪은일 적은 수상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옳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그르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선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좋은 점만이 발견된다. 그러나 미워하는 눈으로 살펴보면 단점만 드러난다."

경기 양평 금강사 주지 지운스님이 펴낸 〈사바소리 성불소리〉(수미산 刊)는 30여년동안 수행생활을 하는 동안 겪은 일들을 적은 수상록이다. '나와 인생' '성냄과 사랑' 등 짧은 글들로 시작되는 이 책의 전편에서 불자들에게 밝은 지혜를 주고자 하는 간절함이 배어난다. 무엇보다 불교의 생활화와 생활의 불교화 구현을 위해 책을 출간하게 했다는 스님의 원력은 이 책을 더욱 읽게 한다. 값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 형 조	여시아문
3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룡	효 림
4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5	불자의 기본예절	일 타	효 림
6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일 타	민 족 사
7	원각경주해	월 운	동국역경원
8	허공의 몸을 찾아서	지 명	불교시대사
9	불교 선수행의 핵심	송 위 지	시 공 사
10	입산	재 연	문학동네

구입문의:(02)737-0695

●1998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교보문고 집계 종합 1위)

법정 스님이 직접 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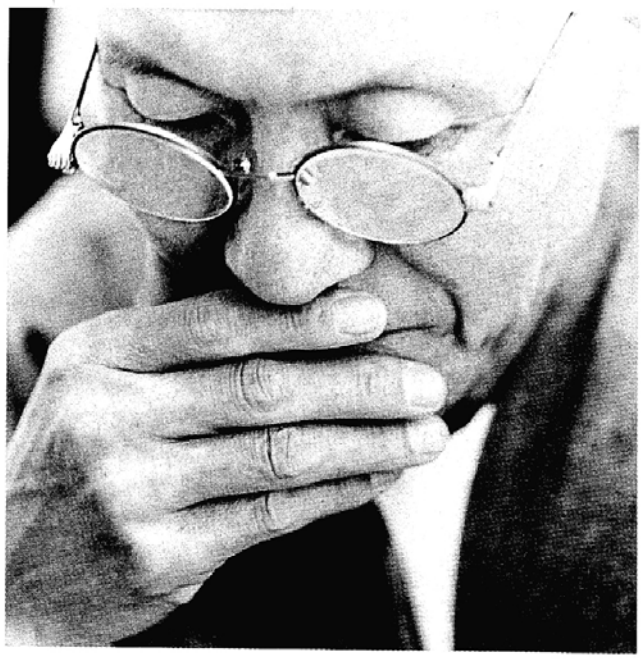
산에는 꽃이 피네

오디오 북

법정 스님 • 류시화 엮음

강원도 산골, 화전민 오두막에서 생활하는 법정 스님의 삶의 풍경과 지혜의 말씀
그 목소리와 함께 전해지는 감동의 메시지

● 읽어 주신 분 / 법정 스님, 이계진(방송인), 이미선(KBS아나운서) * 70분 테이프 2개/값 8,000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숨결이 담겨 있고, 영혼의 울림이 담겨 있다. 목소리에는 문자가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이가 들어 있고, 간간이 더 깊은 침묵이 숨어 있다. 그가 순수한 정신의 소유자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나뭇잎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소리 못지 않게 인간의 목소리는 소중한 명상의 대상일 수가 있다. – 류시화(시인)

아름답고 달콤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실행이 따르지 않는 그런 글에 독자는 실망과 공허함을 느낀다. 언행이 일치하는 스님의 음성을 대하면 나는 갈증나는 산행길에서 샘물을 만났을 때와 같은 기쁨이 솟아오른다. – 이계진(방송인)

책을 통해서 법정 스님의 삶의 모습을 동경했고, 항상 가까이서 뵙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제 스님의 육성을 통해 그 글을 들으니, 언제나 그분이 곁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다. – 김영동(국악인)

서울특별시 중구 묵정동 18-9 배영빌딩 401호 전화 2263-1941/ 팩스 2263-1946 동쪽나라

한국불교 승직제도 고찰 미래의 승가상 조명

조계종 교육원-불학硏 7일 세미나

삼국시대에 한국으로 전래된 불교가 고려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흥과 쇠퇴를 거듭해 온 가운데 승직제도는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고찰한 '한국불교 승직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7일 중앙승가대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스님) 불학연구소(소장 도원스님)는 역사 속에 나타난 승직제도 고찰을 통하여 현재의 승가질서와 제도를 재점검하고 미래의 승가상을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삼국 · 통일신라 시대 승직제도

김영태 교수(동국대)는 고구려의 승통제, 백제에서의 승정제도와 신라시대의 승관직이 통일전후를 통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짚었다. 김 교수는 "고구려의 승직제도가 승통제였다는 사실은 북위의 승직제도를 이어받은 것이며 신라에 전해졌을 때 고구려의 혜량을 승통으로 삼았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백제의 승정제도는 백제에 불교를 전해준 중국 남조의 승관제도와 백제의 불교를 받아들인 일본의 승단 통제 기구에서 유추했다. 신라의 경우 교단내적인 승직인 국통(國統)과 도유나낭(都唯那娘) 및 대도유나(大都唯那)와 교단외적인 승관이었던 대서성(大書省)을 구분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통 등 승직제도는 통일 후에도 이어졌는데 통일신라에서는 9주(州)를 두면서 각 주마다 한명의 주통(州統)을 두었고 또 18명의 군통(群統)을 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고려의 승직과 승정

허흥식 교수(정신문화연구원)는 "승직은 승에게 부여된 직책이고 승정(僧正)은 이를 주관하는 임명권으로 사용했다"며 "승직과 승정은 스님의 자격을 부여하는 고시제도인 승과(僧科)와 승과의 합격과 이력(履歷)에 따라 지위의 단계별 상승을 의미하는 승계(僧階)와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려의 승정제는 종파와 제도적 뒷받침을 토대로 관료제의 일부로서 운영된 것이 커다란 특색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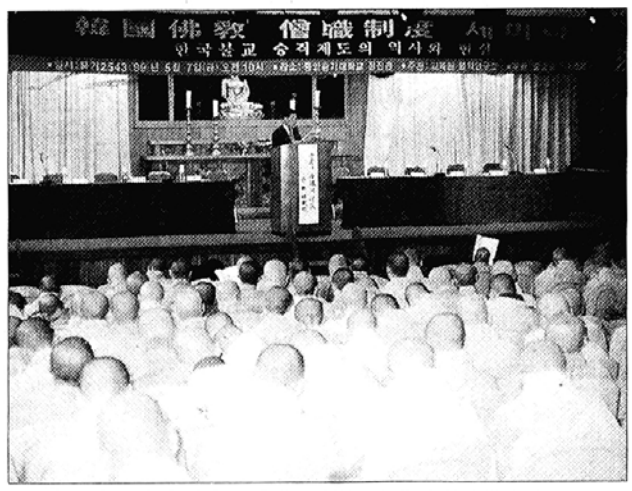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승직제도

이봉춘 교수(동국대)는 "승직제도는 기본적으로 승려와 교단의 활동을 국가가 행정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로 불교 교단의 자체적 필요와 요구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불교통제를 위한 국가의 세속적 목적의 제도"라고 전제했다. 조선의 승직제도는 배불정책으로 인해 그 전기에 이미 대폭적인 축소의 단계를 거쳐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가 임진란 이후 전적으로 국가의 필요에 의해 종래와는 전혀 다른 의미와 형태로 승직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조선시대의 승직제도의 성격은 불교와 국가의 공적 매개체이자 국가에의 예속성 및 비교단성이 눈에 띈다. 또 도총섭제 등의 승직이 조선 중기 이후 불교교단의 유지 존속에 외피(外皮) 구실을 해왔는데 나중에는 총섭이나 승통 등이 함부로 남발되는 상황이 오는등 승직의 권위와 의미가 쇠퇴했다"고 밝혔다.

■한국현대 승직제도와 규범

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종헌과 청규로 귀결되는 한국 현대 승직제도와 규범은 소임자에 대한 권한 부여 유무에 있어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점을 인식함에 따라 종무원의 직무에 부여되는 직권은 그 본질과 역할에 더욱 선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가 전문화 다양화하면서 승려의 직무도 범위가 넓어지는데 승직은 현실업무를 처리하는 직제일 뿐 아니라 불교의 근본이념을 구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승직 제도와 운용에는 새롭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개최한 '한국불교 승직제도' 세미나.

"무학스님 폄하와 비난 유교세력 고의적 악평"

강석근씨 '삼대화상 학술회'서 주장

"무학전승은 '탄생과 관련된 무학이야기', '풍수가(風水家)로서의 무학이야기' '도선(道詵)과 관련된 무학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전승을 통해 볼 때 무학은 유교세력의 조직적인 배척과 질시 속에서도 수행승의 본분을 지키면서 무너져가는 불교의 교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끝까지 고뇌하고 노력하며 법등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진 진정한 스님이었다."

회갑사에서 1일 개최된 삼대화상 추모 학술발표회에서 강석근씨(동국대 강사)는 '무학(無學)전승의 특징과 그 의미'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씨는 "무학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극단적인 칭송과 비난의 양상을 띤다"며 "무학은 태조의 절대적인 존경과 칭소를 들었으며 불교적인 측면에서 철저한 수행승이라 불렸고 역사와 지리를 통찰하는 예지력과 풍수가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아 신승이라고도 불리어졌다"고 지적했다. 현대에 와서는 국사봉(國師峰)의 신격(神格)으로까지 경배됐다. "무학을 비난한 이들은 정치적인 관점을 달리하는 사관들과 태종 이방원"이라고 지적한 강씨는 "유교적인 교양을 갖춘 사관들은 무학이 왕사로서 행한 첫 설법을 두고 종지를 잘 해설하지 못한다며 철저하게 비난했고 태종은 무학이 득도한 경험이 없다고 치욕적인 악평을 퍼부었는데 이는 태종과 사관에 의한 고의적인 '무학죽이기'"라고 강조했다.

회암사는 해마다 지공 나옹 무학 삼대화상을 기리는 추모 다례제를 지내왔는데 학술발표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이다. 학술발표회 기념 삼대화상 연구논문집 〈지공 · 나옹 · 무학화상〉도 발간됐다.

논문집 기사 부다피아에서 보세요

장경硏 올 학술세미나 일정 확정

'비판불교 비판적 검토' 세미나 6번 심층탐구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스님)는 '비판불교의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29일부터 11월20일까지 총6회에 걸쳐 동국대 90주년기념학술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비판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 학자들을 초청 세미나를 통해 비판불교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리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11월20일에 열린 6차 세미나에는 '여래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라는 논문을 발표해 학계에 반향을 일으킨 마츠모토 시로 교수 초청 강연이 마련되어 있다.

비판불교 세미나는 △5월29일-비판불교의 이론적 좌표(심재관), 비판불교가 제시하는 형이상학과 철학적 원리(정상보) △6월19일-비판불교의 중관사상 이해에 대한 검토(김성철, 홍성기) △7월10일-비판불교의 선불교 이해에 대한 검토(김영욱, 김호귀) △9월18일-비판불교의 여래장과 본각사상 이해에 대한 검토(최정규), 비판불교의 인도철학 이해에 대한 검토(이은덕) △10월16일-비판불교의 방법론에 대한 서양철학 입장에서의 검토(소흥렬, 김옥선) △11월20일-마츠모토 시로 교수 초청강연회 및 집단토론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진심직설의 진심은 본래심"

이창구씨 '구산논집'에 논문 발표

"선수행은 본질과 실존 사이의 갈등구조를 극복하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것이다. 본질이란 우리의 마음이 곧 부처(心卽佛)라는 것이며, 실존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한다. 본질과 실존이 합일되는 체계가 바로 선수행의 기본구조인데 지눌의 선사상 역시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구산장학회가 펴낸 〈구산논집〉 제3집에서 이창구씨(전북대 강사)는 '〈진심직설〉'를 통해서 본 진심과 오수의 구조'라는 논문에서 "진심직설의 진심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마음으로 상대적인 것이 초월되어 있는 본래심(本來心)이다. 부처와 중생, 보리와 번뇌, 선과 악 등 대립적인 것이 초월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각종 망상에 이끌려 생활한다. 본래심과 중생심이 이원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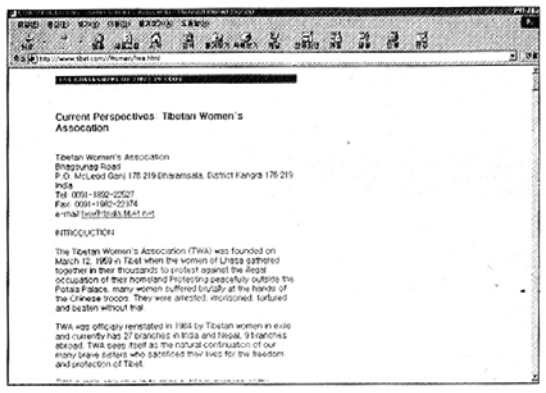
이런 이중구조를 타파한 상태가 바로 깨침(頓悟), 즉 본질과 실존이 합일되는 체험이라는 것이다. 이씨는 "〈진심직설〉에서는 돈오를 진심에 대한 바른 믿음(眞心正信)으로 표현했다"며 "깨치기 이전에 쌓였던 습기로 인해서 실제와 완전합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를 위해 점수(漸修)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술단신

불문硏 봉축기념 세미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목정배)은 13일 오전10시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2000년대를 여는 한국불교'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목정배 교수(동국대)의 발제강연을 시작으로 이번 세미나에는 △교단-암도스님 △수행-권탄준 △복지-혜도스님 △포교-성타스님 등이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기종 교수(동국대) 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이혜숙 팀장(불교사회복지정보센터) 최종석 연구원(불교문화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티벳여성협회

티벳의 종교·문화 지킴이 역할

티벳 여성협회(The Tibetan Women's Association, 이하 TWA)는 1959년 4월 12일 티벳 라샤에서 중국의 티벳에 대한 불법적인 점령에 항거하기 위해 수천명의 티벳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결성되었다. 당시 포탈라궁 밖에서 평화적인 항의 시위를 벌이던 수많은 여성들은 중국 군인들에 의해 야만적인 취급을 받았으며 또한 상당수의 여성들은 재판도 없이 투옥되어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 뒤 1984년 해외에 망명중인 수많은 티벳 여성들에 의해 정식으로 재조직되었으며, 인도 및 네팔 등 해외에 36개 지원 · 지회를 두고 있다.

TWA는 티벳 고유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티벳 국민들의 정체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티벳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모색하고 있다. 설립 목적으로는 △티벳과 망명중에 있는 티벳 여성들의 사회 · 경제 · 정치적 권한 획득 △교육 · 문학 · 출판을 통한 티벳의 문화 · 언어 · 전통의 보전과 이해 증진 △후원회를 통해 경제적으로 불리한 가족 · 결손가정 어린이 · 비구니 스님 · 장애인 · 노약자들에 대한 구호활동 전개 △평화와 정의 실현을 위해 세계 여성들과의 연대 활동 전개 △가족계획을 위해 티벳 여성들이 적절한 건강보호 및 어린이 보호와 교육적 정보에 대한 접근 보증 △티벳내 중요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여 중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점령을 당하고 있는 티벳 국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일 등이 있다.

1984년 처음으로 세계적인 TWA 총회가 '달람살라'에서 개최되어 새로운 티벳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TWA 본부는 현재 '달람살라'에 있는 '맥레오드 간쥐' 지역에 있으며 이곳에서 TWA가 안고 있는 모든 이슈들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지원 · 지회 사무국에서 하는 일들을 조정하고 투쟁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다.

현재 해외 망명지에서 이미 7곳의 티벳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이 결성되어 있는데 이중 3곳이 TWA로부터 조직관리, 조정기능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TWA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 복지 부분에 대단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티벳 · 인도 및 해외 망명지에 있는 티벳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과 연대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티벳에서 해외로 망명한 비구니 스님들이 티벳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며, 또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숨마저 잃을 위험이 있음에도 티벳의 독립을 위해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때문에 TWA에서는 보다 열성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해외 망명지에서의 그들의 용감성과 결단력을 실현시키는데 경제적 지원과 피난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TWA에서는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에게 임시로 거처할 곳과 음식 그리고 교육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공헌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www.tibet.com//Women/twa.html

국내 최초 단행본 출간!

부처님은 전생에 청개구리였다!

부처님 전생이야기

서희건 엮음
(문화재 전문위원)

2500여년 전에 씌어진 우화처럼 재미있고
눈물겨운 부처님 전생의 보물창고 자타카!

부처님의 전생은 기구하기 짝이 없다.
까마귀, 거북이, 코끼리에서부터 아이 낳는 여자,
도둑으로도 태어났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부처가 되기 전 보살로 살았던 전생 이야기인 것이다.
이들 설화는 동화처럼 아주 재미있기도 눈물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나 아라비안나이트,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전2권 | 각권 값7,500원〉

박삼중 스님의

인연 이야기



처음으로 고백한 삼중 스님의 진솔한 라이프 스토리!

세 명의 의붓아버지를 둔 기막힌 팔자 이야기부터, 출가 · 환속 · 출가에 얽힌 숨기고
싶었던 여자 이야기, 그리고 사형수의 대부가 되기까지 처음으로 공개한 자전 에세이!

서대문 구치소 담 뒤에서 태어난 삼중 스님! 첫돌날 부처님을 모독하고 세상을 등진 젊은 아버지,
형무소에 수감된 또 다른 남자를 시중들기 위해 여교도관이 된 어머니! 그 어머니의 거듭된 재혼으로
세 명의 의붓아버지 곁에서 눈칫밥 먹던 소년 시절, 그리고 맨발의 출가와 환속으로 이어진 구도의 길에 만난
여인들과의 아픗한 사랑과 이별, 재소자 교화에 나선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큰손 장영자, 강신명 목사,
최 소피아 수녀 등과의 만남에서부터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너무나도 질긴 인연 이야기들!

〈제1권〉 다시 태어나면 스님 안될래 | 〈제2권〉 그 만남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네
〈전2권 | 신국판 | 각권 값7,500원〉

문학수첩 전화: (02) 790-5999 팩스: 790-6656
http://www.moonhak.co.kr ▪ 이 책의 수익금(인세)은 재소자를 위해 쓰여집니다

'번뇌=보리' 불이사상 설파

경전 속의 禪 사상 18

문수와 유마 대화 不二법문 백미

'돈오입도요문' 은 24곳이나 인용

유마경 ㊦

글쓴이



혜 원
〈동국대, 선종사전공〉

당대의 선종의 번성은 중국불교의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며 삶의 본질에 대한 화두를 끊임없이 던져, 자신을 성찰하고 인간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불교를 근거로 깨닫고(悟) 그 참된 정신 즉 불심의 세계를 계승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인식시켰다.

중국인들의 이러한 종교정신을 투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대승불전이 그 근거가 되었다. 대승불교의 이론적 전개를 삶을 통한 실천적 모습으로 적나나하게 보여주는 것이 〈유마경〉이다. 이 경은 공(空)의 근본적인 입장을 보살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위 실천을 통하여 그 의미를 실현해 보인 것이 그 특색이다.

〈유마경〉(rya-Vim lak rti-nird san ma mahay na-s tra)은 5C경 구마라집이 번역하였고 그 구성은 14품으로 이루어졌다. 제명의 의미가 '유마힐이 설한 경'이라고 하듯이 이 경의 주인공 유마는 심원한 대승불교의 교의를 종횡으로 설명하며 실행해 보인다.

또한 이 경전에는 다른 명칭이 붙는데 '불가사의해탈'이 그것이다. 즉 대승의 진리를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의 경지인 '해탈'을 설하는 경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경의 14품 전체가 이 '부사의해탈'을 위한 설명이며 궁극에는 유마자신이 '부사의해탈' 즉 공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공의 개념적 자각으로 이끄는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보살(수행자)의 행도(行道)를 명료히 보이는 것은 특히 '문수사리문질품'과 '입불이법문품'이다.

'문질품'에서는 병든 유마가 등장하고 문수보살과 함께 대승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설한다.

문수가 문병을 가자, 유마는 "그대는 오지 않는(不來) 모습(相)으로 오셨고 보지 않는(不見) 모습(相)으로 봅니다"라고 불이(不二) 법문을 제시한다. 그런데 문제는 문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마는 먼저 방을 텅 비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즉 먼저 공사상을 표현하고 이 공사상에 입각하여 '불래의 래 불견의 견'인 '불이(不二)'를 설한 것이다. 그러나 문수 역시 유마의 의미를 알고 자연스럽게 받아 넘긴다. "그렇습니다. 거사여 만약 와 버렸으면 다시는 오지 않고 만약 가버렸으면 다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다고 하지만 어디로 온곳이 없으며 간다고 하지만 어디로 가는 곳이 없습니다. 본 것은 다시 본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去來)도 견불견(見不見)도 모두 인연상에서 나타난 거짓된 상에 지나지 않음을 말한다. 대승의 견해를 서로 설하고 있음을 본다. 계속해서 병세에 대해 문수가 묻자, 유마는 "일체중생의 병이 사라지면 내 병도 사라지오." 병의 원인은 미혹함에서이고 유마의 병은 중생이 앓으므로 앓는 것이고 중생의 병이 낫게 되면 보살의 병도 낫게 된다는 의미다. 반야의 지혜로 닦여진 유마의 정신은 대비로 움직여져 중생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승보살의 행원이며 이는 공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바라밀행이다.

모든 중생과 내가 같다고 생각될 때(범성동일진성 · 凡聖同一眞性) 그 성품은 진정한 참된 청정성품(佛性, 眞性)이며 그러한 깨달음에서 비원(悲願)이 일어나며 그것은 행원이 되어 보살행을 하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마의 정신은 선의 세계가 되어 중국 선종의 선지와 선수행의 바탕이 된다.

특히 중국불교인 선종과 유마경은 떼어 놓을 수 없다. 달마의 어록인 〈이입사행(二入四行)〉이나 우두법융의 것이라고 보는 〈절관론〉, 북종신수의 〈대승오방편문〉등에 여러차례 인용되고 있으며, 더구나 선학입문서라고 볼 수 있는 대주혜해(830년경 입적)의 〈돈오입도요문〉에는 무려 24곳이나 인용되며 다음으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황벽희운(850寂)의 〈전심법요(傳心法要)〉이다.

선을 사상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반야사상을 빌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선은 공의 본질을 나타낸 실천이고 중관과 삼론을 표시한 행의 결정체이며 화엄사상의 요체를 밝히는 성기의 도장이다.

과학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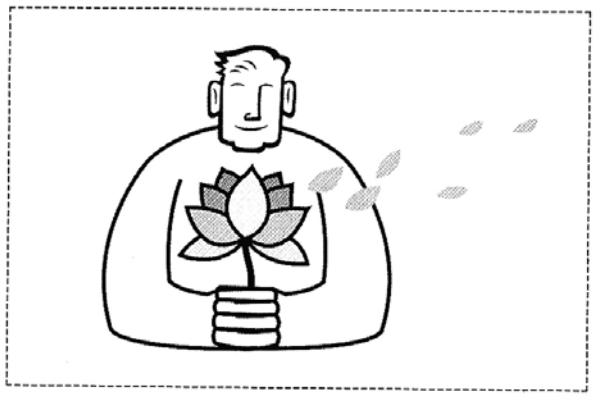
엔돌핀

엔돌핀 뇌에서 만든 마약물질

몰핀보다 진정효과 200배 높아

격심한 마음의 감정 일어날땐

작은고통 못느끼게 신경 차단



몰핀은 식물에서 얻어지는 강력한 진통제로 20세기 의약 발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몰핀보다 200배나 진통작용이 강한 물질이 우리의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엔돌핀이라는 이름의 뇌내 마약물질이 바로 그것이다. 엔돌핀(endorphin)이란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몰핀이라는 뜻이다.

엔돌핀의 발견은 마약류의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일부 뇌과학자들은 몰핀, 코카인과 같은 마약류가 사람들에게 쾌감을 주는 이유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75년 영국 애버딘 대학의 존 휴지와 동료들은 마약과 유사한 물질이 뇌 속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발견으로 인해 마약의 효과는 마약과 유사한 물질이 뇌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뇌내에서 발견되어진 마약물질은 20종류가 넘는데 이 중 하나가 엔돌핀이다.

오랜 동안 몸은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여겨져 왔다. 즉, 통증이 인식되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격한 감정상태에서는 몸에서 오는 통증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다. 즉, 엄마가 아이를 구하러 불난 집속으로 들어 갈 때나 병사들이 전투에 몰입되어 있을 때에는 자신의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좀더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 사소한 고통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경우들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심각하게 누군가와 이야기 할 때는 입안에 생긴 창은 잊어버린다.

진통 작용 매카니즘을 간략히 설명하면, 신경세포의 특정 수용체들은 몰핀이나 엔돌핀에 의해 채워져 더 이상 다른 화학물질이 고통을 전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화학물질 없이는 얼마나 많은 물리적 자극이 가해진다 하여도, 이 화학물질을 받아들여 고통이라는 감각을 전달하는 수용체들이 다른 물질에 의해 이미 점령당해 있어 고통이라는 감각은 발생하지 못한다.

엔돌핀은 우리 몸의 모든 신경세포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중독성도 없다.

이런 뇌내 마약물질의 발견에 의해 지금까지 수수께끼로 여겨져 왔던 현상이 설명 가능해 졌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침을 이용한 마취의 경우, 침의 자극에 의해 뇌내 마약물질의 분비가 촉진되고 이것에 의해 마취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결론적으로, 뇌내 마약물질은 강력한 진통력을 가지고 있다. 아주 강한 통증조차도 뇌내 마약물질이 무마시켜 버린다.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고 있고 부작용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 내부에 강력하고 부작용도 없는 진통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부에서 주입하는 방법을 택한다.

이제 우리는 내부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무엇이 엔돌핀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만들어내도록 하는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 엄마를 불이 난 집안으로 뛰어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아드레날린 분자가 아니며 화염으로부터 엄마를 보호해주는 것 또한 엔돌핀 분자가 아니다. 자식에 대한 지순한 사랑이 뛰어들게 하는 것이고 일편단심으로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결심이 고통으로부터 엄마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녀 마음에 있는 이 두 요소에 의해 뇌에서 몸으로 전달되는 화학적 경로가 마련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엔돌핀이 분비된 것은 아닐까?

육조혜능이 바람이 깃발을 흔든다는 주장과 깃발이 바람을 일으켰다는 주장으로 싸우는 스님들 곁을 지나가면서 다음과 말씀하셨다. 움직이는 것은 깃발도 바람도 아니요, 당신 마음이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17

반야바라밀다 문헌 ⑦

시기 질투는 나와 남 비교에서

경쟁 초월한 정신완성 추구를

믿음, 정진, 마음챙김, 선정, 지혜등 다섯 가지의 덕은 우리가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고 수행을 교감적인 기쁨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임에 틀림없다. 교감적인 기쁨은 타인의 행복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불행보다는 행복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불법 보다는 형상에 매일 수 밖에 없는 성향을 갖기 쉽다.

이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단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기 조차 싫어하는 감정이 숨어있다. 우리는 그러 감정을 숨기려고 하지만, 시기와 질투와 같은 싫어하는 감정은 다른 감정보다 강렬하게 마음 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투하고 타인의 몫과 나의 몫을 비교하며, 우리를 피해간 행운을 무척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부처님과 스님의 공양을 위해 항상 많은 재물을 내놓았어. 또 그들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고 마치 아집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타인의 행복에 공감하는 감정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행복은 세속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 두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행복이란 물질적인 번영을 의미한다.

그들이 얼마간 돈을 벌고 좋은 직업과 새로운 집을 장만하거나, 아이들이 태어났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의기양양해 한다. 반면 정신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의기양양에 대해서 연민이 섞인 마음으로 반응하기 쉽다. 정신적인 삶의 규칙,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 행복을 느끼는 것이 매우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지혜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번영이 영원할 수 없으며, 그런 번영은 우리의 정신을 노예 상태로 만든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또 그것은 미래를 큰 고통으로 이끌어 가기 쉽다며, 우리 스스로 반성하도록 촉구한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성공 속에서도 우리가 가족과 친구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적인 성숙이 요구된다. 물론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에 앞서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경쟁심을 다스리고 조금씩 닦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눌 수도, 그들에게 그 기쁨을 유감없이 인정받을 수도 있다.

마치 어른이 곱방 걸음마를 배운 아기와 함께 즐거워 하며 해변에서 아이들과 함께 쌓은 아름다운 모래성을 보고 즐거워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은 경쟁과 자기평가를 중시하는 마음의 영역 밖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혜는 불법을 실재 모습대로 꿰뚫어보게 한다. 지혜는 불법을 감추고 있는 미혹의 어둠을 사라지게 한다. 우리가 본 외관상의 모습은 대상 자체가 아니다. 불법으로서의 그들의 진실한 실체는 상식적인 그들의 외관에 의해서 감춰진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일상의 현상과 그것의 흔적 속에서는 우리 자신의 본원적인 모습을 알지 못한다. 현상과 흔적은 단지 존재할 뿐이다. 우리가 본원적인 것을 알고 싶다면, 일상의 현상과 흔적을 들어낼 필요가 있다" 고 말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지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만적인 외관을 버리게 하고 불법의 진실한 실체를 꿰뚫어볼 수 있게 하는 정신의 힘이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cu@buddhapia.com)



도서출판 열린마음 · 열린세상 전화 (051)627-5498 팩스 (051)623-3946

삶이 환희롭고 기쁜 것만은 아니였으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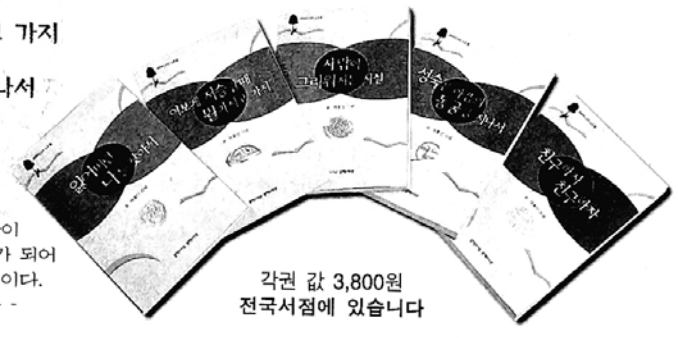
불행과 행복이 쌍둥이고 고통과 환희 또한 손의 앞뒤와 같은 것이듯,
행복과 환희의 기쁨은 반드시 불행과 고통의 동굴을 통과해야 한다는 철칙에서 예외가 될수가 없었다.
마지막 관문인 자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지장보살님의 혹독한 훈련가피는 승복을
벗어버리고픈 마음마저들게 하는 극한의 인욕을 요구하였다.

석용산 스님과 함께하는

마하무드라의 노래

①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②여보게 저승갈때 뭘가지고 가지
③사람이 그리워지는 시절
④성숙은 아픔의 동굴을 지나서
⑤친구하자, 친구하자

마하무드라의 노래 는
법열속에 부르신 환희의 노래들이다.
참을 수 없는 마장속에 몸부림하며
안으로 안으로 울어 흘린 신음의 스리들이
사리보다 영롱하고 핏물보다 진한 노래가 되어
우리들의 영혼을 따스하게 적셔 주실 것이다.
- 마하무드라의 노래는 계속 출간됩니다 -



각권 값 3,800원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지장불교 공양차제법
지장사상을 정립하는 글 들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노래로 엮어
대중들이 편히 읽고 신심나게 독송할
수 있는 의식집

출판기념회
5월 21일(금) 오후 8시
공덕원부산포교원 법당

문의처 법우당(02)994-4437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연화사 신중탱화. 기존의 탱화와는 다른 독창적인 화면구성과 색채 사용으로 새로운 불교회화의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다.

차안과 피안의 세계 조형언어로 형상화

고현 불교회화전

5월5~11일 서울 공평아트센터
5월14~20일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5월24일~6월7일 광주 남봉미술관





○불교계 어디서나 볼수 있었던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불교적인 소재에 일러스트적인 기법을 접목한 작품 '수본진심(守本眞心)'.



The 2531st Observance of the Coming the BUDDHA

○부처님오신날 포스터. 생활속의 불교미술을 꿈꾸는 고교수는 '불교디자인 연구소' 설립을 발원 순회전을 마련했다.

차안과 피안은 어디인가. 차안의 세계도 피안의 세계도 모두 밝은 심안으로 보면 둘이 아니고 하나로 통하는 불이문(不二門)이다 마음의 눈으로 일체를 유심조(有心造)하면 열반의 저 언덕이나 사바의 이쪽이나 모두 하나다.

불자들에게는 연꽃 문양의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를 제작한 디자이너로 더 잘 알려진 고현교수(조선대 디자인학부)가 88년 이후 11년만에 서울 부산 광주에서 대규모 순회전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불교작품 23년 결산이어서 더욱 시선을 끈다.

'차안과 피안'이란 주제로 5월 5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가로 7.5m 세로 1.8m짜리 대작 '연해도(蓮海圖)'를 포함 총 70여점의 작품이 우리를 시끄러운 차안의 일상에서 피안의 청정세계로 인도한다.

부처님과 보살들의 조용하고 자애로운 모습과 새벽 예불하는 스님들의 형형, 연꽃으로 덮인 고요한 아침호수와 그 위에서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안개, 텅빈 하늘에 허허로이 솟아있는 산사의 추녀와 그 끝에 매달린 풍경, 외롭게 홀로 서있는 석등과 석탑 등 그의 그림에는 산사 승방의 분위기가 짙게 배어있다. 그러나 여기에 현대적인 감각의 '시각디자인과 일러스트'를 접목시켜 서정성 넘치면서도 세일하고 절제있는 새로운 불화의 세계로 안내한다.

산사의 풍경이나 수도승의 모습을 도해적으로 보여주는 일러스트의 개념을 충실히 따르기에 단순 소박한 화면구성과 색채를 보여줌과 동시에 맑은 선화(禪畵)를 보는 듯한 함축미와 개성도 느낄 수 있다.

이번 작품들중 눈에 띄는 것은 도심 포교당 연화사 대웅전을 장엄하는 대형탱화 3점. 기존의 전통기법의 탱화와 다른, 새로운 이미지로 과격을 시도했다. 고교수는 "산 속에 있는 전년 고찰을 복원할 때는 기와 한 장, 단청 한 획도 본래 모습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사찰이 건립되거나, 특히 도심지에 포교당 성격의 사찰이나 불교 관련 건물을 세울 때는 과거지향이 아니라, 오늘에서 내일로 향하는 미래지향의 것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뜨거운 출가의 원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사는 그는 달력 그림, 일러스트, 포스터, 탱화, 단청, 상지어 스티커 한장에 이르기까지 불교회화 전반에 걸쳐 현대적인 감각을 도입한 선구자적인 예술가다. '불교에 대한 일반적 시각 바꾸기'를 오래 추구해 온 고교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불교디자인 연구소' 설립이 가시화되길 고대하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호소력 있는 새로운 조형언어와 불교의 전통화법과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는 고현교수. 그는 "이번 전시작들이 완결된 조형언어일 수 없다. 단지 전환기일 뿐이다"라며 또다시 변화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5일 열린 고현교수의 서울 전시회 오프닝 행사에는 종심스님(대전 연화사 주지), 국립현대미술관 최만린 관장, 시인 황청원, 이계진씨(방송인)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전시일정은 △5월 5일~11일 서울 공평아트센타 △5월 14일~20일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5월 24일~6월 7일 광주 광주일보 남봉미술관.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숭모제는 대웅전 헌공의식으로 시작된다. 선덕여왕의 후손들인 경주김씨 종친회 제집사들이 곡배(曲拜) 4배로 참봉례를 올리고 있다.

선덕여왕 숭·모·제

통일-풍년 기원

팔공산 부인사 매년 음력 3월 보름 의식 봉행

우아한 자태와 기품있는 언행, 얼마전 방한한 엘리자베스 영국여왕 때문에 한국사회는 한동안 여왕 신드롬에 사로잡혔다. 영국에만 훌륭한 여왕들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여왕이 존재했다. 신라시대의 선덕, 진덕, 진성 여왕 세 분이 바로 그들. 그 세명중에서도 신라 제27대 임금인 선덕여왕(?~647)은 삼국통일의 원력으로 불법에 의지하며 보살의 삶을 살며 많은 치적을 남긴 훌륭한 성군(聖君)으로 꼽힌다.



○선덕여왕 어진(경북대 미대 유환교수 작). 1990년 부인사에 숭모전을 짓고 어진을 봉안했다.

날씨도 화창한 4월 30일, 팔공산 부인사에서는 선덕여왕 숭모제가 열렸다. 부인사는 선덕여왕이 창건한 절이다. 이곳에는 여왕의 덕을 사모하고 그 유지를 계승해 가고자 여왕의 사당 숭모전이 건립되어 매년 선덕여왕이 돌아가신 기일(음 3월보름)을 기해 숭모제를 봉행하고 있다. 숭모제가 팔공산 부인사(주지 성타)에서 복원된것은 1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곳에도 아랫마을에서는 이미 제사를 봉행해 왔다.

선덕여왕 숭모제는 먼저 대웅전에서 헌공의식으로부터 시작됐다. 헌향과 헌다, 마지공양에 이어 꽃공양을 올리면 범종루에서 범종이 장엄하게 울린다. 이어 숭모제는 숭모전으로 옮겨간다.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숭모제는 일동배례(一同拜禮)를 시작으로 제사를 주관하는 재집사의 사배(四拜)가 이어진다. 종묘제례악과 만파정식지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헌향헌화 헌다가 진행된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여왕께 차를 한잔씩 올리는 헌다에 이어 여왕의 가문인 경주김씨 종친회에서 올리는 참봉례에서 숭모제는 정점을 이룬다. 다음으로 궁중무용인 정재가 봉헌되는데 이날의 향악정재는 나비의 아름다운 자태가 우아하면서도 기품있게 묘사됐다. 다시 일동배례를 끝으로 숭모제는 막을 내린다.

불교의식과 궁중의식 그리고 제사가 혼합되어 있는 선덕여왕 숭모제는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숭모제는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있으며 삼국통일의 초석을 다졌던 선덕여왕의 유지를 받들어 남북통일에의 기원도 담고 있다. '덕만보살'로 불릴 정도로 불심이 강했던 선덕여왕을 추모하는 '숭모제'는 어느덧 추모제의 의미를 넘어 전통문화의 계승 역할까지 하고 있다. 신라문화를 그대로 재현한 장엄한 의식은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상품화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덕과 지혜, 자비로써 나라를 다스린 여왕은 많은 한국여성들에게 자부심을 주어왔으며 현대여성들에게도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선덕여왕께 올리는 궁중무용 '정재'.

선덕여왕과 불교

불심으로 어진정치 펼쳐
황룡사탑 · 분황 · 영묘사 창건

선덕여왕의 아버지는 진평왕이고 어머니는 마야부인 김씨였다. 여왕의 불심은 아버지 진평왕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진평왕은 불국토 건설을 염원하며 자신의 이름을 백정(白淨)으로, 부인의 이름을 마야부인으로 고치는등 불심이 남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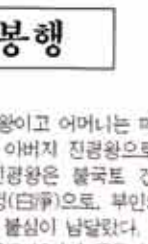
이런 환경속에서 자란 여왕도 불심이 돈독해 부인사를 비롯 분황사 영묘사 기림사 등 수많은 절을 창건했다. 특히 부인사(符仁寺)는 642년 호국통일을 기원하는 도량으로 창건해 아울러 모후 마야부인의 원당으로 삼아 절이름을 부인사(夫人寺)로 했다.

여왕의 재위16년간 고구려와 백제의 침공이 잦아 근심이 많았으나 김유신과 김춘추 같은 명장 · 명신을 거느리고 삼국통일의 기초를 닦았다. 자장율사를 당나라에 보내 불교를 적극 수용하고 호국의 의지로 황룡사9층탑을 창건했다. 또 지혜가 밝아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천문관측대인 첨성대를 세우는 등 앞일을 예견하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삼국유사〉 제1권 기이 제1 선덕왕의 지기삼사(知幾三事)란에 전해진다. 하루는 여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르기를 "나는 아무해 아무날에 죽을것이니 도리천에 장사지내도록 하라"고 했다. 여러 신하들이 그게 어디인지를 알지못해 물으니 '낭산 남쪽'이라고 했다. 그날이 이르러 여왕이 죽자 신하들은 여왕이 말한곳에 장사지냈는데 10년이 지난후 문무왕이 여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를 세우게 되었다. 불경에 보면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했으므로 백성들은 그제서야 여왕의 신통묘용을 알수가 있었다고 한다.

자장율사를 비롯 원효 의상 원광 대안 량지 혜통 혜숙 낭지 대사등 신라를 대표하는 고승대덕 등도 선덕여왕때 활약하거나 이 시대를 발판으로 나중에 불교의 꽃을 피웠다.

인터뷰 선덕여왕숭모회 최정숙 회장

"숭고한 덕과 지혜 현대여성 본받아야"



"여왕을 단순히 숭앙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님의 숭고한 덕과 지혜를 우리 여성들이 본받았으면 해요." 제13회 선덕여왕숭모제를 봉행한 숭모회의 최정숙회장(63 · 보경화)은 다도 전문가에게 맡기던 헌다의식을 올해부터는 숭모회원들이 직접 할수 있도록 그동안 매주 한차례 다도강습을 해 왔다며 회원들의 참여열기가 어느때보다 뜨거웠다고 말했다.

최회장은 또 "신라시대 토기모양으로 다기를 바꾸고 일차대신 가루차를 사용하는등 신라문화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고심했다"며 궁중의상도 새로 고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지난 91년 발족한 선덕여왕 숭모회는 50여명의 회원모두가 여성 불교신자로 구성되어 있다.

최회장은 선덕여왕숭모제를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시켜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⑲

故 修一切善行 以爲對治
고 수일체선행 이위대치
若人修行一切善法 自然歸順眞如法故
약인수행일체선법 자연귀순진여법고

그러므로 이 한량없는 번뇌가 일체의 법에 두루 덮였으므로 온갖 선행을 닦아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니, 만약 사람이 일체의 선법을 닦고 행한다면 자연히 진여의 법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據此所論 以休歇妄心爲正
거차소론 이휴헐망심위정
修諸善法爲助 若修善時
수제선법위조 약수선시
與無心相應 不取着因果 若取因果
여무심상응 불취착인과 약취인과
便落凡夫人天
편락범부인천
報中 難證眞如 不脫生死
보중 난증진여 불탈생사
若與無心相應 乃是證眞如之方便
약여무심상응 내시증진여지방편
脫生死之要術 兼得廣大福德
탈생사지요술 겸득광대복덕
金剛般若經
금강반야경
云 須菩提 菩薩無住相布施

야 보살이 상(相)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하였는데, 요즘 세인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 겨우 개개인이 본래부터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만 스스로가 천진하다는 것만 믿고 여러가지 선행을 닦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진심에 통달하지 못할뿐 이겠는가. 도리어 게으름에 빠져 악도(惡道)를 면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생사를 벗어나겠는가. 이런 견해는 크게 그릇된 것이다.

12. 진심의 공덕(眞心功德)

或曰有心修因 不疑功德矣
혹왈유심수인 불의공덕의
無心修因 功德何來
무심수인 공덕하래

물었다. "유심(有心)으로 닦는 인(因)은 그 공덕을 의심할 것이 없지만 무심으로 닦는 인은 그 공덕이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曰有心修因 得有爲果 無心爲因
왈유심수인 득유위과 무심위인
顯性功德 此諸功德 本來自具
현성공덕 차제공덕 본래자구
妄覆不顯 今旣妄除 功德現前 故永嘉
망복불현 금기망제 공덕현전 고영가
云 三身四智體中圓 八解六通心地印
운 삼신사지체중원 팔해육통심지인
乃是體中 自具性功德也 古頌
乃是體中 自具性功德也 古頌
내시체중 자구성공덕야 고송

대답했다. "유심으로 닦는 인은 유위(有爲:영구불변의 절대적 존재인 무위의 상대어)의 과보를 얻고, 무심으로 인을 삼으면 성품(性稟)의 공덕을 나타낸다. 이러한 온갖 공덕은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으나 망심에 덮여 나타나지 못하다가 이제 이미 망심이 없어졌다면 공덕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가스님은 '삼신(三身:법신·보신·화신)과 네 가지 지혜는 진심의 본체 안에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고, 팔해탈(八解脫)과 여섯 가지 신통도 마음을 바탕해서 나타난 것이다' 하였다. 이는 곧 진심의 본체 가운데 자연히 성품의 공덕이 갖추어졌다는 것이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선법 닦을 때는 무심해야지
인과 집착하면 진여증득 어렵다

운 수보리 보살무주상보시
其福德不可思量 今見世人 有參學者
기복덕불가사량 금견세인 유참학자
纔知有箇本來佛性 乃便自恃天眞 不
재지유개본래불성 내편자시천진 불
習衆善 直只於眞心不達
습중선 직지어진심부달
亦乃翻成懈怠 惡道尙不能免
역내번성해태 악도상불능면
況脫生死 此見大錯也
황탈생사 차견대착야
황탈생사 차견대착야

이 〈기신론〉에 의한다면 망심을 쉬는 것으로 정(正)을 삼고 온갖 선법을 닦는 것으로 보조로 삼는다. 만약 선법을 닦을 때는 무심에 상응하여 인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인과에 집착하면 곧 범부나 인천(人天)의 과보에 떨어져 진여를 증득하기 어려우며, 생사를 벗어날 수 없다. 만약 무심에 상응하면 이것이 곧 진여를 증득하는 방편이며, 생사를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이니 아울러 광대한 복덕을 얻을 것이다. 〈금강반야경〉에는 '수보리

망복불현 금기망제 공덕현전 고영가
云 三身四智體中圓 八解六通心地印
운 삼신사지체중원 팔해육통심지인
乃是體中 自具性功德也 古頌
내시체중 자구성공덕야 고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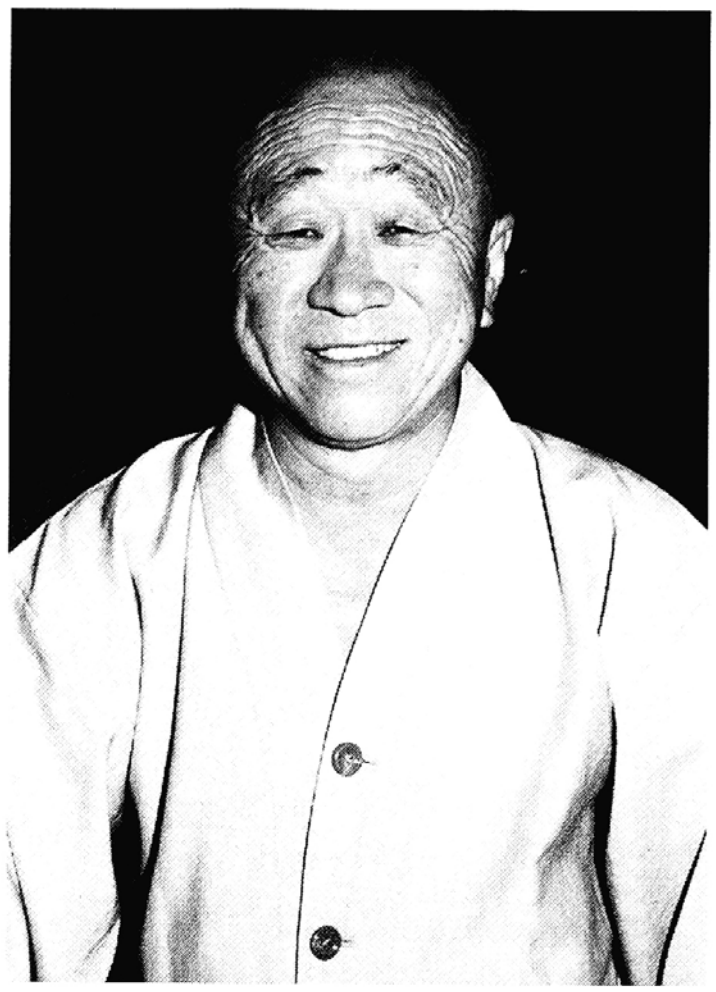
대답했다. "유심으로 닦는 인은 유위(有爲:영구불변의 절대적 존재인 무위의 상대어)의 과보를 얻고, 무심으로 인을 삼으면 성품(性稟)의 공덕을 나타낸다. 이러한 온갖 공덕은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으나 망심에 덮여 나타나지 못하다가 이제 이미 망심이 없어졌다면 공덕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가스님은 '삼신(三身:법신·보신·화신)과 네 가지 지혜는 진심의 본체 안에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고, 팔해탈(八解脫)과 여섯 가지 신통도 마음을 바탕해서 나타난 것이다' 하였다. 이는 곧 진심의 본체 가운데 자연히 성품의 공덕이 갖추어졌다는 것이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지는게 이기는 것이니

일여스님 〈대구 유심사 주석〉



예전에는 어른스님들을 뵈면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독특한 향기와도 같은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자비보살로 존경받는 고암스님 같은분은 수좌들이 찾아오면 손수 차를 끓여주시거나 방석을 내주곤 하셨어요. 또 선본사 갓바위를 방문하신적이 있었는데 절에서 차비를 드리려고 하자 "이런 골짜기에 무슨 돈이 있노?"하시며 받지 않으셨습니다.

큰스님이란 자고로 몸보다는 마음이 커야하고 마음보다는 법이 커야하는데 요즈음엔 법은 온데간데없고 목소리만 큰 것 같습니다. 큰스님 소리를 들으려면 뛰어난 법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승의 면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시는 참스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벼슬은 닭벼슬보다 못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벼슬에 집착하여 출가본분사를 잊어버리는 스님은 하루속히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범어사에서 10여년 머물면서 동산스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스님은 아주 엄격하신 분이셨습니다. 출가 전 의사이셨던 스님은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학인들이 밤중에 절에 있는 대나무밭에 들어가 죽순을 뽑아 삶아 먹은적이 있었는데 그만 동산스님께 들키고 말았습니다. 스님으로부터 된통 꾸지람을 당한것은 물론입니다.

막 자라나는 생명의 싹을 왜 자르냐는 것이었지요. 스님은 나름대로의 생활철칙을 굳게 지키셨습니다. 노후에도 아침공양후에는 꼭 빗자루로 마당을 쓸었어요. 수행도량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지러이 남아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셨던것 같습니다

또 아침예불에 빠지면 아침공양을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 1백40여명의 대중이 있었는데 예불에 빠진 사람을 꼭 집어 알아맞추곤 하셨습니다.

아침공양이 시작되면 예불에 빠진 사람을 지적하셨습니다 "ㅇㅇ스님은 예불은 올리지 않고 밥이나 축내는가?"

아주 철두철미하셨지요.

그런 스님을 못가땅하게 생각한적도 있습니다. 스님을 근 3년간 시봉하게 됐는데 하루는 스님이 신으시던 나일론 양말에 탐심이 동했습니다. 당시에는 나일론 양말이 아주 귀하던 시절이라 어린 마음에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겼던것입니다. 그래 "신던 것을 주십사"고 했는데 호통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야속하고 서럽기만 했습니다.

"무슨 어른이 시봉하는 제자한테 양말 한컬레도 안주나" 이런 생각에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했지요. 세월이 흘러 제자를 두는 나이가 되고 보니 그때 그 스승의 가르침이 가슴에 사무치기만 합니다.

오늘날 권력다툼하는 스님네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미계 비구계는 온데간데 없고 물욕과 감투욕에눈이 멀어 업을 예사로 짓고 있어요.

5~60년대 까지만 해도 수행도인들이 있어서 천리길을 마다않고 찾아 다니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빈 사찰도 더러 있었고 도반들도 많았습니다.

요즈음은 도인들은 없고 중 껍데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그렇게 많을 필요도, 호화로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 사장도 탈수 있는 차는 한대 뿐이잖습니까? 몸이 하난데 동시에 2대를 어떻게 타겠습니까? 수많은 빌딩과 호텔을 소유한 사람도 잠자는 방은 단 한칸 뿐입니다. 왠 욕심들이 그리 많습니까?

약
- 1930년 황해도 신계 生

력
- 1959년 범어사에서 지흐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61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문경 혜국사, 선산 원각사, 상주포교당 주지 역임
- 現 대구 유심사 주석

"웬 욕심이 그리 많습니까 남과 비교하는 분별심 놓고 분수에 맞게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분별심을 놓고 과연 내 분수에 맞는 길이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해본다면 해답이 나옵니다.

현대인들은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욕심에 차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물질로만 기준을 삼는다면 마음은 늘 불만족스럽고 힘든 상태에 놓이게됩니다.

재물은 들어올 때 바쁘고 나갈 때도 바쁩니다. 평생 허겁지겁 바쁘게 살다가 공부는 언제 돌아봅니까?

처자식도 자기 복대로 살게 마련입니다. 혹시 엇길로 잘못 나가지 않도록 보살펴 주는 것일뿐 복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처자식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도 놓아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이나 부부관계도 이제는 예전의 틀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즉 남자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든지, 부모는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주어야 한다든지 하는 관념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간의 관계를 다소 수직적인 것으로 규정짓는 이러한 관념들은 이제 전체의 일부분으로 국한시켜야하며 대신 서로간의 관계를 수평적 동반자 관계, 내지는 수행도반으로서의 관계라는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대화가 중요로운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할것입니다.

복(福)은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 복은 재벌들이 다 사갈겁니다. 우리 절에는 10년넘게 나오는 신도들이 많습니다. 다들 부담없이 왔다가 기도하고 갑니다. 서르 내집같이 가족같이 지내다보니 허물이 별로 없어요. 가급적 절문턱을 낮추어 편하게 출입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신제품
걸 망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걸망을 매세요.



♣ 좋은점 6가지 ♣
- 때가 묻지 않습니다.
- 방수가 잘 됩니다.
- 八正道를 마크로 사용했습니다.
- 주머니 사용이 무척 편리합니다.
- 大, 小 구분으로 체형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 안감은 卍자로 佛心을 담았습니다.

가격
大: ₩33,000 / 小: ₩30,000

서울·경기 5개이상 주문하시면 직접 배달
온라인구좌 농 협
061-17-001230 예금주(주)천화무역
전화주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 본 걸망은 小白山 金剛寺 (0572)636-6546 노스님 선방건립을 후원합니다.

노스님의 근심
- 늙은 것이 서럽습니다.
- 노후보장 되어야 수행, 포교 전념할 텐데
- 평생 수행에만 전념해온 스님들은 노후에 의탁할 곳이 없는데
- 문중도 사제도 돈도 없기 때문에 갈곳이 없는데

불자들의 모임
공급처:(주)천화무역 전화 : 02)449-8844

활법 자격취득.창업.부업

♦ 특허청등록획득 ♦
1. 활법을 이용한 척추지압업
2. 활법을 이용한 체육교정업
3. 활법을 이용한 자세교정업
4. 활법을 이용한 자연건강업
5. 활법을 이용한 체육교육업
6. 활법을 이용한 기공업
7. 활법원 경영업
8. 활법기술지도업
9. 활법원 체인점업

♦ 교 육 안 내 ♦
교육기간:4박5일(매주월요일 오후 2시 시작, 금요일 정오 수료식),숙성반 능력에 따라 단축 및 연장 가능
10주 코스반(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준비물: 1. 교육비 및 회비와 사진 10매

♦ 특 전
1. 법개정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활법원 및 발관리센타를 운영할 수 있슴. 2. 교육수료자는 "세계공인활법사 5단증, 스포츠 맛사지사, 카이로프락틱사 자격증, 운동회복사 자격증, 기공사 자격증, 발관리사 자격증과 소자격증"을 부여

스님·포교원운영자·물리치료사·재여침구사·목사·대체의학연구자·발관리사·피부미용관리자



경추 1~7번: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안성피로, 편두통, 뒷골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기 뻣뻣함

흉추 1~12번:
심장, 폐, 간장, 담노, 위장질환, 신장, 불임병

요추 1~5번:
요통, 하지순환불량, 좌골신경통, 하복부통증

선추, 미추
생식기계통, 정력증강

♦ 교 육 내 용 ♦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태국, 일본식)
4. 카이로프락틱교육(짝다리교정법,즉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발관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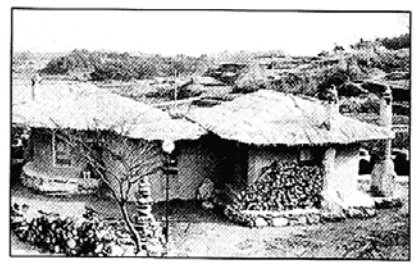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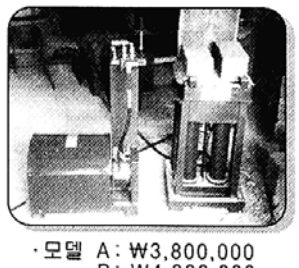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법인
사단법인 건강생활복지협회
특허등록 제49831호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 0571)855-6461/859-4156, 휴 : 011)522-1122
인터넷 : http://www.hwalbup.or.kr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앤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큰스님 수행한담

성내지 말고 사세요”



◇1961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를 수지하고 기념촬영했다. 앉은 스님은 왼쪽에서 세번째부터 청담 동산 석암 스님이며, 서있는 스님 앞에서 둘째줄 오른쪽 끝이 일여스님이다.

일마다 부처님께 공양올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살면 현재처한 그곳이 부처님 자리

“만족할줄 알면 행복, 만족모르면 불행”
“망상의 구름만 걷어내면 태양 만나요”

속가 고향이 황해도 신계인데 고등학교 재학중에 6.25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남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 사람은 전부 죽인다는 소문이 돌아 그때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와서 중앙상고에 입학해서 졸업을 하고 해병대를 지원했는데 제대후 얼마있다가 대구 앞산에 있는 안일사로 들어 갔습니다. 전쟁도 겪고 부모와도 생이별을 한데다 인생살이가 결국 죽으면 한줌 흙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미치자 허무함이 절절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것도 주관적인것일 뿐 모든 행복도 죽음앞에서는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바에야 출가해서 공부하면 잘되면 깨달음을 얻을것이요, 못되도 공부하다가 죽으면 나자신에게 떳떳할 것 같았습니다.

안일사에 가니 범어사 도감자리를 광개치고 떠나온 무진장스님(당시 혜명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의 소개로 범어사로 가던 도중 완행열차 안에서 기중이 당당한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꾸벅하며 범어사로 간다고 했더니 자신을 따라가자고 하셔요. 나중에 알고보니 그 유명한 청담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따라 옥천을 거쳐 고성 운흥사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1년동안 행자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운흥사에는 비구니스님이 사시는 천진암과 비구스님이 거쳐하는 낙사암이 있었는데 낙사암에는 범어사출신의 한 노장스님만이 홀로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청담스님은 나를 그 스님한테 보냈는데, 그 노장스님은 제자를 거두지 않는다면서 다시 범어사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래저래 나는 범어사와 인연이 있었던게지요.

당시 범어사 금오선원은 일타 서암 도우 성철 서옹 지효스님 같은 쟁쟁한분들이 공부를 하신 도량입니다.

범어사에서는 가끔 야식으로 국수를 삶아먹었습니다. 간식종류가 많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국수나 감자는 아주 별미에 속했습니다. 양념을 넣어 후루룩 먹다보면 먹는건지 마시는건지 눈깜짝할 사이에 그릇바닥이 보이곤 했습니다. 많은 양의 국수를 삶다보니 퍼지기가 일쑤였는데 하루는 너무 불어터져서 떡처럼 된적이 있었습니다. 동산스님이 다시 삶으라고 엄명을 내렸어요. 내가 나가서 삶았되었는데 누가봐도 아주 알맞게 잘 삶겼던것 같습니다. 대중공양이 끝나고 동산스님께서 “국수, 누가 삶았노?”하시길래 “제가 삶았습니다”했더니 “그래, 매사 그렇게 지나치지도 말고 모자람도 없이 하되 항상 정성을 다해야된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로 국수 삶는 일은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산스님은 말없는 가운데 가르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제자들을 보살폈습니다. 하루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노니 나와 남의 마음이 둘이 아니로다”는 내용의 활구(活句)를 나 몰래 책상머리에 붙여 놓으시는 자상함을 보이셨습니다.

나는 신도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니 성내지 말고 마음편하게 사십시오.” 또는 “ 현실에 만족할줄알면 그 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삶은 환희로운것임을 잊지마세요”

작은 것에 만족할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가지지 못한자나 패배자의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에도 만족할수 없습니다. 작고 크다는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돌이켜보면 금방입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고희를 넘겼는데 도무지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분수껏 살면서 자성의 근본 마음자리를 밝히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를 위해서 꼭 출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뚜렷한 신념을 가지지 않은채 입산하면 오히려 재가에 있음만 못합니다.

중국의 3조 승찬스님이 쓰신 〈신심명(信心銘)〉에 보면 막축유연(莫逐有緣)하고 물주공인(勿住空忍)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연이 있다는 말은 곧 세간법을 의미하는데 인연으로 이뤄진 세상일이라는 뜻입니다. 공의 지혜(空忍)란 곧 출세간법이라는 뜻입니다. 인연이 있는 세상일도 좇아가지 말고 출세간법에도 머물지 말아야 하니 어느 한쪽에 머무는 것은 다 병이기 때문입니다.

즉 있음에 머물러도 병이고 공함에 머물러도 병이라는 뜻입니다.

〈신심명〉에는 또 누구든지 깨치려면 진여본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망령된 견해를 쉬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빛나듯 태양을 따로 찾으려 하지말고 망상의 구름만 걷어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체중생은 부처님과 같이 자성청정한 진여본성을 다 갖추고 있어서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여자성을 보지 못하는 까닭도 망견이 앞을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이니 망견만 쉬어버리면 진여자성을 달리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견이란 곧 두가지의 견해, 즉 선악 시비 증애 등의 분별심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혹자는 둘은 버리고 하나는 취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종국에는 이 하나마저도 놓아 버려야합니다. 두가지 견해를 떠나서 중도를 취했다 하더라도 중도에 집착하게 되면 이것도 병이 됩니다.그러므로 한생각도 나지 않으면 만법이 원융무애하여 아무 허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보이는 경계마다 둘 아닌 것으로 보고 지금 자신이 하고있는 일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가짐(處處佛性 事事佛供)으로 생활하면서, 머무르는곳마다 마음의 주장자를 세워 탐진치에 속지않고 흔들림이 없으면 현재 처한 그곳이 바로 부처님 자리가 될것입니다.(隨處作主 立處皆眞)

생사관문을 넘어서야 비로소 세상일에 끄달리지 않고 부닥치는 경계속에서 여여(如如)해질수 있으니 진외한인(塵外閑人)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아는 것이지만 불심(佛心)은 곧 그 가르침이 체화되어 행(行)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시절인연에 따라 흔들려도 불심의 근본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수행자는 모름지기 법을 등불로 삼아 고독하게 그러나 꿋꿋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법난이 일어나고 종단이 흔들린다고 해서 덩달아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늘 더불어 있는 불심은 여여한 법이니 자기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아 부동심으로 정진하세요.

정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배금자 〈변호사〉

〈上〉

마음공부 시작 나쁜 ‘습’ 하나씩 제거
인과의 무서움-윤회의 철칙 실감

내 속에 참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과 4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1996년 1월 나는 변호사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 유학 길에 올랐다. 그 무렵 나는 동료 변호사의 소개로 안양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을 친견할 기회를 가졌다. 그때 비로소 ‘참나’의 존재, 내 몸과 현재 의식은 ‘가짜 나’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나에게 놓는 관법을 통해 내게 닥친 일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이 나인 줄 알고, 보이는 현상계만 전부인줄 알고 살던 내가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깨닫고, 내 안의 참나를 찾는 진실된 불법의 길을 걷게 되었다.

미국생활 3년동안 우리 가족은 한마음선원 워싱턴지원에 다니면서 마음공부에 매진하여 정신적인 생활의 틀을 다졌다. 내가 하바드 로스쿨을 다니느라 보스톤에서 생활하고, 남편은 워싱턴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아들을 돌보며 있는 동안, IMF위기가 터졌다. 힘든상황이 많았지만 마음공부로 극복했다. 우리는 정신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생활했기 때문에, 물건 사는데 관심이 없었고 골프도 안쳤다. 오직 일요일에 절에 열심히 다녔다.

또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에도, 미워하지 않고, 내탓이려니 하며 극복하였는데, 이는 마음공부 덕분이었다. 내게 닥친 모든 경계를 나를 단련시키려는 참나의 가르침으로 알고, 모든 것을 참나에게 맡기고 의연하게 견뎌냈다.

마음공부에 열심히 정진하기 시작한 후부터, 참나가 나를 이끌고 간다는 체험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땅 깊숙히 박힌 쓰레기를 파내며 청소를 하는 꿈을 꾸곤 했다. 쓰레기를 줍는 꿈이 반복되던 어느 날 나는 화장터의 간수가 되어, 시체를 아궁이에 집어넣어 태우는 꿈을 꾸었다. 내가 만들어 낸 쓰레기(業)를 청소하는 작업을 참나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 번은 방송국의 카메라 맨이 높은 언덕에서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촬영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카메라 맨이 하는 말이 촬영한 테잎은 다음에 방송으로 내 보낸다는 것이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 그 모든 것은 어김없이 우주에 기록되어, 운명을 만들고, 나는 그 결과를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받는다는 인과의 법칙을 참나가 보여 주었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꿈과 현실이 둘이 아니라는 것도 실감했다.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과의 무서움과 윤회의 철칙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생각 하나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안 좋은 생각이 날 때마다 참나에게 돌리고 좋은 생각을 나게 하는 작업을 되풀이하였다. 마음 공부의 정진에서 가장 힘든 것은, 나쁜 ‘습’을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이었다. 정말로 ‘습’이란 내가 전생에 수없는 윤회를 거듭하면서 갖고 나온 것이어서, 뿌리가 깊고 질기기가 삼줄과 같아서, 좀처럼 뿌리채 뽑아버리기 힘든 ‘업력’의 작용이 있는 것 같았다.

하바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동국대에서 교환교수로 하바드 신학대에 오신 현각스님을 만났다. 나는 학교공부에 너무 바빠 절에 갈 시간이 없어서, 혼자서 아침마다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을 읽고, 참선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기간에 현각스님이 보스톤에 오신 것은 나로서는 참나가 인도한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마운 일이었다. 불교이론에 관한 의증이 생길 때 현각스님께 여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공부하느라 무척 바빴지만 서양세계에 불교를 널리 전파한 달라이라마가 보스톤에 왔을 때, 현각스님과 함께 그 법회에 참석했다.

이 법회에는 미국 지식층 백인들 약 7천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룬 것을 보고, 미국의 지식층 사이에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속〉

아미타 부처님을 신행하는 정토불교강좌(3년과정)

’99학년도 아미타정토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무량광 무량수인 아미타부처님의 가피력과 위신력을 신행하는 정토행자를 양성하고자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정토법사 3년 과정의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 교과목 및 교수

교과목	인도정토사·중국정토사·한국정토사·연종집요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왕생론· 반주삼매경·무량수경종요·보왕삼매론· 미타예참법·염불요문·염불의례·정토미술	교수진	한보광스님(동국대)·장휘옥교수(동국대) 최봉수교수(동국대)·태 원스님(승가대) 주명철교수(동국대)·정태혁교수(동국대) 강동균교수(동아대)·김영미교수(이화대) 혜 경스님(무설정사)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5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99년 4월 10일~ 99년 5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일시

1999년 6월 3일 (목) 오후 7시(동산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 02-732-1217, FAX 732-1207)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 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대 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광 주 : 불일서점 ☎ 062)232-7542
■ 부 산 : 불서보급사 ☎ 051)246-4321
■ 대 전 : 보문서점 ☎ 042)257-0161
■ 제 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이수한 자는 졸업장 수여.
○ 졸업자는 소정의 고시를 거쳐 정토염불법사 수여

전국염불만일회 아미타정토대학

佛教大辭典

불교사전의 금자탑 ! 불교대사전 출간 !

最多語彙·最新譯解·最善編輯

제작기간 10년, 기존의 불교사전과 전혀 다른, 고대에서 현대까지 불교의 핵심적인 용어 6만3천여개를 선정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평이하게 현대적 어휘로 표현하였다.

최고급양장/크라운판 上·下 3,600면/정가220,000원

불교를 바로 알고 싶습니까!

절에 10년을 다녀도,
날마다 법문을 들어도,
부처님의 정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교 대사전』을 보십시오.
부처님의 세상이 보입니다.

불교대사전 정가 220,000원
밀교사전 70,000원 (주문가230,000원)

♣. 신한은행:324-12-407937
♣. 농 협:053-01-102503 (예금주:김정길)

도서출판 홍법원 · 서울 종로구 견지동 55-2 TEL(02)734-7614, 739-8745, 팩스735-2344

약물·폭력·性 탈선 심각…멍드는 '푸른 꿈'

2000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
5

흔들리는
청소년

세기말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그리 행복하지 못하다. 그들은 학교와 집 그리고 거리에서 '경쟁에서 승리한 우등생'이 되라고 끊임없이 시달리고 강요당하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고독하고 소외된 존재'로 생각한다. 그들은 또 자신들만의 공간을 갖지 못한 채 비디오방, 노래방, 게임방을 전전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시간마저도 침식당한다. 그들은 항상 방황하고 있다. 심각한 욕구불만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결국 꿈과 개성을 펼칠 공간과 시간을 누리지 못한 청소년들은 약물, 매춘, 폭력과 같은 인생의 막차를 주저없이 탄다.

만약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투어 막차 탄 청소년을 본다면, 외아들 라훌라(Rahula)를 생각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타인들을 라훌라처럼 여겨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불교는 이제 라훌라, 즉 청소년을 찾아 나서야 한다. 우리 스스로 선재동자의 53 스승의 행렬에 기꺼이 동참해야 한다.

기획취재팀
정성은 차장
한명우 기자
김재경 기자
오종욱 기자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궁지에 몰린 청소년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심리와 행동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 콜로라도주 콜럼바인고교와 캐나다 앨버트주 마이어스고교에서 총을 난사한 학생들의 공통점은 학교에서 하나같이 '왕따(real loser)'로 통했다는 것. 이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학생들도 "범인이 괴로워 죽겠다고 털어 놓았으며 친구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유마경〉에서 유마힐 거사는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고 말했다. 불교적 세계관인 인드라망에서 하나의 잘못은 곧바로 다른 잘못으로 이어진다. 청소년이 앓고 있다면 전 사회가 앓고 있는 것이다.

왕따 · 총기난사 '사회문제'

교계 청소년 월간지 〈속삭임〉(1월호)에서 전국 539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 경험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등을 설문조사한 적이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흡연청소년은 26.3%인 142명으로 4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원인을 묻는 질문에 스트레스와 우울함이 4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또 전체 흡연 청소년 가운데 92%가 초·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의 권유나 스스로의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했다고 조사됐다.



◇지난달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콜로라도주 덴버시 컬럼비아 고등학교 밖에서 구조요원들이 부상한 학생들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있다. 현지 경찰은 학생과 교사등 최소 25명이 사망했으며, 학내 불량써클인 '트렌치코트' 소행으로 발표했다.

가정 학교 사회의 지도 · 통제기능 약화
범죄 연령 매년 낮아져…이해와 관심 절실
"선재동자 구도 · 계정혜 가르침 교화 지침 삼자"

청소년 폭력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흉폭화, 상습화, 집단화,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의 자료 '1998년 청소년 범죄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폭행·상해·공갈 등의 폭력범이 36.5%, 절도·횡령·사기 등의 재산범이 25.4%, 살인·강도·강간 등의 강력범이 4.2%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5세 이하의 청소년 범죄가 1989년 18.4%이던 것이 1998년에는 32%로 약14% 높아진 반면에 18~19세의 청소년 범죄는 1989년 49.2%에서 1998년 43.2%로 낮아져 청소년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청소년 폭력의 원인을 사회환경에서 청소년들의 충동성과 일탈행위를 조장하는 요소가 증가하고, 가정과 학교의 청소년 지도기능과 사회의 통제기능이 약화된 것에서 찾고 있다.

그렇다면 세기말 청소년의 초상은 오직 절망적이기만 한 것인가? '춤꾼 모범생'으로 주목받고 있는 장길운(19·전북 전주고) 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가닥 희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장군은 전북지역에서 열린 각종 청소년 댄스경연대회에서 상을 휩쓴 전주고 춤 동아리 '엘프(개구쟁이)'의 리더다. 장군이 '춤=탈선'이라 사회적 통념을 깨고 모범생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전주고 황기연교장과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서 비롯됐다. 황교장은 엘프의 춤 연습을 지켜보고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되고 실력이 뛰어나다"며 건전 동아리로 지정했고, 문화관광부는 장군을 '신지식인' 청소년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건전한 인성교육 급선무

'신지식인'이란 정부가 찾아 나선 위기극복의 새로운 인간형으로, 기존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새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사람을 지칭한다. 따라서 신지식인은 고급지식을 가진 사람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중국음식점 배달원, 과출부, 건물청소원도 신지식인 대열에 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장길운군은 대학에서 한국무용을 전공, '우리 춤'의 대중화를 꾀하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키우고 있다. 한낱 뒷골목 춤꾼으로 전락할 수 있었던 장군이 이제 무용가로서 21세기의 무대를 서겠다는 것이다. 제도적 장치란 바로 '이해'와 '관심'이다.

〈속삭임〉을 발행하고 있는 덕진스님도 청소년 문제 해결방안으로 '청소년이 즐길만한 놀이문화공간의 확충'을 필수조건으로 지적했다.

경전에서 청소년은 동자(kumara)로 등장하며, 구도자의 상징이자 희망찬 역할을 담당한다. 석가모니의 전신도 설산동자(雪山童子)였다. 〈열반경〉에서 설산동자가 한 귀절의 법을 듣기 위하여 제 몸을 벼랑에 던져 나찰에게 공양한 일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이다. 구도상은 씨앗이 되어 설산동자는 마침내 성불하였다. 여기에서 동자(청소년)는 곧 '부처의 씨앗'이라는 관계가 성립되고, 이러한 생각은 동진불(童眞佛) 즉, 청소년은 부처라는 이상으로 꽃피어 갔다. 〈화엄경〉에서도 선재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만나며, 깨달음을 증득해 나아간다.

지금의 불교교육학자들이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에서 청소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다. 설산동자와 선재동자가 깨달은 것이 바로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계),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정), 진리를 찾는 방법(혜)이었기 때문이다.

또 선재동자의 스승이었던 다양한 인물에서 기성세대의 역할이 무엇이 돼야 할 것인가에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배워야 한다. '청소년 교화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며 사양하는 이가 있다면, 바로 그 때문에 이 시대의 선재동자가 길을 잃고 네거리에서 울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김종서박사(교육학)는 "청소년은 도덕적 위기의 조성자가 아니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청소년 스스로 체험하고 탐구하도록 우리는 좋은 벗이 되어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청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소년범죄자 인원	14세미만		14세~15세		16세~17세		18세~19세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1993	110,604	2,307	2.1	23,290	21.1	37,176	33.6	47,831	43.2
1994	108,342	3,000	2.8	25,424	23.5	37,418	34.5	42,500	39.2
1995	124,244	2,551	2.1	32,352	26.0	45,707	36.8	43,634	35.1
1996	146,986	4,660	3.2	38,084	25.9	53,130	36.1	51,112	34.8
1997	164,182	4,093	2.5	42,786	26.1	61,622	37.5	55,681	33.9

*문화관광부 발간 〈청소년 백서〉 (1998)

청소년지도사 현황

3000명중 교계 60~70명
'부처 씨앗' 교화 말뿐

최근 학교, 사찰 불교학생회 등 청소년들의 신행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이들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지도사마저 크게 부족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지난 해 실시한 청소년 지도사 자격 검정시험 결과발표에 따르면 불교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1급이 8명, 2·3급 모두 포함해 40명을 넘지 못했다.

전체 결과에서 1급 합격자가 137명, 2·3급 합격자를 포함해 610명의 새로운 청소년 지도사가 배출된 것을 감안하면 불교계의 지도사 외면 풍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16개의 자원봉사센터 가운데 불교계가 운영하는 곳은 청소년교화연합회 대전지부(지부장 종실스님)와 충남지부(지부장 성관스님) 2곳 뿐이며, 3,000여 명의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유자 가운데에서 불교계가 확보하고 있는 인원은 60~70여 명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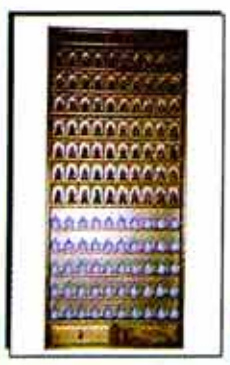
이러한 전문 지도사의 부족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사찰의 경우에 있어선 불교학생회의 존립 문제와 연결돼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 포교지인 〈법보〉(발행인 정완석)의 조사에 따르면 98년 12월까지 사찰불교학생회 318개, 학교내 불교반 216개 등 총 534개의 불교학생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경우 지도교사가 불교반을 이끌고 있어 담당교사의 '전근 문제'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찰 불교학생회의 경우 지도 법사가 없는 곳이 의외로 많아 청소년 법회가 사라지거나 친목단체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지도사가 부족한 원인은 교계의 풍토에서 찾을 수 있다. 자격증이 있더라도 청소년 단체에서 일하지 않고는 별다른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종단이나 사찰에서 전문 지도사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더욱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일정 기간 연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소속 불교단체의 시간적·심리적 배려가 뒤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청소년 지도사가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 재활용 재질 사용
연등규격(지름) :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실크등, 공단등

◀연꽃잎 제조 특허 연등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조립 팔모등) (원 통 등) (차걸이등) (연 등)
◐ T자형 전선 제작, 판매합니다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인 등
※각종 인등도 주문제작합니다.
※천불전 조성합니다.
■찬덕연등 장엄사찰
조계사(서 울) 용주사(화성군) 금산사(김제) 선본사(팔공산)
동화사(팔공산) 갓바위(팔공산) 약천사(제주) 봉선사(남양주)
운주사(화순군) 그외다수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T자형 케이블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 원하시는 사찰에는 견본등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 장엄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등개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제작 및 설치문의
☎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합장

최고의 제품으로 사찰을 전산화시켜 드립니다.
WINDOWS 95, 98, NT용
상황사찰종무관리 1999 VER 5.0
· 한번 입력으로 신도, 영가, 법회, 제사 일괄관리
· 축원, 천혼문, 연등꼬리표, 위패, 라벨, 엽서, 규격봉투, 신문띠지 등 연속 및 낱장용지 인쇄가능
· 각종 신도회를 보조하는 검색 기능
· 신도들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구역법회 조직 가능
· Y2K 문제 해결
· 업계 최고의 제품으로써 가장 저렴한 가격
· 타사 제품을 본사 제품으로 바꿀시에는 무료로 데이터를 변환 시켜 드립니다.
· 부처님 오신날 전까지 특별 할인가 40만원
· 부처님 오신날 이후에는 정가 70만원
02)998-6026
대한불교 정토회 전산사업부

능엄경 연찬 강독 및 통신 강좌
능엄선회에서는 매달 4째주 일요일오전10시~오후5시에 불공삼장역 개운조사 주 정본 수 능엄경을 가지고 연찬 강독을 하고 있다. 강독회에 참석 할 수 없는 분을 위해서 1권부터 통신 강좌도 시작한다.
• 연찬 및 통신 강좌 회비
6개월(1학기) 90,000원
• 문의 및 연락처
TEL 053)473-6700,0880, 473-0880
FAX 053)472-1752 H.P 016-543-5114
온라인 국민은행 615-21-0742-234 임상수
705-923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639-2
능 엄 선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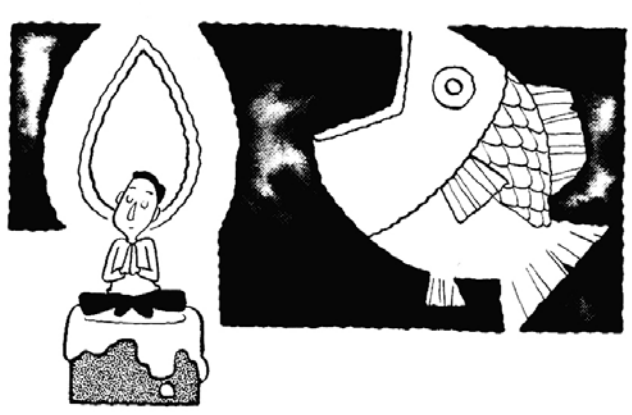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잘했던 잘못했던 내가 있으니 모두 '내탓'


그림 · 최주현

업보성 끊는게 아니라 놓아서 녹여야죠
꽃하나 놓는것도 자기마음 갖다 놓는셈

우리가 왜 부처님 법을 배우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부처님 법이기 이전에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 진리를 참구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그 자체를 부처님께서 설파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자기 완성 때문에. 각자 자기 완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지 뭣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우리는 자기 완성 하기에 급급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까지 진화돼서 올라왔으니까 인제는 더 볼 나위없이 부처님의 그 뜻과 진리를 생각할 때에 그 가운데서 나를 먼저, 나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떨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그걸 떠나서 자기 완성을 하면 그것은 겁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게. 먹고 사는 거라든가 안 되고 되는 거라든가 하늘이 무너진다든가 세상이 발칵 뒤집힌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 겁니다. 자기 완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말로는 어떻게 좋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도 뒷받침을 잘 해주지 못한 채 또 배우는 사람도 자기의 근본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법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기복으로만 항상 빌고 다녔기 때문에 도대체 자기를 벗어날 길은 천야만야하다는 얘기죠.

옛날에도 그랬지마는 선지식들이 1년에 한 번씩 육법공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거의 선지식들이 너무 앨 쓰신 것 같애요. 그랬건만도 그 뜻을 못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뜻을 못받들고 있다는 얘깁니다.

첫째 우리가 촛불을 켜놓을 때 어떠한 심정으로 촛불을 켜는지 그것조차도 잘 알지 돗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불을 켜놓을 때는 주인공에다가, 오직 한군데다가 몰입을 해서 거기 놓아라. 잘된 거든 잘못된 거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놓고 또 거기에서만이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 전부 놔라. 일거수일투족 다 놔라. 이랬죠. 그것이 바로 저 촛불 켜는 거와 같습니다. 촛불을 켜면은 불은 밝게 켜지고 초는 닳습니다. 녹습니다. 녹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녹는다는 것은 바로 이 몸 속에 들은 모든 인과성, 유전성, 업보성, 영계성 또는 세균성, 이 다섯 가지의 문제를 다 몸으로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놓지 않으면 녹지를 않아요. 절대로 끊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칼로 베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촛불을 켜놓을 때는 진짜 그 마음의 불을 켜서 내 몸과 같은 초가 다 녹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불도 없고 초도 없죠? 그 도리를 알면은 바로 깨우친 겁니다. 초도 없고 불도 없다,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예전에는 '할!' 하기도 하고 '부처가 어딨습니까?' 하면 주장자로다 치고 또는 '부처가 어딨습니까, 부처님 법은 어떤 겁니까?' 해도 손가락 하나를 들었고, '인도에서 달마스님이 동쪽으로 온 뜻은 뭡니까?' 해도 '저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방편상, 내던지신 말들이 전부 생사를 갈라내는, 파괴하는, 생사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함이 없는 말씀을 모두 해놓으셨거든요.

촛불의 초가 다 녹아
초도 없고 불도 없는
도리 알아야
깨우친 겁니다

똥뒷간에 가다가 물으면은 '똥 친 막대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이 그 일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누가 아느냐는 얘깁니다. 남전스님이 왜 고양이를 죽였을까? 조주스님은 또 왜 머리 위에다 신발을 얹고서 나갔을까 이런 등등 말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은 그건 정말 부처 아닌 부처가 돼서 그 마음이 일체 보살이 돼서 허공에 꽉 찰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요만한 거 가지고 시비를 하고 요만한 거 가지고 싸우고 요만한 거 가지고 응어리가 지고, 요만한 거 가지고 은통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니, 그래 세상을 움켜쥐겠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가정 한도량도 화합을 못 시켜서 이혼을 하느니 죽이니 살리니 하니 그렇게 해서야 어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상대방에서 그렇게 하게 하니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놓지 못하는 까닭에 그런 일이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엔 다기물을 올립니다. 다기물을 놓되, 그 물은 우리 마음의 모든 오욕을 다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청수로서 대응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한 다기물을 한 바다로 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거기다 놓고 간다면 핏물, 고름물, 흙탕물, 또 땅 속에서 흐르는 물 등 전부 모여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한군데다가 몰입해서 놔라, 이러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면 바다를 이룬다. 그 바다의 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수증기로 올라가서 정화를 해서 다시 내린다. 다시 내릴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만한 벌레 하나, 풀 하나도 안 먹는 게 없으니 그것이 바로 평등공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기물 한 그릇 놓는 것도 어마어마한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다기를 한 그릇을 올리지는 그 마음의 생수라는 것은 스스로서 항상 자기 마음의 오욕을 씻어내고 욕심과 집착을 씻어내고 이러면서 다기물을 올려놨을 때는 그것이 바닷물을 이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살행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면서 보살로 화하고 응신으로 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에게 다 이익이 가게끔 무주상 보시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또 향을 피웁니다. 보통 하나 아니면 세 개를 꽂는데 갯수가 문제가 아니겠죠. 그 뜻을 알아야죠. 향을 피우는 그 뜻은 양식이라고 합니다. 왜 양식이 되느냐. 향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모두 그 마음의 향이 있으면 언제나 배가 부르다는 얘깁니다. 배가 고프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양식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공식이 된다는 얘기죠.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공식이 된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정돈이 돼서 항상 향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세 개를 꽂는 이유는 한 꼬비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한 개가 되는 까닭입니다. 이 세상은 초월돼서 공해서 돌아가니깐 말입니다. 그러니까 갯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삼세가 일체가 되고 일체가 삼세가 되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삼세를 한꺼번에 일체로 만들어서 놓는 게 한 개를 놓는 것이 되니 결국 세 개가 한 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자재한 겁니다. 그러니 과거생이나 현재생이나 미래생이나 모든 게 한데 합쳐져서 대천세계가 전부 그 향내를 말고 다 배가 부르단 얘기죠.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그렇게 공식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 향 한 개만 꽂아놔도 죽은 영가들을 다 천도를 시키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꽃공양을 올리죠. 꽃공양을 올리는데 꽃공양은 우리의 마음의 꽃입니다. 꽃 이파리가 지면 열매가 열리죠. 그래서 꽃과 과일은 항상 짝을 이룹니다. 꽃이 피면은 열매가 맺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제 나무에서 꽃이 피고 제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면, 이건 자기 자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나무에서 꽃이 피어서, 자기 마음의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다면 또 그 열매가 제 나무에서 무르익는다면 일체 천차만별의 중생들이 다 먹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꽃 하나 놓는 것도 자기 마음을 갖다 놓는 거지 딴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공양을 놓는다' 이러죠? 공양을 놓는다, 제사지낼 때도 떡을 하나 둥그렇게 해놓죠? 그건 우주삼세를 전부 한데 합친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보면 삼세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삼세가 다 연결이 돼 있다구요. 과거가 있으면 미래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돌아가니까 어떠한 연관성이 있어서 보면은 꼭 삼세가 이렇게 엉켜져 있거든요. 그러니 삼세가 다 엉켜져 있는 그걸 끊어야만이 어떠한 병이라도 예를 들어 암이라 할지라도 그 악성이 없어지고 수술해도 그냥 나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게 참, 연관성이라는 게 아주 극치적이기도 하고 이거는 원인없이는 결과가 없다는 얘기죠. 모두가 그래요. 에누리 없어요, 아주. 그러니 이 도리를, 이 공양한 그릇 놓는 것도 닥치는 대로 먹어라 이 소립니다. 닥치는 대로 맛있게 먹어라, 이 말은 밥먹는 걸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 하나 닥치는 대로 가는 거 잡지 말고 오는 거 마다하지 말고 먹어치워라 이겁니다.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 이럴때도 이걸 내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다 넣어서 '어떡하면 잘 되게 할 수 있나' 하고 녹일 생각을 하세요. 녹이는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힘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놓지 못합니까. 나를 보디가드 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수억겁 전생에서부터 진화시키고 형성시켜온 장본인인데 왜 거기다 놓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까? 다 거기다 놓고 믿고 이렇게 하면 어떠한 거든지 녹일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강에 갖다 고기 띄우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 방생이요? 나는 방생이라는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또 배우네요, 방생을 하는 것도 이건 스스로 방생이 돼야지, 강제성을 띠고선 그걸 사다가 강에다 놓으면 그건 나중에 다 죽고 몇 마리 살지 못해요. 그걸 얘기해 볼까요? 일제시대때 사람이 징용을 나갔는데 8. 15해방이 되니까 전부 내보냈어요. 그러니깐 그냥 자기 집 찾아가느라고 갈팡질팡 하다가 급하니까 차 위에도 올라타고 그러다가 떨어져 죽고 밟혀 죽고 밀쳐서 죽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삼분지 일은 된단 말입니다. 그건 직접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갖다가 넣어도 자기 있는 자리, 자기가 살 수 있는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16

남이 주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

해 달라고 하면 벌써 둘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빌어 본들 공덕이 없다.

수만 냥을 내고 불을 켜도 만약 그것이 기복이라면 공덕이 하나도 없고 불을 켠 일도 없다.

내가 농사짓고 부지런히 뛰어서 내 밥을 내가 지어 먹는 것이다. 누가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계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지 깡통 들고 다니면서 도와 달라고 해 보았자 채워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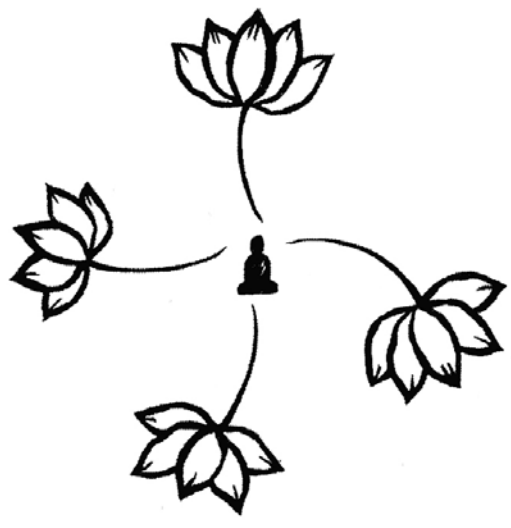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답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다. 육신은 의사와 병원에 의지하고, 가난은 남의 도움에 기대어 해결하려 하고, 운명은 사주 관상쟁이에게 묻고,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하는 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방편이 될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옷이 날개라고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옷이 내 몸이 될 수는 없듯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방책이라도 나 아닌 곳에서 찾은 것은 참 해결책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자신 속에서 병원을, 의사를, 해결책과 치유책을 찾아야 한다. 밖으로 돌면 무한한 내면의 해결책을 끌어 내지 못한다.

사람들은 여러 것에 의지한다. 부모, 친구, 친척이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돈 · 권력 · 명예 · 학벌 · 젊음 따위를 믿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밖에 있다. 그러한 것이 도움을 주기도 할 것이고 가령 의사나 약사처럼 병에 대해서 더 잘 알기도 할 것이나 모름지기 밖의 것들에 의지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내면을 관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이 주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게 마련이다. 남이 물 한바가지를 줬으면 그 물을 먹는 동안에 또 물을 퍼야 할 텐데 남이 준 것만 먹으면 곧 빈 바가지가 된다. 내 깊은 골짜기에서 나오는 샘물을 떠 먹을 수 있으면 항상 든든하고 당당할 것이다.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지 항상 배고프다고 애원하며 남의 집 머슴 노릇만 할 것인가.

관세음 보살! 하고 부르면 벌써 밖으로 모시는 마음이 된다. 그러기에 주인공! 하고 안으로 들이대라 하는 것이다.



"주인공이시여! 여여하고 원만해서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다 비출 수 있고 여여하게 능력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안으로 하라.

기복으로만 맹종하고 타력 신앙으로만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광대 무변한 인간의 가능성을, 법신으로서의 부처이를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더할 수 없는 고등 동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저 높은 하늘'이란 어디쯤인가. 북극성이나 삼태성에 사는 생명체들이 보기에는 지구 쪽이 '저 높은 하늘'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이쪽을 보고 '하늘 높은 곳에 하느님이 계셔서 우주를 지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여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듯이 말이다.

우주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자리 아닌 곳이 없으니 법당에 있으나 변소에 앉아 있으나 내가 그 곳에 있기에 참 나가 같이 있고 부처님도 함께 계신 것이다. 그럼에도 주인공 자리를 무시하고 밖으로 돌면서 '더 좋은 기도처가 없나, 더 좋은 스님은 안 계신가.' 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법당을 자기가 갖고 있고, 그 법당 안에 항상 불이 켜 있고 항상 부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것이다.

타의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들고 나고 하지 않는가. 참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도 스스로 모른다 하니까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내 몸에 붙은 불부터 꺼야 부모의 묵은빚도 갚고 뿌려놓은 자식들도 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도리를 공부할 생각은 않고 기복으로 돌아 귀신 놀음이나 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 자신만 귀신이 되고 말면 좋겠는데 자식들까지 귀신 노릇을 하게 하니 딱한 일이다.

이곳 저곳 장소 따지고 이 종교 저 종교 이름 가리고 한다면 전체가 둘이 아닌 도리를 어떻게 감득할 수 있겠는가. 이 신 저 신 찾다가는 이 신, 저 신, 내 신까지 잃어버린다.

협찬 : 주 인 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생활속에 그대로 진리·부처님법 있으니

☞ 15면에서 계속

자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미꾸라지는 미꾸라지 사는 데가 따로 있고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사는 데가 따로 있고 고기는 고기대로 사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집이 있듯이, 고향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 자기 동네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가다가 잡아먹히고 또 가다가 지쳐 죽어요. 왜냐하면 하도 잡았다 놨다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갈 만하면 또 잡혀요. 이렇게 해가지곤 큰 고무통에다 담아 놓으니까 그게 호흡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절반은 죽게 되고, 그러니 물에 갖다 넣어봤자 살지 못하거든. 그러니깐 아주 악인이 붙들어다가 그냥 말려죽이는 거지. 그게 방생이에요, 어디? 물에만 넣으면 다 사는 줄 알지 마세요.

사람도 아주 진저리가 나면은 차라리 총으로다 광 쏴 죽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극치적으로 괴로우면. 그런데 고기들도 그럽디다. 차라리 나를 한번만에 광 죽이지 어째서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말려 죽이느냐고요.

>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 자기가 있기 때문에
> 자기가 벌였기 때문에
> 상대를 보고 살고
> 세상 모두가 있는거지
> 누구한테 항거합니까

사람이 사는 도리와 짐승이 사는 도리와 고기들 사는 도리가 다 같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러면서 이날까지 인간으로 형성이 됐는데, 알고보면은 내 몸속에 있는 생명이나 저런 데 있는 미생물이나 생명은 둘이 아니어요. 낚시로 고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 고기 잡는 맛에 남의 생명은 생각지도 않고 죽이게 되죠. 물론 어마어마한 진리 속에 들어가보면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진리 그대로여서 아무것도 뭐 저거할 게 없지만요. 하지만 볶이고 찢기고 고통받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비록 진리는 그러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나갈 땐 겪는 그 고통과 찢어지는 아픔과 죽음을 말입니다.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 그 참,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봐도 아프고 불쌍한데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에 살생하지 말라, 바로 네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니라. 벌어먹기 위해서 잡는다거나 또는 이왕 잡아서 파는 것은 혹시 부모님께 봉양을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지금은 고기니 생선이니 그런 게 풍족해서 많이들 잡수시지만요,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귀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걸 먹지 마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그 살을 내 살같이 생각한다면 약으로 먹어라 이거죠. 그리고 그 무명을 쳐서 인도환생을 시키니 그건 살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도리를 알고 먹느냐 모르고 먹느냐에 따라, 즉 생각하기에 달린거죠.

그러니 모든 걸 놓고 먹어라 이거예요, 놓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일부러 죽이진 마라 이겁니다.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굳이 죽이지 않고도 다른 걸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을 꼭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죽여서 먹거든요. 모가지를 따서 피를 내먹거나, 이러한 고통을 주게되면 자기는 그걸 모르고 그랬다 해도 모르고 저지른 것은 모르고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육법공양 여섯 가지에 대해 마치지도 않고 다른 얘기를 하지만요, 마쳤다고 생각하구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언젠가 했었죠. 어느 아이가 불집게를 가지고 놀다가 그냥 같이 놀던 아이 정수리를 찔러죽였어요. 그런데 애가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거든요. 불집게를 가지고 놀다가 그냥 어떻게 잘못해서 죽은 거지. 그런데 그거 알고 보니까 전자에, 그 애가 지금 이 애를 그렇게 죽였더라구요. 쌜매 꼬챙이로. 그러니까 이게 피장파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집에서 만약에 보상을 해라 뭘 해라 이런다면 도루묵이 돼버려, 또 원수가 또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죽인 건 살생의 문제를 넘어서 인과성으로 또 들어간단 말이야, 업보로.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 공부라는 것이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달마가 수염이 왜 없느냐고 그랬죠? (검지손가락을 들어보이시며) 손을 하나 이렇게 번쩍 쳐드는 것은, 말로는 할 수 없는 대답을, 그건 말이 없이 내놓은 거기 때문에 말이 없이 대답을 해야돼요. 말을 할 수가 없는 도리기 때문이죠. 손가락을 하나 들었는데 그 손가락 하나 든 것 보고도 깨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아침밥 먹었느냐?' 그랬을 때 '네, 먹었습니다.' '그럼 식기 닦아야지.' 이런 말을 듣고도 깨우친다 이겁니다. 그런데 깨우친 사람한테 또 물어보세요. '아침 공양했느냐?' 하고 물으면 '식기 닦았습니다.' 하고 미리 탁 이렇게, '식기 닦았습니다.' 이러면 벌써 말 할 것도 없죠, 그건.

여러분이 이제 둘이 아닌 도리를 그렇게 배웠으니 조주스님이 머리 위에 짚신 한 짝 올려놓고 휙 나간 그 도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손가락 하나 든 도리도 알아야 하고요, 손가락을 들어 보이신, 구지스님은 그 비구니스님으로 인해서 깨우치게 되셨죠. 자기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가르치다니 이거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치는 바람에 그만 다 팽개치고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할!' 한 번 하고 주장자 한 번 탁 치는 데도 그 도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도리를 알면 일체를 다 알게 되는 거니까요.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수 억겁 광년을 거쳐 나오면서 우리가 진화된 그 과정을 말입니다. 우리가 뭐는 안 돼 봤겠습니까, 지렁이는 안 돼 봤겠습니까, 벌레는 안 돼 봤겠습니까, 온갖 짐승은 안 돼 봤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모두가 네가 따로 없고 내가 따로 없고, 그래서 내 생명같이 아끼라고 말을 했죠. 살생을 하지 말라 이러는 거보다도 내 생명같이 아끼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자아완성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이것도 한 철입니다. 한 철이래야 뭐 얼마 안갑니다. 어떡하면 일주일이 지나고 어떡하면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금방 지나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짧다면 아주 짧습니다. 그 동안 뭘 하고 살아왔나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 보세요. 먹고 살기에 바빠서, 먹고 사느라고 그냥 발버둥이 치다가 세월이 다 갔죠. 소풍와서 한 철 살다 갈 것을, 아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태평스럽게 웃고 넘기실 줄 알아야 돼요. '자네가 잘못해서 내 뒤도 받쳐주지 못하고,' 사람이 화가 나면 이렇게 자기가 잘못된 걸 볕 데다 다 화풀이를 하거든요. 남을 원망하고 자식한테도 바로 눈을 안 뜨고 말입니다.

자기가 돌아서서 울망정 어째서 상대방한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벌여놨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를 보고 살고 세상 모두가 있는 거지, 자기가 벌여놓고 누구한테 항거를 합니까? 잘했든 못했든 말입니다. 잘못한 것뿐만 아니죠. 잘한 것도 내탓이고 못한 것도 내탓이지 누구탓을 합니까. 잘됐으면 '여보, 당신도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네.' 하구선 이렇게 포용을 해주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이게 모두 내탓인데…. 당신도 마음 좀 내주구려, 응?' 하면서 이렇게 화합하고 살아야 돈도 솔솔 들어오지, 그냥 그렇게 화로 풀고 파헤쳐 버린다면 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지금 세상엔 더더욱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가만히 보니까 전쟁하는 것 같애요. 아니 요즘 뿐이 아니지만 말이에요. 전쟁 아닌 전쟁이에요. 사업을 해도 전쟁이고 정치를 해도 전쟁이고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해도 전쟁이예요. 콤퓨타를 만져도 바이러스니 뭐니 들어와서 또 뭐가 없어지고, 또 2,000년이 되니까 Y2K가 뭐가 어쩌고 하니 그것도 전쟁이고 모두 전쟁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산란한 속에서 자기완성을 못한다면 어떡합니까. 내가 나를 몰라가지고는 그거는 도저히 나를 이끌어 갈 수도 없고 남을 이끌어 갈 수도 없죠. 마음은 체가 없어서 천리만리도 멀고 가깝고가 없기 때문에 능히 할 수가 있죠. 한 생각이면 되는데 뭘 그렇게 주저합니까. 한생각인데 달입니다. 한생각 먹기에 달렸는데. 한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지혜 있는 사람은 능가 할 거고 지혜 없는 사람은 능가를 못하겠죠.

어떤 분은 이 도리도 완전히 모르면서 그냥 덮어놓고 와서 얘기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나한테 말하는데 이것은 천도재를 하고 무슨 제사를 지내고 이래서 될 일도 아니더라구요. 어떡하겠어요? 그럴 땐 철저하게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깁니다. 내 마음을 잘 쓰면은 그냥 벗어날 수 있고 내 마음을 잘못 쓰면은 벗어날 길이 없다는 얘기에요.

또 돈이 없어서 가난한데 말입니다. 정말 조상들은 유전성으로 인해서 그냥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된 집들도 많죠. 그런 중에 꼭 천도재를 돈을 내고 해야만 그 집이 괜찮으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생각하기에 달린 거예요. 이끌어 가는 사람의 생각에 달린 겁니다. 돈보다 더 중한 게 있다는 얘기죠. 돈보다 더 중한 거요. 그게 내 생명과 내 가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마당을 하루도 빠지지 말고 쓸어라 이런다거나 뭐, 이런 방편을 주죠. 또 어떤 분은 어디서 빌려서 급한 대로 가져왔는데 이걸로라도 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건 갖다 예금해놔, 남의 거 꾸어왔으면 갚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어. 그걸로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니깐 말이야. 그러니깐 사람이래는 게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았다면은 그것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눈물나는 일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올때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땅속에 묻힌 영가들도 그냥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러는데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그 말 자체가 어디 있느냐는 거를 알면 돼. 어디 있느냐 이거를!

이 하나 하나가 우리가 모르는 거 같애도요 물에 사는 고기들도 생각을 하면 다 통신이 돼요. 죽은 영가들도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로 둘 아니게 해서 될 일이라면 그렇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끔 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 그 뜻대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재주가 있다고 강요를 해서 되는 게 아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길에 오고 가다가도 자기는 모르지만 불은 켤 수 있다는 얘기죠.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못 보지만 불은 켤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을 잘 알아 들으셔야 됩니다.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볼 수는 없지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지만 불은 켤 수 있다. 이건 마음 먹기에 달린 건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짐승을 진화시킬 수도 있고 형성시킬 수도 있어요. 또 뱃속에 애가 잘못돼 돌아갈 때 그때도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죠. 기형아라고 그러나요? 병원에서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아유 그거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마음을 안심시켜놓고 마음을 내면 그대로 그 속에서 알아듣고 다 자기가 정상아로 돌아서서 활동을 해요.

영혼은 죽어서 혼백이 돼서 그 불성의 종자를 끼고 또 다시 영혼이 나오거든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백일 되기 전에는 과거에 살던 의식으로다가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또 다 들어요. 뱃속에 있는 애한테 태교가 중요하다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 알아들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뱃속에 있는 태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부하는 것도 한군데다 몰입을 해서 임신한 것처럼, 열 달이 돼서 으앙 하고 나오는 것처럼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냥 덮어놓고 어린애가 어디서 쑥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한군데다 몰입을 해서 열 달을 임신해서 어린애 낳는 것과 같이 이 공부도 그렇다는 얘기죠.

이 마음 하나 찾기 위해서 별 얘기를 다 했는데요. 이 공부는 어린애를 뱃속에 열 달째 넣구선 기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거기다 몰입해서 놓고 돌아가면은 정말 거기에서 큰 바다를 이루고 또 어린애가 열 달이 되면은 나올 수 있게끔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뭐 열 마디 백 마디 말은 다 밀쳐놓고 우리 생활하는 자체가 그대로 진리고 그 진리가 부처님 법이고 우리들의 법이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 온 거를 알아야 어디로 가는 것도 알 거 아니어요. 나도 없어, 그냥 그냥 쏜살같이 돌아가, 그냥. 수레가 돌아가듯 돌아가는데, 그 수레더러 '너 어떤 걸 수레라고 그러겠니?' 라고 묻는다면 '그냥 다 합친 게 수레야.' 이럴 겁니다, 아마. '합쳐서 돌아가는 게 수레야, 합쳐서 돌아가는 게 지구야.' 이럴 거라구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 살아나가는 게 다 그래요, 그냥!

그러니깐 내가 할 것도 없고 내가 세울 것도 없고 그런 도리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안되죠. 내가 어딨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진리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이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만났다고 하고 저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만났다고 하고 이러나요? 내가 만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먹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에요. 육체가 생긴 걸 가만히 보세요.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겠나. 숫자도 헤아릴 수가 없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를 놓고도 모든 거를 돌아가면서 볼 때 이것이 사는 이치가 지구도 똑같고 우주도 똑같습니다. 지금 지구 안에 일체 만물만생이 사는 것도 우리 뱃속 안에서 생명들이 사는 거나 똑같애요. 지금 우리 육체 속에서 사는 생명체가 하나만 바깥으로 나와보세요, 죽지!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죠? 그래서 터지면은 꿰매고 그러잖아요. 지구도 어디 가장자리가 터질까봐 걱정이죠. 지구는 수술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 수술하기는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부터 알아보면은 다 나온다 이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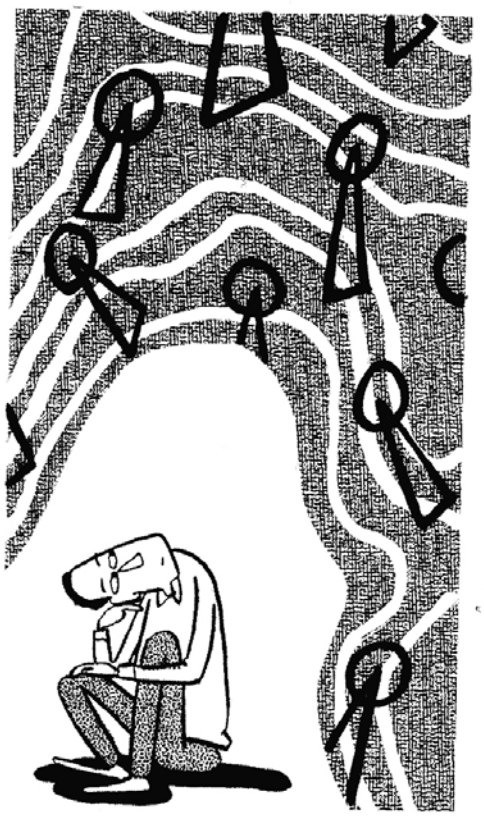
그러나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나 지구나 뭐든지 망가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건 낸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해결을 할 일이 생기면 내가 열 명이라도 돼서 가서 해결을 할 수도 있죠. 체가 없는 환상으로서, 환상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냥 환상이면서도 진실한 모습을 만들어서 거기다 투입을 하면은 그게 지구를 꿰매는 의사가 되죠. 또 내가 다른 혹성을 본다 하더래도 혜안으로 보고 불안으로만 볼 줄 안다면 요만한 거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볼 수 있는 거죠. 또 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용할 거라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 죽어도 그만 오늘 죽어도 그만 있다 죽어도 그만이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더 발휘해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좋을까 하고 만날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못하면은 요 다음에 또 마무리 하느라고 또 해야하니 귀찮잖아요.

하여튼 자기완성이에요. 일심으로 자기완성하기에 오로지에요. 오로지! 어떻게 살든 오로지에요. 여러분들이 다 오로지 그렇게 해서 요 다음 생이 된다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풍요롭고 좋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서 개구리 들어온 것이요 악성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아서 번창이 돼가지고 다른 걸 잡아먹는다면서요? 악성도 그렇고 우리의 불종자도 그래요. 그렇게 번져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 천리만리라도 왕래가 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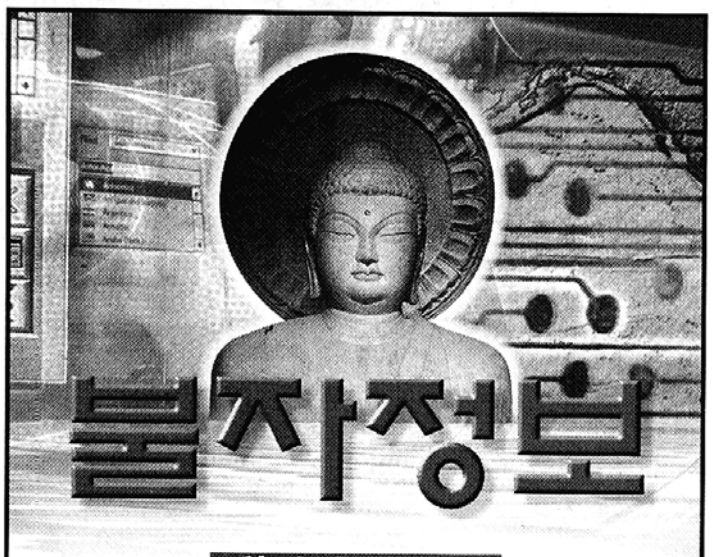
그럼, 자타가 모두 성불합시다.

> 생사 타파하고
> 자유권 얻어
> 세상 나지 않고도
> 수만가지 화할 줄
> 알아야 부처님
> 이라 할수 있죠


그림 · 최주현

고기·생선 내살같이 생각하고 먹으면 약이죠
마음 잘쓰면 벗어나고 잘못쓰면 못벗어나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1166-3858

간 병 인
불심깊은 불자간병인
교육받은 전문간병인 항상 대기로 유료 간병 서비스는 물론 무의탁 노인 등에게 무료로 간병 자원봉사
전화 02)363-7884
팩스 02)364-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당뇨완치
대한불교원융종 **세운정사**
0671)626-4984
011)696-4848
FAX 0671)626-4980
전북 남원시 하정동 226번지
주지 : 진 성

불자님의 치아건강
全燦齒科醫院
JEON CHAN DENTAL CLINIC
서울시 양천구 목1동 405-97
(5호선 오목교역 6번출구)
상담환영 02)645-9746
頓悟 全 炳 燦 합장

강좌

통신판매
易학교육전문학원 교재로 만든
5주 속성 **易학** 학습지
100% 간편 적중 **용신** 公式集
농협 : 037-01-298413 (예금주)금향기
SBS 모닝와이드(운명을 배워 운명을 개척한다)에 박규방(전 직교사·59)원장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5주 속성 프로그램 소개
易학교육전문학원
02)332-8729(代)

水脈 찾기 강좌
1.신비추 L-로드 사용법(복요일)
2.저렴하고 간단한 수맥차단제 판매
3.사찰요청시 무료수맥점검 실시
4.수맥상담 및 기타문의 환영
02)734-2118/011)239-6817
대붕 氣 살림

동양사상 공부하실 분
◆과목 : 참선지도, 불교경전 역원문, 노장사상, 관상, 육효, 사주, 풍수지리, 가상(家相)
※전강 탄허스님 문하에서 수학
◆강사 : 김 소 호 거사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출장상담도 해드림)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12호 **달마정사선원**
011)755-5333/02)914-6551

전통불교의식 연구원
02) 511-0108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화엄경 (80권) -1,400,000원
법화경 (7권) - 170,000원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김창본
011)545-7252 처 사

동양 · 역학 강좌
▶ 사주학, 성명학, 궁합, 택일, 개운법 ◀
기초이론 및 실제감정, 책임지도
◆ 金東炫 선생 직강 ◆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협회 학술위원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학술위원
◆ 도연 역학 연구원 ◆
문의 : 02)894-5233
·경기 광명시 하안동

특별 상담
중국 국제 침구사 자격시험
1. 포교활동 하실 분
2. 해외 이민 또는 취업 하실 분
3. 해외 포교활동 하실 분
4. 침구학을 연구나 공부하실 분
5. 장래를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실 분
6. 기타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
02)875-8310~3

역학 개인지도 (연구생 모집)
■강사: 정현근(오늘의 사주학 필자, 서울대학원 졸, 사주학 이론서의 베스트셀러)
■내용: 명리·주역·상학 등의 내용을 다양한 문헌과 이론적 엄밀성을 근거로 개인 지도합니다.
문의: (02) 714-6380
초보자 환영 (기초부터)

구인

모십니다
평생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충북 김천 서원사」
0434)534-4070

무상보시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346)
557-2266
동국사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기타

전통불교의식 학인및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특별의식
■ 어산작법반(속성반) : 상주권공,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도량게, 다게나비루
※불교제반(49재, 전도재, 점안식 등)의식을 전통의식으로 봉행함
■ 원장생 봉사회원 모집 : 불교식 장의장례의식(교육후 봉사활동)
※각 과정 통신수강 가능
■ 문화강좌 : 사경기도법회 및 기초교리강좌, 사물놀이, 생활불교의식, 서예, 아나파나사티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전통불교의식연구원 ☎02)511-0108

정신병 집중치료
■ 환자 및 가족 비밀절대보장 (약물치료가 아님)
■ 절에 있으면 쫓기는 것 같은 불안한 분
■ 요양치료가 필요한 사람
■ 병명없이 아프거나 병명이 바뀌는 사람
■ 돈을 마구 쓰며 구타를 일삼는 사람.
■ 귀신병 걸렸다고 생각되는 사람
■ 굿을 하고 이상이 생긴 사람.
■ 굶을 무고 병이 나서 약효가 없는 사람.
■ 갑자기 말문 닫는 사람
■ 본 스님은 27년 간 수도한 분
육계사 **고찰 정법기도도량 지리산 명당**
0595)884-1789 / 011)596-9461

순수한 토종 염주열매가 여는
목암주 나무를 염가분양합니다.
062)222-6003(주간)
062)224-8895(주간)
062)234-0095(야간)

벽지 ◑ 바닥재
버티칼 · 페인트
도매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출장견적 환영
해인 인테리어
02)2201-1470
019)369-8000

달마도 전문 표구사
30년 전통의 병풍, 표구, 달마, 사찰작품 전문
달마의 氣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수기법으로 표구합니다.
▶ 달마도의 영험함은 氣에 있습니다. 불자의 신심으로 氣가 상하지 않도록 특수비법으로 표구합니다.
▶ 달마님을 모시어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명표구사로 문의 바랍니다.
(代)02)374-9886 **유명표구사** 합장
택배·전국 어디나 보내드림 서울 은평구 응암4동 585-8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관리국 기능보유자 등록 제 962호
4불사 대웅전, 선방, 요사채, 종각, 산신각, 기둥은 육송만 사용. 그리고 4미터 이하도 육송을 사용해 드립니다.
▶시공사찰
용주사 용화사 성남사 지장사 구외사 대인사 비봉사 승가사 진관사 그외등등
현재 은선사 천운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大慈 大悲 달마도는 자연의 기운입니다
(KBS 2TV 달마도의 신비출연-98.7.24)

▶ 수성사
02)540-5926
무하합장
이사, 삼재
차량운행
수맥차단
5회의 불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관음보살도 보급중>

기(氣)와 황토쑥뜸 치료
인생상담·질병상담문제아 무료상담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신경통, 당뇨, 비만증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병 기적같이 고쳐짐.
051)852-0067/011)453-86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82번지 **광불사**
주지 대 원 합장(氣 달마도 무료보급)

최면-명상치료사 양성
■타인 → 자기 최면 → 명상
■병인인 심상(업)치료 → 치유력 강화 → 세균 약물 면역력 약화
박민수 참선 교육원
062)251-2733
017)609-9068


귄 달마스님
◆사주 : 대운·행운·신수
◆작명 : 출세 문자 비법
◆관상 : 빈부 귀천 학당
◆풍수 : 자손 창성 번영
◆부적 :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15:00
02)999-5551 달마사

보이자
1kg (10만원)
■소타차 500g(10만원)
■칠자병차 3개(10만원)
茶道理
02)911-6798
017)406-6682

초파일 기도스님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 바람.
호문 합장
011-836-0712
017-596-8727

사찰안내

포교원 안내
◆위치 : 의정부 중앙로 시내
◆평수 : 30평
◆법당 : 법당(방2), 주방
◆가격 : 2천만(전세)
권리금 시설비 없음.
◆포교원 역사 10년
0351)848-3661
011)762-5282

청주 포교의 전당
■위치: 청주시 사창동(충북대학 후문)
■대지: 100평,건평60 (신축 건물)
■가액 :전세 7천만원 (월세 가능)
◆포교원이나 사찰을 운영하고 싶은 스님에게 맡기고자 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0431) 273-3601

사찰 임대 구합니다.
서울 인천 대구나
부산 동해시에 있는 곳
가액 : 5천~6천 사이
011)531-7216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김해
■법당겸 요사 : 33평
■가액 : 1억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암자 (급) 안내
◆위치 : 통영 바닷가 옆
◆대지 : 120평
◆가액 : 4900만원
0557) 641-0088
011) 582-1736
011) 557-8949

사찰 (급) 안내
◇위치 : 서울 ◇부지 : 52평
◇법당 : 23평 ◇요사 : 50평
◇가액 : 2억 3천만원
◇강능고찰터 1천평(4천급매)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위치 : 천안 목천
◆부지 : 약 1천평 (종중땅)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용궁칠성각 요사채2동 석물미륵 탑등
◆가액 :1억2천만원 (꼭 필요한분 연락바람.)
02)838-2929
0417)566-5892

사찰 안내
◆위치 : 통영시내에서 차로 10분거리
◆평수 : 법당20평 요사채50평 총 72평
◆산밑에 위치 (큰마을 有)
0557)644-1054
017)590-1900/012)581-9295

사찰 (월세)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신도극장 뒷편
◆ 평수 : 45평(법당,요사채), 단독주택
◆ 가격 : 500만원(보증금) 월세 16만원
◆ 시설비 : 1,300만원 (집전체수리비) 절충가능
011)705-2806/02)379-0117

사찰 안내
◆법 당 : 30평
◆요사채 : 30평
◆ 방 : 5개
◆요사채 : 50평
◆가격 : 전세 3천만원
◆비품일체 제공
0613)337-4020
011)579-9865

사찰 안내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주지일반
◆사찰명 : 도통사
◆평수 : 13평 요사채2동(방5) 부엌2, 건물만
◆가액 : 1천만원
0397)574-1358

사찰안내
◆위치 : 울산시내 대단위 APT앞 (2500세대)
◆평수 : 30평
◆가액 : 2500만원 (월세가능) 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1)563-4454

사찰 · 암자터 안내
◆위치 : 경남 김해시 상동
◆평수 : 362평 건물2동
◆가액 : 8천5백만원
051)208-9966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의성
◆대지 : 1천 12평, 법당 10평, 요사채 20평
◆지하수 170m, 주차시설 완비
◆가격 : 8천만원
0576)862-0319
011)9570-3533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 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산신탱화
◆ 시설 완벽
053)942-0700
011)501-2219

토굴(별장) 안내
◆위치 : 경남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소재
◆부지 : 대지 200평, 건평, 32평 (방3개, 거실, 부엌, 목욕탕2개)
◆가격 : 1억(절충가능), 단층 벽돌집, 신축 3년(전원주택)
※ 부곡하와이 온천에서자가용 20분, 밀양에서 40분, 마당까지 진입가능
051)891-7255/051)891-7255

포교당 전세 안내
◆위치 : 동대문 담십리2동
◆평수 : 30평 건물 3층有
◆가액 : 전세 5000만원
◆ 스님 면담후 가격 절충 가능
최적의 교통요지에 있음
◆시설완비
02)2214-3529
011)446-4527

서울·부산지역 사찰구함(급)
⊙ 서울·부산시내 또는 근교 사찰이나 암자를 구합니다.
⊙ 전화 상담시 상담내용은 보안유지 합니다.
한국불사연구소 (02)561-7020

사찰 안내
◆위치 : 전남 광양읍에서 10분 거리 (백운사밑)
◆건물 : 법당1칸, 방2칸
◆가액 : 1년 20만원
시설비 350 만원
0667)762-5909

사찰 안내
◆위치 : 전남 강진 근교
◆부지 : 2,300평
◆목조 : 대웅전 32평,산신각 4평, 주지실 5칸 28평, 대중방 5칸 20평
◆스레이트조 : 주방 20평, 가건물 15평, 토담집 12평, 사택 25평 등
◆가격 : 사정상 매가 7억상당-> 1/3가격으로 절충해 드림
※도시근교 사찰과 교환도 함, 비구니스님 환영
019)554-3484

포교당 안내
◆위치 : 길음역 3분거리
◆평수 : 50평
◆시설 A급 (시설비 없음)
◆전세 : 7,000만원
02)941-3195 수도사

포교원 안내
◆위치 : 도봉구 방학2동
◆평수 : 25평
◆법당 주방시설 스님거처할방1
◆가격 : 전세 28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2)954-1289

지리산 계곡(암자터)
⊙경남 함양군 휴천면 남호리 876번지 외 2필지
◆현재 밭 210평(준농림지 1,500만원)
◆함양읍 또는 생초 I.C →남호리 소재 한남마을 서측 근거리(지리산 장터목 산장)에서 50m위치
⊙지리산(천왕봉)밑 중산리 계곡 옆 토지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428번지 550평, 위 같은 리에 산 50번지 3,060평)
▶합 3,610평 ◆가격 : 7만원(준농림지)
0596)972-4968

사찰이나 암자와 교환을 하고 싶습니다.
■위치 : 구리시 수택동 고급주택
■전세융자 포함
■대지 : 46평 ■건평: 95평
■가액 : 3억7천만원
융자3,500만원 전세8,800만원
● 주인 거주 3층, 상가 지역, 위치 좋음.
● 현대식 건물.
0346)566-7606
011)496-7706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PC방등 영업시간 제한 폐지

(생활) 규제 개혁위는 9일부터 만 18세미만 청소년들도 오후 10시까지는 보호자의 동행없이 노래방에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전자오락실과 PC방 등 게임업소의 영업시간 제한도 폐지했다.그러나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노래방은 투명유리를 갖춘 별도의 청소년실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문화 시범지구 5곳 운영

서울시는 3일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봉구 창1동 지하철 쌍문역 주변, 은평구 역촌2동 연서로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주변, 고덕동 고덕근린공원 앞 주택가 등 5곳을 연말까지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모두 20곳을 시범지구로 추가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골목길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기도 15일부터 오존경보제

(환경) 경기도는 대기중 오존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존 피해예방을 위해 15일부터 9월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제는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과천 구리 등 9개 시 지역에서 실시된다.

잠실운동장 '99 드림콘서트'

(공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주최하는 '99 드림콘서트'가 15일 오후 7시30분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에는 유승준, HOT 등 국내 최고 스타들이 대거 참여하며, 북한 어린이에게 보내는 사탕의 사탕도 모은다. 초대권은 7~8일 서울지역 현대정유 오일뱅크와 한화에너지 주유소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02)3669-4669

예술의 전당 일요 야외콘서트

예술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10월까지 한 달에 1~2회씩 '일요야외콘서트'가 열린다. 이 콘서트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은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이 공연된다. 5월 야외콘서트는 23일, 무료공연으로,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2층에 있는 서비스플라자에서 관람권을 나눠준다. (02)580-1300

'농업기상정보' 서비스 실시

(정보)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3일부터 국내 최초로 'AFFIS 1500 농업기상정보'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전국 1,500개 읍·면 지역별로 서비스 당일부터 3일간의 날씨와 강수량을 하루 2차례(오전 11시, 오후 3시)씩 예보한다. PC통신 등을 통해 농림수산정보통신망(AFFIS)을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암환자 매년 10만명 발병 5만명 사망

정부 전담부서 없이 '뒷짐'

美·日선 '암센터' 설치 국가차원 암억제 정책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암등록 보고서'는 97년 전국 1백21개 병원의 암 환자가 모두 7만8천7백97명으로, 1년전의 7만2천3백23명보다 무려 9%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암 발생 부위는 위암(21.3%) 간암(11.6%) 폐암(11.3%) 자궁경부암(9.2%) 대장암(8.8%) 순이었으며, 남자는 위암(25.8%), 여자는 자궁경부암(20.4%) 환자가 가장 많았다.

당국은 이런 통계에 등록되지 않은 환자를 포함하면 연간 암발생은 10만명을 웃돌고 5만명이 암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같은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5배나 되는 엄청난 수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암이 단순히 한 개인의 육체를 파괴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자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단란했던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례도 있다. 게다가 암환자의 의료 및 사회적인 비용도 연간 1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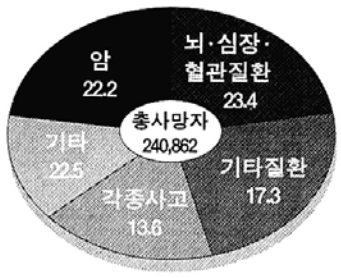
하지만 암이 이처럼 엄청난 고통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국민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암 환자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예산 가운데 암관련 예산이 겨우 20여억원에 그치고, 암문제를 다루는 인력도 만성병과의 사무관 1명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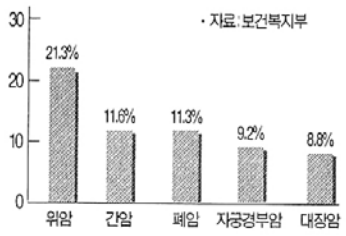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립암연구소, 질병통제센터 등에서 국가적으로 암연구와 예방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와 암사망률이 매년 0.5%씩 줄어드는 개가를 올리고 있다. 일본 역시 국립암센터 외에 현(縣)마다 암센터 두고 한해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암 퇴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도 외국처럼 정부가 나서 조기발견과 예방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을 펼쳐야 한다. 암은 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되면 희생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 암이 불치병이라는 풍조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잡아함경〉에 "네 가지 법을 필요와 분별에 따라 성취하면 큰 의왕이라 하나니 네 가지 법이란 첫째 병을 잘 아는 것이며, 둘째 병의 근원을 잘 아는 것이며, 셋째 병을 잘 다스리는 것이며, 넷째 다시 발병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정부와 국민 각자가 의왕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암은 지금처럼 위협적인 존재만은 아닐 것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암예방법

40세이후 꼭 정기검진 받아야

지난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한암협회 주최로 열린 '암치료법' 강연회에서 전문의들은 예방과 적극적인 치료를 강조했다.

특히 위암의 경우 증상만으로는 발병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40세 이후에는 1년에 2차례 정기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2기 암이라 하더라도 5년이상 생존률이 75% 이상 되기때문에 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예방법은 ▲여러가지 종류의 야채, 과일, 곡식, 콩, 뿌리, 감자 등의 충분한 섭취 ▲흡연 및 음주 절제 ▲소금 및 불에 탄 음식 최소화 ▲붉은 색 육류 제한 및 생선, 닭 등의 섭취 ▲5Kg 이상 체중이 늘지 않도록 하기 ▲곰팡이의 오염우려가 있는 음식을 피하기 ▲사탕이나 과자로 간식하는 것 삼가 ▲하루 1시간 이상 걷기 및 1주일 60분이상 격한 운동하기 등이다.

"코소보 유엔통해 해결"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코소보 평화안' 결의

4월말 로마에서 회의를 가진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은 코소보에서의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지와 분쟁 당사국간의 협상을 통한 평화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유엔 안보리 승인하에 유엔의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의 주둔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고르바초프 재단이 후원한 이번 회의에는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터 윌리암스, 프레드릭 디 클라크, 리고베르타 멘추, 사이온 페레스, 데이비드 트림블, 요셉 로트블랫, 미하일 고르바초프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들은 또 코소보 난민의 즉각적인 귀환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코소보에 대한 광범위한 자치권 부여와 인류애적 구호활동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한편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지구촌에서는 코소보 외에도 모두 20곳이 현재 내란과 인접국간의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다. 분쟁이 가장 심각한 대륙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난민만도 총 7백만명에 이르며, 유럽에서는 터키, 북아일랜드가, 아시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등이 내전과 민족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의 주요 분쟁지역

분쟁지역(분쟁발발 연도)	사망자수
코소보(98)	약2천명
북아일랜드(68)	3만8천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2)	25만명
터키(84)	3만7천명
알제리	6만5천~8만명
시에라리온(92)	2만4천명
라이베리아(89)	25만명
수단(83)	1백90만명
아이티(91)	수백명
콜롬비아(60)	3만5천명
콩고(96)	1만명
앙골라(75)	1백만명
르완다(94)	80만~1백만명
소말리아(91)	30만명
부룬디(93)	15만~25만명
에리트레아(98)	1만명
아프가니스탄(79)	2백만명
카슈미르	2만5천명
티베트(49)	약1백만명
스리랑카(83)	약5만6천명
인도네시아 동티모르(75)	약20만명

시론

가정과 청소년



김희옥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은 가정의 담장을 넘을 수 없다"는 법언이 있다. 법은 도덕률을 기반으로 하여 그 내용이 도덕과 같은 것도 있고, 도덕과 다른 내용을 가질 수도 있다. 법과 도덕은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도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은 가진다. 가정은 가족들의 굳건한 성벽안이므로 법 즉 강제규범이 가정의 내부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제반 현상은 가정문제도 가족사이의 윤리, 도덕률로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청소년을 상업적인 이익의 도구로 여길뿐 가정과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는 생각을 멀리하는 어른이 다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청소년의 달'이다. 가정과 청소년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야만 하는 소중한 이 사회의 가치이고 기반이다. 건전한 가정에서 건강하고 유망한 청소년이 성장하고, 그 바탕에서 우리 사회와 나라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부모를 중심으로 화목한 가정 만들기 나서야 청소년 탈선예방"

부부가 불화하여 갈라서거나, 부모를 잘 봉양하지 아니하여 가족간 다툼이 그치지 않거나, 남편 또는 아내가 그 상대 배우자에 대해 인격을 무시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 어른들의 지나친 욕심이다. 이런 어른들이 많아서인지 우리는 주위에서 청소년을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가정을 수없이 보고 듣는다.

가출하여 유흥가 접대부로 일하다가 그 업주가 단속되자 부모를 불러 귀가조치시켰던 한 17세 소녀가 5개월 후에 다시 그 부근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바깥에 나오면 부모의 싸움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이 소녀에게 우리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면서 한번씩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를 때리고 무시하는 것을 본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인 아이들이 분을 참지 못해 술에 취해 잠자는 아버지의 머리와 가슴을 망치와 다듬이 방망이로 쳐서 사망케 한 사건도 있었다. 과연 스무살도 안된 아들 딸 넷을 존속살인의 무거운 죄수로 만든 것은 누구의 행위인가. 이 모두가 가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의 과보가 아닌가.

불교에서는 현생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되어 사는 것을 전생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거나, 은혜를 갚으려는 것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이 인연법에 따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성원 서로간의 인격을 들여다 볼 줄 알았으면 이러한 비참한 현상과 우리 사회의 어지러움, 청소년들의 비행이 크게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이다. '문제 학생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다. 정작 단속해야 할 대상은 청소년유해환경이 아니라 유해환경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가정이라는 생각은 비단 필자만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은 아닐 것이다.

가정과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 많은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뚜렷하게 가정폭력이 감소하거나 청소년 비행이 줄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법률로 강제하기 이전에 부모를 중심으로 가정을 똑바로 세우려는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불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철저한 인식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회가 어려워도 가정은 건전하고 굳게 지켜져야 하고, 우리의 자녀, 청소년들은 건강하고 건전하게 장래의 소망속에서 자라야 한다. 이 화창한 계절의 여왕 5월에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화두는 바로 '가정'과 우리의 자녀 '청소년'이다.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 보일러보다 약 1/3~1/4 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늦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2)883-7400(代)
· 영업부 : 02)877-6090
· FAX : 02)876-3378

황토 집(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석굴암식 돔형 황토토굴과 피라미드의 기가생동하는 신비한 효능
황토 집(토굴)
원하시는 평수대로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현장 방문 환영!! 황토집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017)585-6045/ 017)566-9969/ 017)582-7116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선묵가협회 초대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진달래
누구에게 보이려
꽃망울 꽃을 피웠나
곱디고운 모습으로
함박 웃음 머금고
분홍빛 드리운
솜털 구름위로
그대 그리워 바라보며
분홍빛 가슴으로
얼굴 묻는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5호 탑골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뒷편효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드폰 : 018-277-5592

■전국탐구대회 대상
한마음선원 김지나양



참선하니 공부 잘돼
훌륭한 과학자 '꿈'

"환경오염에 대해 연구하는 최고의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마음 속에 계신 부처님께서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4월25일 중앙교육문화사가 주최한 제10회 전국 자율탐구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지나 어린이(충주 무극초등 4). 어릴 때 부터 부모님과 한마음선원 금왕지원을 다니고 있는 김지나 어린이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일요일 법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지나 어린이의 탐구주제는 '꽃은 물을 얼마나 먹을까?'. 꽃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꽃이 흡수하는 물의 양을 연구했다.

"법회시간이나 수련회에서 스님들께 참선을 배웠는데 참선을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참선수행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BBS 개국 9년

9년간 매일 음성포교

김용림·김병조



◇김용림씨.

9년을 한결같은 목소리로 여법하게 불교방송 스튜디오를 지키고 있는 음성 포교사. 개국 9년째를 맞이한 불교방송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고동락 해온 탤런트 김용림씨(59)와 코미디언 김병조씨(50)가 바로 그 주인공.

이 두 불자 방송인은 90년 5월1일부터 현재까지 9년동안 매일 마이크 앞에 서서 삶에 지친 청취자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며 때론 감로 법문을 통해 심신을 위로하는 등 음성 포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

매일 아침 6시55분부터 5분간 '신행 365일'을 통해 감로수 같은 경구를 들려주는 김용림씨. 1주일 분량을 하루에 녹음하는 김용림씨는 짧은 방송 시간이지만 경전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 방송을 하고 있다.

김용림씨의 차분하면서도 잔잔한 음성에 실린 '신행365일'은 경전속에 있는 문구중 불자들이 일

주옥같은 경구 낭송
생활속 신행 길잡이
"초발심 자세로 최선"

상이나 신행 생활에 필요한 경구를 발췌해 낭독해 주고 있다.

방송하기 전에 항상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 들러 참배해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김용림씨는 "종교가 없었던 변호사 한 분이 '신행…'을 매일 출근길 차안에서 들으면서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기뻤다"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있는 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서초동 수안사를 자주 찾는 김용림씨는 촬영이 없는 일요일이면 사찰에 나가 사시불공을 올리기도 하며 안방에도 부처님을 모셔놓고 외출시에 꼭 부처님께 참배를 하는 등 불심이 돈독하다.

4월에 '99 한국프로듀서상시상식 라디오부문 진행자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김병조씨는 매일 밤8시5분부터 9시까지 '김병조의 다시듣고 싶은 노래'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가 불교방송에서 첫발을 내딛은 것은 국악 프로그램인 '옛가락 우리노래'.

당시 박동진, 안숙선 명창을 비롯한 유수의 국악인들이 대거 출연했던 이 프로는 입담이 뛰어난 김병조씨의 재치 넘치는 진행으로 국악의 대중화에 공헌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어 김병조씨는 93년부터 현재 맡고 있는 프로의 모태가 됐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진행해 왔다.

특히 '김병조의…'는 연령과 종교를 초월한 폭넓은 청취층을 확보하고 있다.

재치와 구수한 입담
청취자 사로잡아
연령·종교초월 '인기'



◇김병조씨.

첫 방송을 하던 개국일이 마침 자신의 생일날이어서 불교방송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고 믿는다는 김병조씨는 "언젠가 제 프로의 인기 코너인 '배추머리 노래방'에 90세가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전화를 했었다"며 "보통 방송국 전화 연결 프로엔 청소년들이나 나이 지긋한 보살님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격려 해 줘 보람을 느꼈다"고 감회를 털어놨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⑭



성 낙 승
〈불교방송 사장〉

"규칙적인 생활 및 운동, 소식(小食)하는 습관이 정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일 개국 9주년을 맞이한 불교방송의 성낙승사장(64). 건강 만큼은 아직도 젊은 직원들 못지않게 자신 있다는 성사장도 사실은 26세때부터 위(胃) 때문에 몇 년간 심한 고생을 했었다. 당시에는 죽도 제대로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체중이 40kg으로 줄어들었고 병원에서도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지요. 하지만 잃어버린 건강을 반드시 되찾아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성사장은 병원문을 나서는 즉시 서점으로 달려가 위 투병기를 사서 읽었다. 그때부터 책에 적혀진 대로 물구나무

주말 가까운 산사 찾고 小食
물구나무서기 등 요가 운동 꾸준

서기와 제자리뛰기를 포함한 요가 동작 등 10여가지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1시간씩 운동을 했으며, 식이요법으로 미싯가루를 우유에 타마시고 소화에 좋다는 인절미를 규칙적으로 먹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지 10년만에 위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지방이나 해외 출장을 가서도 정해 놓은 운동만은 철저히 했습니다. 한 번은 해외 출장때 같은 방을 사용했던 동료가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도 납니다." 예순이 넘은 지금도 규칙적인 운동을 일과로 생각하고 있는 성사장은 주말마다 등산 겸해서 북한산 승가사, 문수사, 일선사 등을 참배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소개한다.

성사장이 1년전 불교방송 사장에 취임했을 때 경제 한파 이후 방송국 사정이 어려워져 경영자로서 신경 쓸 일이 많았다. 하지만 평소 건강한 체력은 강한 정신력과 발원한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집념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믿는 그이기에 정신력으로 건강을 지켜나가고 있다. 또 성사장은 욕심을 줄이고 안분지족하는 마음의 평정과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아름다운 봉축 화음"
명성여중 교내 합창대회

명성여자중학교(교장 안은자)가 4월30일 학교 강당에서 개최한 부처님오신날 기념 '교내합창대회'.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은 교생 선생님과 함께 한달 동안 준비해 온 합창곡 발표순서를 기다리며 다른반 친구들의 노래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이날 합창대회에서 가장 많은 박수갈채를 받은 팀은 1학년 7반 학생들. 총 29개 참가팀 가운데 유일하게 찬불가 '연등'을 합창곡으로 선곡해 부르기도 했지만 직접 만든 컵등을 들고 나와 아름다운 화음과 율동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교생실습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스님들께 좋은 선물을 하게돼 더욱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을 맞아 열린 백일장과 그림그리기 대회에서는 어린이 특유의 동심으로 각양각색의 부처님이 하얀 도화지와 원고지에 나투셨다. 5일 봉은사에서 열린 제5회 부처님그리기대회에서 종합대상을 차지한 이태이(대림초1) 어린이는 '수영복 입은 부처님'을 그려 보는 이의 웃음을 자아냈다. 또 2일 대불청 광주지구가 주최한 제7회 연꽃피우는 백일장에서는 김혜진양(치평중1)이 '부처님'으로 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편집자 주〉

시

부처님

김혜진(치평중1)

나무는
불평하지 않아요.
다만 인내할 뿐이죠.
부처님 마음처럼요.

나무는 욕심부리지 않아요.
다만 베풀 뿐이죠.
부처님 자비처럼요.

나무는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사랑할 뿐이죠.
부처님 사랑처럼요.

우리는
부처님이라 부르죠.
인내하고 사랑하며
베푸는 그를…

그림



◇월간 〈불광〉 주최 제5회 부처님그리기대회에서 종합대상을 받은 이태이 어린이의 '수영복 입은 부처님'.



◇제1회 연꽃노래잔치가 2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대상 강릉자비원 윤상아양

11회 연꽃노래잔치… 최우수단체상 한마음선원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가 주최한 부처님오신날 기념 제11회 '연꽃노래잔치' 전국 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가 2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펼쳐졌다.

4월18일부터 진행된 예선전을 거쳐 이날 본선에 오른 팀은 독창부문 총 42명과 중창부문 4팀, 합창부문 6팀 등. 그 어느 해보다 우수한 기량과 참신한 내용을 선보인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뽐내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갈채를 받았다.

이번 대회 대상은 '나의 마음은 바다'로 독창을 한 강릉자비원의 윤상아 어린이가 수상했으며, 최우수단체상은 47명이 입을 모아 '내가 없는 이름의 노래'를 합창한 한마음선원 팀에게 돌아갔다.

△금상 이정민(상명초등) 한유라(강릉자비원) △은상 오혜영(은석초등) 이강혁(은석초등) △동상 주영지(은석초등) 공영은(지장사)

청소년 단신

환경포스터·글짓기 공모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회장 성타스님)는 제5회 청소년 자연사랑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연사랑의 의지를 일깨우기 위한 이번 행사의 공모 주제는 '자연사랑·환경보호·공해추방'이다. 참가방법은 △포스터는 초등학생 8절지, 중·고등학생 4절지 규격으로 형식은 자유이며 △글짓기는 초등학생 2백자 원고지 10장 내외, 중·고등학생 15장 내외다. 우편접수 가능. (02)722-7552

인천청교련 운영위원 위촉

청교련 인천지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선일스님)은 4월29일 인천 올림포스호텔에서 99년 1차 운영위원회의를 가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시 교육청의 김기수 장학관과 한국케이블TV 남동방송 이판철 대표이사 등 25명의 운영위원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99년도, 제2차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자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소개 및 080불법폰팅 규제운동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모시는 글

반갑습니다.

미래불교를 위해 힘찬 정진을 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

제27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불교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고도 천년의 도시 경주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연수회는 여름불교학교를 맞이하여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법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 인원의 분반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어린이법회프로그램 공모, 전시 및 시상식으로 지도자들의 사기와 참여도를 높이며 석굴암에서 해돋이와 함께 새 천년을 맞이하는 21C 어린이 포교방향을 지도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기2543년 4월 좋은날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사단법인 불국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 총재 정관 ■ 부총재 혜총·철오 ■ 회장 덕진 ■ 상임부회장 정여
■ 부회장 운성, 설봉, 해관, 무등, 영조, 심산, 성형, 영진, 안성
■ 감사 지광, 박창식

제27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

"슬기로운 어린이, 활기찬 미래 불교"

♣일시 : 2543년 6월 5일(토)16시~6일(일)13시 ♣장소 : 경주온천관광호텔(0561-746-6661~4)

■ 동 참 금 : 3만8천원 (미리접수시-3만5천원, 군종병·도서벽지 지도자-2만원)
■ 참가대상 : 어린이 지도법사 및 교사, 어린이 포교에 관심있는 모든분
■ 지 급 품 : 1박3식, 연수회자료집,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교재, 여름불교학교용 찬불가 테이프, 포스터
■ 신청방법 : 1.실명인 관계로 송금하신 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반별수업(선택)으로 인해 미리 신청 바랍니다.
·기 간 : 5월1일~5월29일 까지(미리접수) ·접수담당 : 정희순
·우체국 : 601310~0037877-11 ·예 금 주 : 대불어 (조중환)
■ 강의준비물 : 마분지1장, 가위, 60cm나무막대기 1개, 칼, 샐로판 테이프
〔반별 수업중 강의 6 (만석중 놀이)을 신청하신 지도자님만 준비〕
■ 문 의 : 본회사무국 ☎ (051)808-4569~70 FAX(051)808-4571
PC 천리안 GO BOSAL (운영자 수신편지 이용)

♣제1회 우수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경진대회 공모 안내♣

우수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발굴과 보급·프로그램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21C 어린이 법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어린이 법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 래-

1. 주 최 : 사단법인 불국토
2. 주 관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3. 참가대상 : 전국 사찰 어린이회, 어린이지도자 및 단체
4. 응모기한 : 99년 5월 15일 까지 접수
5. 응모내용 : -현 어린이 법회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창작프로그램
-미래 지향적이면서 앞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6.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식 : 6월 5일 ~ 6일 연수회 중 (상장 및 상금 수여)
7. 기타 참가 안내 : 동련 6월호 참조, 각 사찰 어린이법회 공문

내 용		강 사	비 고
강의1 21C 어린이 포교의 방향		정련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강의2 부처님의 노래를 불러요!		정 유 탁	풍 경 소 리
강의3 '모닥불 놀이'준비에서 진행까지		박 철 수	도레미 이벤트 대표
만나서 좋은 벗이여'			지구별 모임
살아 숨쉬는 우리의 역사			석굴암 참배 및 해돋이
우수어린이법회 프로그램 전시			
반별강의	강의4 하나 : 재미있는 놀이의 현장	이 선 우	한국REC여가 협회강사
반별강의	강의5 둘 : 자연에서 부처님을 느껴요	장 상 욱	자 연 놀 이
반별강의	강의6 셋 : 만석중 놀이(파일놀이)	한 재 순	제주 무대미술연구
반별강의	강의7 넷 : 여름불교학교의 모든 것	조 정 미	천마초등교교사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강의8 우리의 것을 소중히 느껴요		박 옥 주	능암초등교교사

각 지역 문의처
·서울·경기지구 (02)433-1506~7 유지선 사무국장
·부산지구 (051)853-5486~7 이선경 총무차장
·광주지구 (062)365-0367 덕명사 무등스님 (본회임원)
·대전·충남지구 (042)633-1141 류재희 사무국장
·경남지구 (0551)242-0108 천명숙 사무국장
·대구지구 016-505-3143 김형중 사무국장
·제주지구 064)721-7942 김봉현 사무국장

본회 어린이 잡지 발간
「연꽃」어린이법회 교재

온·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주문전화 .....

02-732-1522

대표전화 :02-737-8881

인터넷 불교 백화점 mall. buddhapia는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몰, 부다피아에서 만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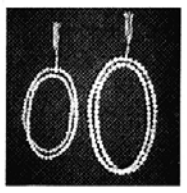
기도 청자 세트



₩ 25,000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양초, 향 각 한질, 촛대 바람막이2개

건강 옥 염주



종 류 · 청옥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 백옥염주(大) ₩ 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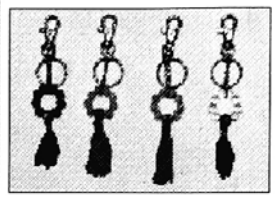


반야심경 종 차걸이

가격
낱개 ₩ 9,000

색상 :금색, 검정

단주 열쇠고리



종 류 검정, 밤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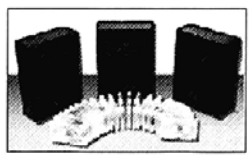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350,000
(개금)₩ 580,000

경전카드



가격 : ₩ 15,000 순금 99.9%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 금강경 강의 : 45,000원
■ 지장경 강의 :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45,000원

한국불교 총람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다기함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126,000
크기 : 50×39×15cm

찻 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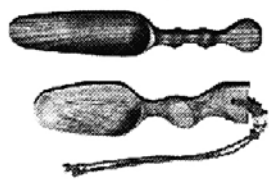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찻 상2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차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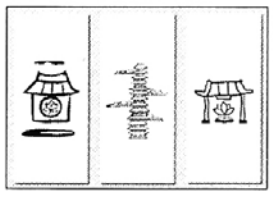
재질 : 참나무,고목,등 / 가격 : ₩ 15,000(1개)

화엄큰스님의 달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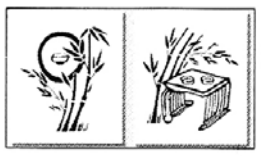
가 격
₩ 20,000
순금 99.9%

기도포



가격 ₩ 1,600 / 기장 84㎝ 폭 39㎝

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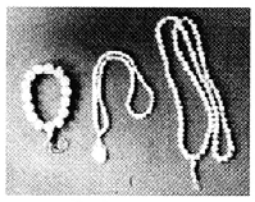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수암옥 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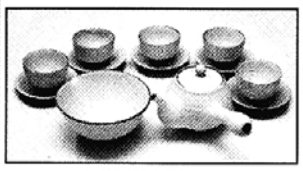
가 격
₩ 45,000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가 격 : ₩ 98,000

고산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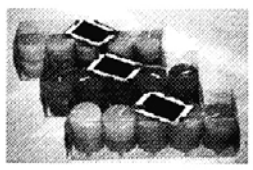
가 격 : ₩ 120,000

대나무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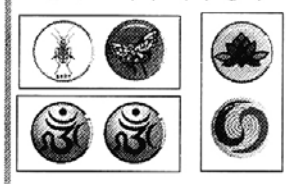
크기 9(세로)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리틀 향초



가격(10개입) : ₩ 5,000

유해 전자파 제거 장치



가격 : ₩ 9,000(1세트)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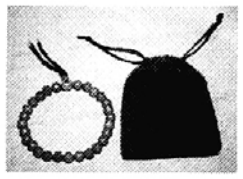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생광석 108염주



가격 : ₩ 35,000

생광석 단주



가격 ₩ 10,000

석풍 건강옥 카페트



가격 ₩ 138,000

크기 170㎝×240㎝ 바닥재 미끄럼방지
윗면 국내산 연옥 분말 1㎏ (우레탄+바이오
코선 펠트지 세라믹 처리)

석풍 건강옥 방석



크기 44㎝×44㎝
윗면 국내산 연옥 분말 가격 ₩ 9000
코선 펠트지
바닥재 미끄럼방지(우레탄+바이오 세라믹 처리)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색상 진녹 겉정
크기 55㎝(기로)
140㎝(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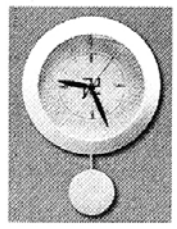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거산 죽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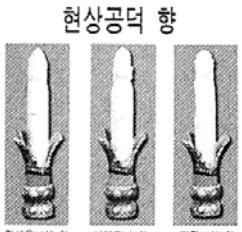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육바라밀 시계



가격
₩ 15,000

현상공덕 향



관세음보살 향 석가모니 향 지장보살 향
가격 ₩ 9,500 (1개당)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재질 등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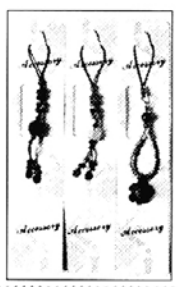
츰부다라니 불



재질 등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헨드폰 걸이



증류
거북이 ₩ 2,000
만 자 ₩ 4,000
무 상 ₩ 4,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청화대선사 법회 비디오



가격 : ₩ 15,000

부처님 일대기



가격 : ₩ 10,000
어린이용
만화 비디오 테잎

쑥 액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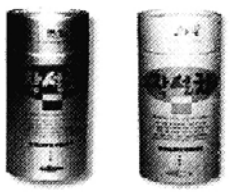
가격 : ₩ 50,000 (100g×60개입)

사자발쑥환



· 1달분 1통(1,500정) ₩ 55,000
· 2달분 2통(3,000정) ₩ 80,000

작설차 (우전 · 세작)



우전 ₩ 80,000 / 세작 ₩ 45,000

작설차 (중작 · 대작)



중작 ₩ 60,000 / 대작 ₩ 40,000
(2통 한세트)

일면스님 경

가격 ₩ 9,500 (CD)

전통식품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 (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부제,무조미료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판매가
· 고추장 1kg기준	12,000원	· 무 장아찌1kg	12,000원
· 된장 1kg기준	7,000원	· 마늘쫑 장아찌1kg	12,000원
· 쌈장 1kg기준	7,000원	· 된장 콩잎 1kg	12,000원
· 간장 1.8L	8,000원	· 된장 깻잎 1kg	12,000원
· 더덕 장아찌1kg	30,000원	· 된장 고추 1kg	12,000원
· 오이 장아찌1kg	12,000원	· 산초 장아찌 1kg	30,000원
· 감 장아찌1kg	12,000원	· 울외 장아찌(나나스키)1kg	12,000원

참선 명상 방석

· 실용신안 1999-025009
· 의장등록 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 보호 휴대가 간편함

가격 : ₩ 27,000
규격 39㎝×43㎝

경 상

가격 : ₩ 85,000 / 재질 ASH(느름원목)
규격 72㎝(가로)×34㎝(세로)×32㎝(높이)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 : ₩ 600,000

한국불교 총람 CD롬

가격 ₩ 60,000

참 선(명상의 말씀)

가격 ₩ 9,500 (CD)

불교 건통창살문양 손수건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문구 넣어 드립니다.
가격 : 1장 5,000원 (원색 칼라)

강석주 큰 스님 친필 관음 분청 도자기

분청 도자기는 일반 백도자기와는 달리 화로에서 구울 때 성공률이 25%내외의 밖에 되지 않으며 고온에서 장시간 굽는 등 제조 과정에 작가의 혼을 담은 정성이 깃들어야 합니다.
특히 석주 큰스님(91세)의 친필 관음찬이 관세음 보살님 그림과 같이 새겨져 있으므로 소장 하신 분의 가내 액화를 소멸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큰 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대선사님은
1909년 경북 안동출생
1923년 신학원에 출가
1928년 부산 범어사서 득도
1933년 범어사 강원 대교과 졸
1936-39년 오대산 상원사 · 금강산 미하연 · 덕숭산 정혜사 · 묘향산 보현사 선방서 안거
1953-84년 은해사 · 불국사 · 봉은사 · 은해사 · 관음사 주지
1959년 범어사서 대덕법계 품수
1961년 선학원 이사장
1965년 칠보사 조실
1971-84년 불교 조계종 제 7 · 17대 총무원장
1980년 초대 승가대학장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의장

•규 격 : 30×30×44(단위 센티미터)
•희망소매가격 : ~~1,000,000원~~
•특 판 가 : 495,000원

※작품보증서 첨부※

중정도예에서 만들어진 지다이분청자기는 조선시대 상류하던 분청자기의 형태와 기법을 더욱 승화 발전시킴으로서 보다 높은 도예 예술에 도전하고 있고 국내와 일본, 대만의 각종 도예전에서 입상 및 16회에 걸쳐 초청 전시회를 하였고 지다이분청자기를 어떻하게 재현시킨 이시대의 진정한 조선도공의 후예입니다.
한점씩 소장하시어 후손에게 물려주어도 작품의 값어치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법회안내

제주 불광포교원서 법문



월운스님(동국 역경원장) 29일 저녁 7시 제주시 불광포교원 초청법회. (064)748-3000

불교문화대전서 법문



철웅스님(파계사 성전암) 14일 오후 2시 99 한국불교예술대전 경주 행사장 특별법문. (0561)745-0374

초발심자경문 법회



정각스님(정각사 주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초발심자경문〉법회.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1시 불교교양대학.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법회. (0344)970-0553

16일 정토회 깨달음법문



박완일(전 조계종 전국신도회장) 16일 오후 3시 정토회 '이웃과 세상을 밝히는 깨달음의 지평' 주제 법문. (02)587-8994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5월13일 (목)

■ **불교문화硏 학술세미나**=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학술세미나 '2000년대를 여는 한국불교'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다. (02)2260-8507

5월15일 (토)



◇구고구난자 관세음보살의 영험과 아름다운 전설을 담고있는 무위사.

■ **무위사·관음사 순례법회**=불교신행연구원은 오후 3시 1박2일로 강진 무위사와 곡성 관음사로 제9회 신행체험순례법회를 떠난다. (02)582-6613555

■ **선학원 시민선방 철야정진**=선학원 시민선방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중앙선원 선방에서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또 선학원 선정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선방에서 실수 실참을 실시한다. (02)732-3327

■ **부산발전기원 3천배 철야정진**=부산광역시 불교연합봉축위는 오후 8시~16일 오전 4시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발전 기원을 위한 3천배 철야정진법회를 연다. (051)867-0501

■ **조계사 봉축기념 사진전**=봉축기념 사진전이 22일까지 조계사에서 열린다. (02)720-1390

5월16일 (일)

■ **무진법장사 국군장병위문법회**=무진법장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오전 10시 국군 57사단 군법당 호국 용마사로 국군장병위문법회를 떠난다. (02)932-2333

■ **지리산 실상사 참배**=옛돌은 지리산 실상사로 참배를 떠난다. 실상사의 불교문화재와 지리산 노고단의 철쭉도 감상한다. (02)2266-1233

■ **충정사 불교사경대회**=제3회 불교사경대회가 오전 9시~오후 12시까지 충정사에서 열린다. (02)735-5861



◇연등축제에 참가해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축하하자.

■ **초파일 연등축제**=불기2543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오전 10시~밤 10시까지 우정국로, 동대문, 조계사 일대에서 펼쳐진다. (02)735-5861

■ **제주불교거사림 봉축 점등대법회**=제주불교거사림 시민포교원은 오후 7시 부처님오신날 기념 혜국스님초청 봉축점등 대법회를 봉행한다. (064)753-7607

■ **산남지역 불교연합합창제**=제주 산남지역 불교연합 합창제가 오후 5시 서귀포 학생문화원에서 열린다. (064)755-2203

■ **어린이불교우화 공연**=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제주지부는 16일과 30일 평화통일불사리탑과 서귀포 약천사에서 어린이 불교우화를 공연한다. (064)702-4233

■ **미얀마 고승 우 자나카 큰스님 초청법회**=봉은사는 오전 10시 30분 미얀마 고승 우 자나카 큰스님 초청법회를 대웅전에서 봉행한다. (02)511-6070

5월17일 (월)

■ **무차연등회 및 연등대제**=조계종 봉축위원회는 무차연등회 및 연등대제를 22일까지 서울 탑골공원에서 연다. (02)735-5861

■ **결식아동돕기 작은 음악회**=조계종 봉축위원회는 결식아동돕기 작은음악회를 22일까지 탑골공원에서 연다. (02)735-5861

5월18일 (화)

■ **남한강변 옛절터 순례**=국토문화연구회는 오전 8시 신라와 고려초기의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여주 고달사, 원주 흥법사, 법천사, 거돈사 등이 남아있는 남한강변 옛절터로 순례를 떠난다. (02)2261-1313

5월19일 (수)

■ **불교인권문화제**=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양심수들을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제1회 불교인권문화제가 오후 6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02)725-4275

종단소식

조계종

한암스님 탄신 124주기

평창 월정사(주지 현해)는 12일 오전 11시 적광전에서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한 한암대종사의 제124주기 탄신추모재를 봉행한다.

이날 오후1시 한암문도회(회장 인허)는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한암스님과 탄허스님 사리탑비의 재건립 계획과 탄허스님의 문집발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곡사 송림욕 도로 개설

공주 마곡사(주지 진허)는 18일 산신제를 지내고 천연송림욕 등산로를 개통한다. 마곡사 대웅전앞 은적암 입구-활인봉(해발 432m)-나발봉(417m) 등으로 이어지는 이 등산로는 경사가 완만해 어린이와 부녀자 노인들도 올라가기에 무리가 없다.

태고종

금강정사 소년원 위문

대전시 금강정사(주지 월해)는 15일 대전소년원을 방문하고 수계법회 및 위문공연을 갖는다. 금강정사는 이날 수계법회후 소년원생들에게 다과를 베풀고 염주와 불서들도 보시할 예정이다.

염불사 차량용 연등보시

수락산 염불사(주지 호명)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행사 일환으로 15일 신도들이 직접 제작한 차량용 호신연등 1,500개를 수락산역 도로에서 운전기사들에게 나누어준다.

천태종

삼광사 한글학술상 시상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13일 오후 6시 삼광사 지관전에서 제6회 대학생 논문발표대회 수상자 및 제12회 삼광한글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한편 삼광사는 22일 오후1시 지관전에서 삼광백일장, 찬불가 경연대회, 독경대회를 갖는다.

만월사 관음존상 봉안

전주 만월사(주지 갈수)는 관음존상 봉안 및 이전법회를 27일 오전 10시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산 95-1에서 봉행한다.
(0652)232-7588

진각종

보현심인당 주교 도흥처무

4월 30일자로 대구 보현심인당 주교에 도흥처무가 임명됐다. 도흥주교는 대구교구청 처무와 경주교구청 처무를 지냈다.

심지심인당 노인대 개설

심지심인당은 4월 21일 금강불교노인대학을 개설, 6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불교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화엄종

월성대종사 조사전 기공

창건주이자 초대 종정 능해 월성 대종사를 기념하기 위한 조사전의 건립 기공식법회를 25일 오후 2시 인천시 약사사에서 봉행한다. 월성대종사는 재단법인 화엄승가 장학재단과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장학회의 두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약사사와 해광사를 창건했다.

총화종

영동 천국사 경로잔치

영동 천국사(주지 해정)는 14일 오전 11시 총화종 충북종무원 현판식과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6·25전쟁 상이용사를 위로하기 위한 경노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경노잔치에는 동광종정, 야옹 원로원장, 남정 총무원장 등 종단 간부들과 노인 등 7백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량종

'불교란 무엇인가' 법보시

총무원장 령관스님은 〈불교란 무엇인가-진실한 삶을 찾아갑시다〉 책을 펴내고 법보시하고 있다. (02)3216-1600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 시 판

♣ 알림

▲**즐거운 목욕탕**=피안사회복지관에서는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무료이동목욕봉사 즐거운 목욕탕 사업을 전개한다. 특수제작한 전자동 이동목욕차량으로 매주 월~토요일 활동을 펼친다. (032)881-8226

♣ 강좌

▲**위빠사나**=강남포교원에서는 위빠사나강좌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오후 7시에 수선당에서 지도한다. 교재는 〈대념처경〉 〈청정도론〉이다. (02)539-2631

▲**무료 단전호흡**=자양사회복지관에서는 매주 월, 수,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일반인과 주부를 대상으로 무료 단전호흡강좌를 실시한다. 각종 성인병예방과 기수련을 한다. (02)458-1664

▲**능엄경 연찬강독**=대구 능엄선회는 〈능엄경〉 연찬 강독 및 통신강좌 과정을 신설했다. 6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1학기에 9만원. 매월 4째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강의한다. (053)473-6700

▲**직장인 불교교리강좌**=동산반야회는 6월 2일부터 직장인을 위한 불교교리강좌를 개설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동산법당에서 실시한다. (02)732-1206

▲**수화교실**=신도림복지관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6시30분 3개월 기초과정의 수화교실을 연다. (02)631-9792

▲**노인 여가·건강교실**=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전남 담양 두암신협연수원에서 노인복지교실을 연다.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62)266-3853

♣ 모집

▲**자원봉사자**=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생활실태조사, 안부전화, 밑반찬배달지원, 빨래방서비스,이미용서비스, 차량지원, 병원동행, 학습지도, 행사보조, 전문강의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458-1664

▲**무진법장사 주민선방**=무진법장사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 개설하는 주민선방 이용자를 모집한다. 선, 명상, 단전호흡등을 지도하며 참가비는 한달에 3만원이다.
(02)932-2333

▲**아미타정토대학**=전국염불만일회는 아미타정토대학을 신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규반과 통신반으로 운영하며, 정토불교를 적극 신행코자 하는 이면 된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동산교육회관에서 강의한다. 강의내용은 정토사, 염불요문, 정토미술 등 17개 과목이다. (02)732-1206

▲**티벳스님 후원자**=불교신행연구원은 인도에 망명해 수행하고 있는 티벳스님들을 도와줄 후원자를 기다린다. 월 2만원이면 한 사람의 스님을 한달간 지원할 수 있다.
(02)582-6613

♣ 답사

▲**안동 선비마을**=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15~16일 안동 선비문화를 찾아서 답사를 떠난다. 안동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도산서원, 봉정사 등을 둘러본다. (02)722-9747

♣ 화촉

▲**조계종 종회사무처 박재현 사무계장**은 16일 낮 12시 서울 종로5가 이화예식장 2층 달실에서 한혜원씨와 화촉을 밝힌다.

▲**대구 불교방송 이효진 아나운서**는 9일 전주 호텔코아 2층 백합실에서 홍성훈씨와 화촉을 밝혔다.

♣ 부음

▲**대구 불교방송 박명한기자의 모친 공정자씨**가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
솔선식(2개월 ₩500,000), 솔효소정액(2월 ₩500,000)
익수영진고 (2개월 ₩1,000,000), 치신왕기환(3개월 ₩500,000)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자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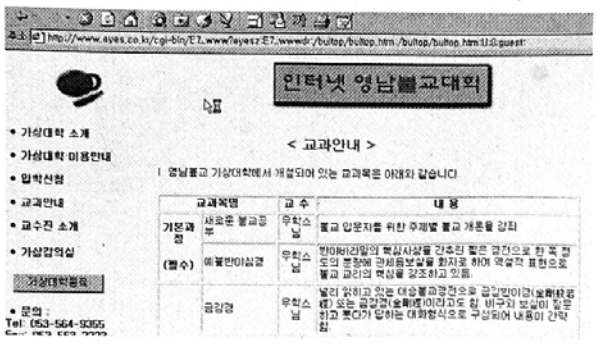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국내 첫 가상불교대학 떴다



◇3일 개교한 인터넷영남불교대학 홈페이지 화면.

영남불교대 개교… '인터넷' 안방수업
직장인·해외교포 교육포교 새전기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가상불교대학이 국내 처음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은 컴퓨터 통신업체인 나우누리와 계약을 체결, 3일 인터넷영남불교대학을 개교했다. 도메인은 www.cyberbuddha.or.kr

이 대학은 강사의 음성파일과 교재내용을 매주 한차례씩 인터넷에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강의실과 똑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은 물론 직장인이나 해외거주자들도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않고 양질의 불교강의를 접할수 있게 됐다.

컴퓨터세대를 겨냥한 가상불교대학의 개교로 불교교양교육은 정규교육과 우편통신교육에 이어 인터넷교육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됐으며 교육포교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교수진은 무비(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우학(영남불교대학장) 자광(김룡사주지) 삼중(부산 자비사 주지) 스님이며 교과목은 기초교리·예불·반야심경등의 기본필수과목과 금강경·법화경·원각경·계초심학인문 등의 고급 선택과목으로 구성돼 1년 교양과정과 2년 정규과정으로 나눠져있다. 2년 정규과정을 졸업하면 포교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인터넷대학에 입학하려면 통신가입비 1만원과 월사용료 1만1천원(5월에 한해 7천7백원)을 내야하며 과목당 2만원의 수강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대신 홈쇼핑이나 정보검색등 컴퓨터 통신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게되며 년1회의 인터넷교육에도 무료로 참가할수 있게 된다.

인터넷 불교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윈도우95나 윈도우98의 운영체제를 갖춘 486이상의 IBM호환기종 컴퓨터로서 8MB의 메모리와 14,400bps의 모뎀을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이기도 한 우학스님은 "생활속에 실천하는 불교를 구현하기 위해 인터넷불교대학을 개교하게 됐다"며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정규교육과 다름없는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053)564-9355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영부인 이희호 여사 퇴계어린이집 방문
선물주고 강당건립 약속

대통령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3일 불교계 보육시설인 춘천 퇴계연꽃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여사는 약 1시간에 걸쳐 어린이집의 시설 및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자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여사는 이 자리에서 "맑고 향기롭게라는 원훈답게 아이들을 바르게 기르고 있어 고맙다"며 "어린이들이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숙원인 강당건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여사는 각 교실을 둘러보고 어린이들에게 일일이 선물을 나누어 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줄 것을 당부했으며,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그림을 선물로 받았다.

퇴계연꽃어린이집(원장 혜육)은 93년 설립돼 자비원과 봉덕사가 후원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불국토, 용호복지관 운영
무료급식소·예식장·어린이집 등 갖춰

사회복지법인 불국토가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총) 위탁운영자로 최종 결정됐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교계에서 6번째로 운영하는 복지관으로 96년 개관돼 재가복지봉사센터, 무료급식소, 용호어린이집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남구 용호3동 소재의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로 요리방, 공부당, 식당, 용호어린이집, 노인사랑방, 독서실, 예식장, 컴퓨터실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예식장과 어린이집은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12일 오후 3시 혜총 신임 관장 취임식을 기점으로 불국토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복지사업에 들어간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제주 봉축위 '자비행사' 다채
양로원·소년원등 위문…합창·무용제도

제주지역 봉축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다.

제주도불교연합봉축위원회(위원장 수암)는 독특한 제주의 전통문화와 어울리는 이벤트기획과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자비행사로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 14·15일 제주시 탑동광장과 서귀포 1호광장에서 봉축탑 점등및 탑돌이 행사와 나라와 도민안녕을 위한 기원법회를 19일 불다클럽주관으로 제주 칼호텔에서 개최한다.

또 제주지역 20개 합창단이 참가하는 제주불교합창제가 13일 제주도문예회관 공연을 시작으로 16일 서귀포학생문화원등에서 열린다. 천진불어린이무용단도 18일 제주도문예회관에서 공연을 갖는다. 올해 창단한 법화불음봉사단은 8일 제주도문예회관에서 첫공연을 열었다.

제주지역 초·중·고 그림그리기 대회는 16일 관음클럽주관으로 신산공원에서 펼쳐진다. 특히 연꽃모임과 제주도사회봉사회는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계층을 위해 일일찻집을 열고 제주양로원, 소년원, 교도소등을 방문하여 대대적 자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장애인 설악산 등반대회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은 1일 2급 이상 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설악산에서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장애인에 재활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등반대회에는 경동대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했으며, 지역민간단체인 금강봉사회에서도 대회 비용을 후원했다.

한명우 기자

무명 밝히는 법등 되길…
부산·대구 봉축탑 점등

부산봉축위원회(회장 성오)와 대구봉축위원회(위원장 성덕)는 4일 부산역 광장과 대구시청앞에서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하며 본격적으로 봉축행사의 장을 열었다.

부산봉축위는 이날 성오스님(부산불교연합회회장), 안상영 부산시장,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 회장을 비롯 1천2백여명의 불자와 시민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탑을 환하게 밝혔다.

성오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오늘 밝힌 이 등불이 국민화합과 부산시의 발전을 가져오고 중생들 모두의 마음을 밝히며 타오르길 바란다"말했다.

이날 점등식에 이어 한마음 선원에서 2천3백여개의 촛불로 '내사랑 부산 부처님과 함께'라는 봉축 슬로건 글자를 밝혀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대구봉축위도 성덕(동화사주지), 원명(대구사원련회장), 경희(서봉사주지), 혜공(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부원장) 오공(법화종 대구경북종무원장)스님과 진각종 현수정사, 최동원 대구신도회장, 유상종 대불회장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 시청앞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가졌다.

성덕스님은 점등사에서 "부처님께서 이땅에 오신 참뜻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대립과 반목을 일소하고 평등과 평화를 구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윤호·천미희 기자



◇대구봉축위는 4일 대구 시청앞에서 1천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법회를 가졌다.

'화합·통일기원' 미륵대불 건립
완주 송광사…높이 12m

완주 송광사(주지 지원)는 10일 혜정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 도영스님(금산사 주지)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족의 통일과 화합을 기원하는 미륵대불 봉안및 만등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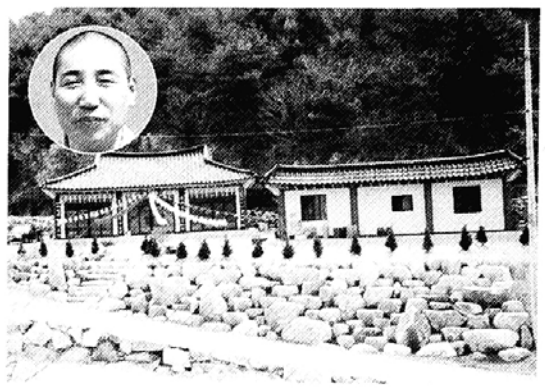
이날 봉안된 미륵대불은 세로 18m 가로 22m의 석단에 불상 7m, 좌대 5m로 총 12m 크기이다.

지원스님은 "미륵부처님을 모셔 우리의 각오를 다시한번 다지고 더욱 정진하여 끊어진 한반도의 아픔을 치유하는 민족통일의 염원과 호국도량으로서 민족과 지역이 화합하는 초석이 되고자 미륵부처님을 모시게 됐다"고 밝혔다.

완주 송광사는 신라경문왕 7년 구산선문의 개산조인 보조국사 체징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병자호란 당시에는 승병대장인 벽암 각성대사등 7백여명의 스님이 전주사고를 지켰던 민족의 역사적 영욕을 함께 했던 호국도량이다. 특히 대웅전 나한전 지장전 불상은 나라의 큰 변고가 있을 때마다 땀과 눈물을 흘리는 이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김원우 기자

우리절 불사 포천 구담사



◇4월25일 개원한 태아영가천도도량 포천 구담사 전경. 원안은 주지 지율스님.

태아영가 천도도량 조성
신도들 매일 5천원 보시 참회공원 1천 석불 봉안

이세상에 미처 새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고 무주고혼이 되어 갈길을 잃고 헤매는 미생태아를 불심으로 제도하는 도량이 만들어졌다.

포천 구담사(龜曇寺, 주지 지율)는 97년 11월부터 태아영가 천도도량을 염원하며 포천군 이동면 연곡4리 민둥산 자락 불당계곡에 터를 잡고 불사를 시작했다.

태아영가도량을 만드는데는 마하심보살(서울 중곡동)등이 매일 5천원씩 불사금을 올리며 기도하는 등 십시일반 신도들의 정성이 모아졌다.

4월 25일 1차로 법당 30평과 요사채 60평불사, 주변정리및 조경작업을 완공하여 아담한 태아영가도량의 골격을 갖췄으며 법당에 태아영가를 보호한다는 귀자모신상을 조성하여 봉안했다. 귀자모신은 불설귀자모경과 법화경 다라니품에 나오는 신이다. 귀신대왕의 처인 아차녀가 어린이 살생을 부처님전에 참회하며 '앞으로는 세세생생 10세미만의 어린이나 낙태아를 제도하는 해산·유아양육의 신이 되겠다' 서원한 기록에 연원한다. 귀자모신상은 목아불교박물관장 박찬수씨가 조성했다.

구담사는 개원과 더불어 산신각과 대웅전, 태아영가 참회공원등 2차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내최초로 만들어지는 태아영가 참회공원은 올해 말까지 절앞 노천에 1천불의 애자모석불을 조성하여 영가를 천도하고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참회한다는 계획이다.

구담사는 태중영가 천도식을 일년에 세차례씩 마련한다. 7월 백중이전에 두차례와 가을에 한차례씩 49재를 치른다는 것. 문의 (0357) 533-2855

앞으로 군부대포교에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지 지율스님은 "생명경시 풍조로 유산과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며 "불성의 고귀한 씨앗이 한으로 남지 않도록 미생태아들을 천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담사는 4월 25일 월운(봉선사 회주) 말운스님(봉선사 주지)을 비롯하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거행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코스

밝은길 아봐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 아봐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어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5월의 새싹불자들 불국토를 그린다

불교 백일장-그림대회마다 '어린이 큰잔치'



◇5일 봉은사에서 열린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에는 새싹불자 2천5백명이 동참하는 성황을 이뤘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가꾸는 동심불심이 늘어나고 있다.

5월,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을 맞아 열리는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 대회가 해마다 풍성해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수가 늘며 새싹포교에 단단히 한 몫하고 있는 것.

5일 봉은사에서 열린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리기 대회를 비롯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스님)은 9일 무등산 증심사에서 제1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가졌다. 제주불교관음클럽(회장 김정자)은 16일 제주 신산공원에서 전도 초·중·고등학생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며,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스님)도 16일 제10회 목청 백일장 대회를 갖는다. 이밖에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도 9일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열고 수상작을 21일부터 불국화랑에서 전시하며, 해남 대흥사(주지 보선)는 10일 제5회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를 열어 많은 어린이들이 동참했다..

이처럼 행사에 어린이들이 몰리는 이유는 '법당'이라는 공간을 뛰어넘어 사찰 주변의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부처님과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간 〈불광〉과 목아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리기 대회'는 해마다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가장 큰 교계 어린이날 행사로 자리잡았다. 2천5백 여명이 참가해 큰 성황을 이룬 올해 대회는 부처님 그리기와 함께 레크리에이션과 장기자랑,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 놀이마당'이 진행돼 부처님 모습도 그리고, 김용대 화백의 달마도 시현과 박찬수씨의 불상조각 시현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마음에 불심을 수놓았다. 종합대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은 수영복을 입고 안경을 쓰고 있는 부처님을 그린 대림초등학교 1학년 이태이 어린이가 수상했다.〈종합대상그림 19면 게재〉

대불청 광주지구(지구장 이주성)가 2일 광주 원효사에서 주최한 제7회 연꽃피우는 백일장 대회에는 예년보다 많은 5백 여명이 참가, 시와 산문으로 부처님을 표현했다. '나의 세계로 부처의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시부문 대상은 '나무'를 자비로운 부처님에 비유한 치평중학교 1학년 김혜진 양이 차지했다.〈대상작품 19면 게재〉

9일 무등산 증심사에서 올해 처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 호응을 얻은 광주불교교육원장 영조스님은 "어린 불자들이 그림이나 글을 통해 마음속의 부처님을 그리며 자연스럽게 불심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한강다리마다 봉축깃발 '펄럭'

종단별 불기·종단기 게양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깃발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휘날리게 됐다.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성수대교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한남대교, 총지종(통리원장 총지화)은 동호대교, 강화사암연합회(회장 향적)는 강화대교에 각각 불기(佛旗)와 봉축기 그리고 종단을 상징하는 깃발을 15일부터 부처님오신날인 22일까지 게양하게 된다.

월드컵 깃발 공식지정업체인 (주)아멕스와 불교이벤트 '선우기획'이 후원하는 이번 봉축깃발 달기 행사는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서울 시내 주요 다리에 봉축기와 종단기를 휘날리게 하므로써 부처님오신날을 널리 알리고 봉축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도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각종은 1일부터 7일까지 교계 최초로 마포대교에서 아현 사거리에 이르는 3㎞ 구간에 진각종을 상징하는 금강륜 깃발과 봉축깃발을 게양, '진각종의 거리'를 조성해 눈길을 모았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동트는…' 불교비방 관련 강원도지사 사과공문

강원도의 홍보용 계간지인 〈동트는 강원〉 봄호에 불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된 것〈본지 221호 23면 참조〉과 관련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4월29일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주지 현해) 앞으로 사과공문을 발송했다. 김 지사는 공문을 통해 "〈동트는 강원〉 봄호에 양양 한남초등학교 이재풍교장이 투고한 글이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르게 게재되어 불교계에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다"면서 "다음호에 이 교장의 해명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뉴스 & 뉴스

제천 황룡사 삼존불 점안



약사여래불을 주불로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을 협시보살로 한 3존불이 노천에 봉안된다. 규모나 조성방식이 석조 통불로 15m와 12m의 우람한 위용을 드러내는 3존불〈사진〉은 제천 황룡사(주지 상묵) 3년불사의 결실. 치병기도로 널리 알려진 약사도량 황룡사는 이번 불사를 통해 명실상부하게 약사여래 주불을 조성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2일 오전10시 열리는 점안대법회는 교계 중진스님들과 지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스럽게 진행되며 이어 2부 연예인 불자들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원효성사 추모 무차법회

원효성사 열반 1313주기를 추모하는 제향대재 및 무차법회가 14일 분황사에서 개최된다. 원효학회·원효학연구원(이사장 성타스님)과 이차돈원효양성사봉찬회(이사장 혜인스님)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제향의식에 이어 우리춤 가락 한마당으로 펼쳐지는 무차법회로 마련된다.

전두환씨 부·마법회 참석

전두환 前대통령이 부산·마산지역 법회에 잇따라 참석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전 전대통령은 6일 마산 삼학사와 마산·창원불교련 주최의 국민화합민족번영 기원법회에 참석했으며, 9일에는 양산 천불사법회에 참석해 기원사를 했다.

종무관리 새 프로그램 출시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됐던 '상황사찰 종무관리' 프로그램이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제품으로 출시됐다.

조계종정토회(회장 효란스님) 전산사업부는 최근 '상황사찰 종무관리 Ver 5.0'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우편물 낱장용지 인쇄, 재정관리, 위패용 그림을 내장시키는 등 기존 프로그램에 없는 기능을 추가했거나 있더라도 그 기능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이 프로그램을 구매할 경우 특별할인가 40만원에 보급한다. 이후에는 70만원이다. (02)998-6026

충북도·불협의회 결성

충북불교총연합회(회장 혜광스님)와 충북도(도지사 이원종)는 불교계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지역발전을 위해 '충북도·불협의회'를 결성, 6일 기념법회를 갖고 혜광스님과 이원종 지사를 공동의장으로 선출했다.

범어사의 억울한돈 60억

憲裁 택지소유상환제 위헌판결

범어사 세금 성실납부 오히려 피해

4월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재판관)가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삼보정재인 토지를 처분하여 60억원의 세금을 성실납부한 범어사가 피해를 보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 시행 이전의 택지소유자들에게 스유경위나 목적을 불문하고 예외없이 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혀 사찰 비업무용 토지인 범어사에 택지소유상한세를 부과한 것이 잘못임을 뒤늦게 인정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번 결정으로 부담금납부를 미뤄왔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구제의 길이 열린 반면 이미 납부했거나 패소판결을 받은 범어사등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게 돼 법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법제정 목적이 부동산투기를 막고 국민들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임에도 택지초과소유상한제는 전통사찰의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소유한 토지에 부동산투기와 같은 맥락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물의를 빚어왔다. 특히 범어사는 선대부터 내려온 부산 금정구 청룡동 일대 2만여평에 세금이 부과돼 부산고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돼 토지를 매각하여 택지소유상환금을 납부했었다.

이와관련 범어사는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뒤 적극적인 법적 대응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총무원 재무부도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지초과소유상한제는 89년 12월 제정한 것으로 서울등 6대 광역도시에 2백평 이상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 취득시 허가를 얻어야 하고 처분 또는 개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택지 공시지가의 연4~11%의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찰·단체 경로잔치 잇달아

경불련·불암사·홍천사등 택시 50여대 자원봉사도

경제정의실천 불교시민연합 자비의 집(회장 동광스님)은 14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무의탁 독거노인초청 법문및 노인잔치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무의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에게 봉선사 주지 밀운스님이 법문을 설하고 봉선사에서 점심공양을 베푼다. 노인들은 광릉수목원에서 산림욕을 하며 민요잔치와 놀이한마당을 펼친다.

불교방송통신원불자회 개인택시 30대와 적십자 129봉사대 개인택시 20대 등 운전기사들이 서울과 경기도 각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무의탁노인들을 모셔오는 차량보시활동도 펼칠 예정.

남양주 불암사(주지 일면)는 14일을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는 날'로 정하고 오전 12시 남양주시 별내면 복지회관에서 지역노인 4백여명을 초청하여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불암사는 가수 박우진등을 초청하여 음식과 노래등을 노인들에게 공양한다.

군산 흥천사(주지 지환)도 16일 오후2시 경내에서 70세이상노인 전원을 초청하여 경로잔치를 연다.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흥천사 경로잔치는 죽심회의 국악공연, 흥천사 유치원생들의 재롱잔치, 전북대 무용과학생들의 무용공연, 노인장기자랑이 펼쳐진다. 이날 행사는 지환스님이 자비의 코끼리 저금통 1천개를 제작하여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 못다한 효도를 해야겠다는 마음, 세상을 따뜻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담아 저금통을 채워보자고 신도들에게 제의해 되돌아온 5백여개를 개봉해 마련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사 발심대법회 15일부터 1주일동안

조계사(부주지 지홍)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5일부터 '른스님 초청 발심정진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 법회는 1주일 동안 매일 오전10시 대웅전에서 봉행되며, 법사스님은 다음과 같다.

△15일 고산 조계종총무원장 △16일 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 △17일 지홍스님 △18일 활안스님(송광사 천자암 조실) △19일 무진장스님(전 포교원장) △20일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21일 정락스님(용주사 주지, 전 포교원장).

정성운 기자

세계종교연합준비기구 한국지부 15일 창립

URI(세계종교연합창설선도기구) 한국지부가 15일 창립총회를 서울 삼소방에서 갖는다.

1995년 국제연합 창설 50주년을 맞아 그 필요성이 논의된 URI는 종교 및 정신적 공동체들 사이에 협조와 평화조성을 위한 상설협의기구로서의 종교연합 창설에 대한 세계적 담론의 결과이다. 현재 50여개국의 50여개 종교전통이 종교연합을 통해 세계평화와 공동선 성취를 위한 전망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신도림복지관 '소비자 상담실' 개설

구립 신도림복지관(관장 유혜주)이 지역내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3일 소비자 상담실을 개설했다. 소비자 상담실은 소비자 문제 해결 및 소비자 의식 고취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신도림복지관은 바자회 등 소비자와 관련된 전시대회 등을 열어 올바른 소비자 자세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외부 강사를 초빙해 격주로 소비자학 관련 도서와 논문을 테마로 한 스터디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와 연계, 소비학을 전공한 진흥회 연구원 3명을 지원받아 매주 1회 집중상담을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평상시에는 복지관장이 직접 상담을 받는다.

유혜주 관장은 "소비자 폐해를 해결하는데 앞장섬으로써 불교복지의 이미지를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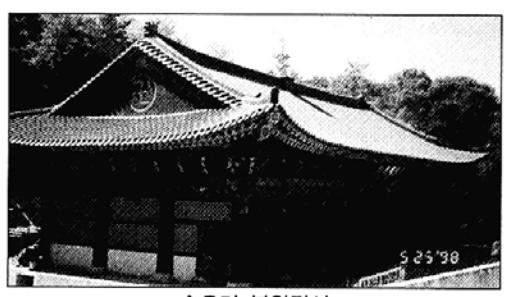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천년의 생명을 가람동기와가 함께 합니다."

가람 동기와의 장점과 특징

1. 반영구적인 기와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동파로 인한 기와의 손상이 전혀 없어 지붕의 변형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완벽한 방수가 가능합니다.
암기와 숫기와는 비, 바람, 물의 역류를 막을 수 있게 설계 제작되어 완전 방수가 가능하여 건물의 목재를 보호합니다.
3.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장식 Box로 포장되어 운반, 보관의 편의성은 기본이고 평당 중량이 45kg으로 (흙기와 680kg, 청기와 550kg)가람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시공이 간편합니다.
완전조립시공으로 인한 시공의 간편함으로 인한 불사의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줍니다.

※ 가람 동기와에서는 생산, 시공을 본사가 직접 책임을 다하므로 불필요한 사항을 감소합니다.


수유리 본원정사


강화 백련사

가람동기와 ☎ 02)720-5121 FAX. 02)732-3769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B/D 202호

절을 향한 마음 우리절 이정표가 있습니다.

규격간판(도로 지주용 간판)에 허가 대행, 제작, 설치를 가람기획 이 담당하겠습니다.



가람 기획 간판의 장점

1. 스텐레스 재질로 반영구적임으로 수명이 길다.
2. 야광 스텐레스로 밤에 판넬 자체 발광으로 위치확인이 명확합니다.
3.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4. 가격이 저렴합니다.
5. 녹슬고 칠이 벗겨져 보기 흉해지지 않습니다.

가람 기획의 장점

1. 현재 까다로운 관공서의 규격 지주용 간판 허가를 대행합니다.(설치법규는 건설부 지침임)
2. 설치날짜의 기간을 준수합니다.

취급품목 사찰안내간판, 사찰연혁판, 전주용간판, 게시판, 현수막, 목간판, 아크릴판, 상패, 불사, 각종행사등…

가람기획

신행수기 당선작 (진흥원이사장상)

사섭법을 애인삼아 ③ · 끝

양보리심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그림 · 문병성

'일체유심조' 귀에 익은 말인데 무슨 뜻일까 산을 내려오는데 이상할만큼 몸이 가볍고 그렇게 아프던 허리·손·머리가 아프지 않다

그 밤 부처님과 나와 촛불이 삼위일체가 되어 실컷 울었다. 한참을 울다가 눈을 부비니 옆에서는 향불이 모락모락 향내음을 풍기면서 피어오르고 동시에 탁한 공기 나쁜 냄새 등을 모조리 흡수하고 있었다. 나는 중생이 괴로우면 부처님도 같이 울어주셔서 대자대비(大慈大悲)하신 부처님이라고 하는가보다 생각하면서 피어오르는 향불을 바라보았다. 순간 폭풍이 일던 가슴이 스르르 가라앉고 평온이 찾아오면서 졸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자기 몸을 태우면서 주위를 밝혀주고 눈물 흘리는 촛불을 부처님의 대자비로 생각했다. 모락모락 연기를 피우면서 내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평온을 가져다준 향불은 육바라밀중의 무외보시라고 생각했다.

이윽고 은은한 종소리가 잠결에 들려오고 밖에서는 도량석을 치는 목탁소리가 들려오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른 일어나서 한쪽편에 서있으니까 노스님 한분이 들어 오셔서 상단을 향하여 삼배를 올린후 나를 보고 "절아를 하시었소" 하셨다. "네" 하니까 "잘 참아 내셨구만" 하시면서 결가부좌를 틀고 앉으시더니 혼자말로 "일체가 유심조라오" 하셨다. 분명히 나를 보고 하신 말씀인데 무슨 뜻일까? '일체유심조'라. 어느 책에서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번 들어서 귀에 익은 소리 같기도 한데 딱히 무슨 뜻인지는 알쏭달쏭 잘 모르겠다. 아무튼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이겠지. 나는 일상대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을 내렸지만 너무도 궁금하여 "저… 스님…" 하고 부를려다 입을 다물었다. 노스님은 그사이 참선삼매에 깊히 들어가신 것 같아서였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공양주에게 물어보니 노스님은 운수행에 나섰다가 우연히 문수사에 들러서 잠깐 계시는 중이라고 했다. 나는 그후로는 노스님을 한번도 못만났다. 동이틀 무렵 산을 내려오는데 이상하리 만큼 몸이 가볍다. 그렇게도 많이 아프던 허리도 안아프고 손가락도 부기가 빠져서 곧다 오므렸다 해도 전혀 아프지 않았다. 너무 신기해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아도 머리를 흔들어 보아도 어지럽지도 않고 상쾌하다. 나는 '부처님의 위신력이 이다지도 신기하구나' 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혹시나 했는데 그후로는 다시 재발하지 않고 건강을 되찾은 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은혜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그후로 장남은 졸업하여 공채로 대기업에 취직하고 딸은 국가가 시행하는 중학교교사 자격시험(순위고사)에 합격하여 지금도 교편생활을 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착실하게 공부를 하여 절반은 장학금으로 보태고 절반은 학자금 융자로 충당했다. 나는 작은 수입으로 할부금을 지불하는 고된 생활을 계속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다시한번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막내아들에 대해서는 대학에 입학한 경위를 쓰고싶다.

1980년도에는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어 본고사가 폐지되고 학력고사와 내신성적으로 입학이 결정되던 때이다. 평소의 실력은 우수하여 내신성적은 일등급이었는데 학력고사 성적이 만족스럽지가 못했다.

위 나 환경도 복잡한데다 여건도 나빠서 대학에 못들어가지나 않을까 하는 감박관념에 시험 치르는 날에도 혼란이 온것 같았다. 하는수 없이 성적에 맞추어 S대학 신문방송학과에 응시하여 쉽게 합격은 했지만 기일내로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는데 등록마감 3일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S대학은 학칙은 까다로워도 우수한 학생은 구제를 해주는 아량도 있었다. 형편이 어려워 등록을 못한 것을 알고는 신입생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장기융자(졸업후에 갚는 것) 추천서를 주어서 그날로 등록을 마치고 몇일후에 실시하는 신입생 레크리에이션에 참가를 했으니 내 아들과 S대학은 특별한 인연이 있는것 같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후는 수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국영기업체에 취직하여 열심히 살고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두고 타고난 운명이라고 하는건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갈 기미가 보여 모처럼 집안에 활기가 찼는데 막바지 고개에서 그해를 못넘기고 오랜 부병생활을 하던 남편이 재기의 꿈도 펼쳐보지 못한채 재차 쓰러져서 사망하고 말았다. 조금만 더 살았어도 좋은 일을 볼수 있었을터인데…. 아무리 인명은 재천이라고 하지만 너무도 박복한 그의 생애가 참으로 애석하기만 했다.

세월이 약이란 말처럼 그동안 많은 풍파를 겪으며 고달픈 세월을 살았다. 올바른 삶의 실현을 염원하며 때로는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남이 보기에는 우직스럽게도 보였겠지만 세월이란 이 거대한 약으로 내 가정의 모든 중병은 다 치유가 된 셈이다. 나는 천성적으로 융통성이 없다. 아무리 쓰라린 아픔이 있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남에게 사정을 하며 매달리거나 하소연을 해본 적이 없다. 모든 일은 나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지으면서 그저 초연하게 사는 것이 내 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다. 일가친척에게는 마음아파 할까봐, 친구에게는 나의 초라한 몰골을 보이기 싫어서, 종창생에게는 자존심이 상해서, 의식적으로 그들을 멀리하면서 힘겹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아무데도 걸림이 없어 아주 편안하다.

> 고생하며 얻어진 인내력은 나의 큰 재산이 되었다 급한일에 당황하지 않고 어려운 일에 절망 않으며 화가나는 일에 분심을 발하지 않게도 되었다

고생을 하면서 얻어진 나의 인내력은 나의 큰 재산이 되었으며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얻어진 것은 나 자신을 조금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한 일에 당황하지 않고 어려운 일에 절망하지 않고 화가나는 일에 분심을 발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남은 여생을 육바라밀을 도반삼고 사섭법을 애인삼아 팔정도(八正道)에 노닐면서(유마경 강설에서) 대자유를 만끽하며 후회없이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전통經床의 실용화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상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원 · 스님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 읽기 · 자녀들의 학습

■ 재질 ASH(느릅 원목)
■ 규격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 가격 8만5천원

·구입문의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주문(http://mall.buddhapia.co.kr)

卍 佛子 반야반지 卍

불자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 테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견(正見),정사유(正思惟),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정정진(正精進),정념(正念),정정(正定)

십육대력(十六大力)
지력(支力),의력(意力),행력(行力),참력(참力),강력(强力),持力(持力),복력(福力),덕력(德力),변력(辯力),색력(色力),신력(身力),재력(財力),실력(心力),신족력(神足力),종법력(弘法力),항마력(降魔力)

품명: 반야반지
재질: 금,큐빅(18K,14K-1.5푼)
가격: 18K-₩ 130,000, 14K-₩120,000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http://mall.buddhapia.co.kr

등의 미학 장엄 팔각등

장엄 팔각등은 전통적 미와 현대적 감각을 함께 갖춘 산뜻한 색상과 편리한 사용, 견고함을 자랑하는 연등 입니다.

• 연등이 변하고 있습니다.•

장엄팔각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에 찢어지거나 장대비 속에서도 결코 젖지않고 본래의 모양을 유지합니다.•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 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어우러진 장엄 팔각등은 선명하고 밝은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장기간 사용후 물세척으로 새 것처럼 깨끗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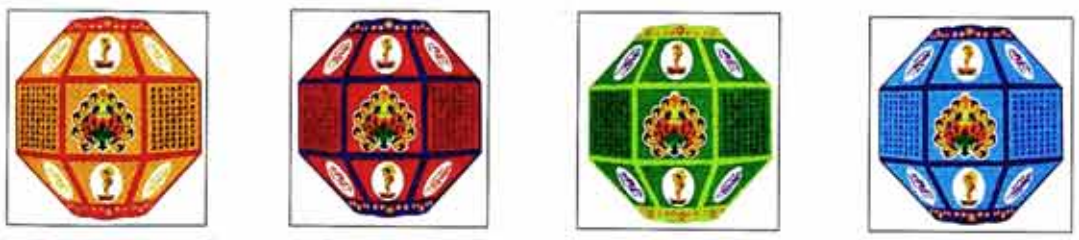
● 주문전화 : 02)732-1522/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 매 원 : 물 · 부다피아
● 납품방법 : 신청하신 곳으로 직배 · 택배 발송 (촛대, 등걸이, 이름표 포함)
● 제조기술특허 : 한덕(기술발명출원 0007192호/ 실용신안등록09863호)

접등과 조립등은 물 · 부다피아에서만 구입 가능 합니다.

조 립 등

조립등은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보관되며 사용시 펴서 홈에 맞추어 넣는 간단한 방식으로 뛰어난 색감을 자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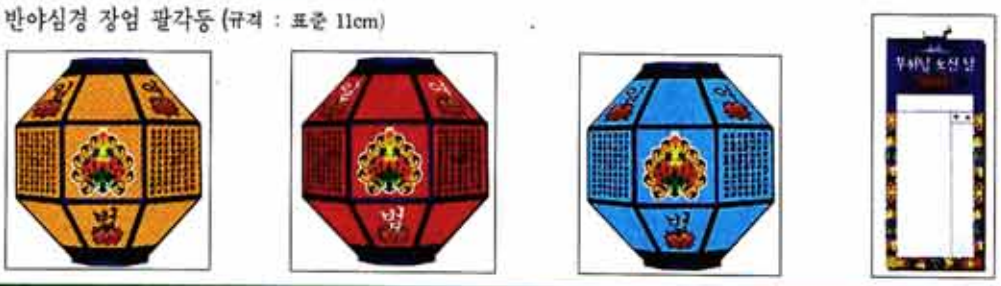
◐ 봉축 장엄팔각등(규격 : 표준 11cm)



접 등

장엄팔각접등은 풀칠과 조립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한번의 동작으로 펴서 사용하고,접어서 보관하는 팔각등입니다.

◐ 반야심경 장엄 팔각등 (규격 : 표준 11cm)



(등 이름표)